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제주올레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연구

-7코스와 5코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 Influencing User's Satisfaction of JeJu Olle

-Focused on the Olle 7course and 5course-

2013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 경 학 과

윤 죠 흔

제주올레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연구

-7코스와 5코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 Influencing User's Satisfaction of JeJu Olle

-Focused on the Olle 7course and 5course-

지도교수 김한배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 경 학 과

윤 죠 흔

Collection @ uos

윤죠흔의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2년 1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uos

국 문 초 록

제주 올레는 국내에서 최초로 저지대를 중심으로 느리게 걷기 위해 조성된 길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도보로 볼 수 있는 길이다. 제주올레는 제주도의 경관, 생태,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였음은 물론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제주도 관광산업에 가져왔다. 하지만 이런 제주올레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올레의 길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의 명확한 근거나 지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방로 지표 선정과 경관분석을 통해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자 만족도와 상호 비교하여 노선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중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상대적 우위 평가를 통해 구간 설정 시 우선해야 할 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해안변을 따라 조성하는 것이 제주올레의 가장 큰 특징인 점을 감안할 때 바다를 중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바다코스' 유형이 제주올레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다코스 유형 중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7코스와 가장 낮은 구간 5코스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이론적 연구와 대상지 연구로 나뉜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주올레와 유사한 탐방로들의 개념과 구간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고찰하였고,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해안 및 조망경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대상지 연구에서는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각 코스의 현황과 경관특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주체인 이용자, 거주민,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바다코스 유형의 제주올레 경관특성을 밝히고, 두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만족도와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여, 관련주체의 의견을

Collection @ uos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제주올레 구간설정 기준에 적용할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어 : 제주올레, 경관특성, 이용자 만족도

Collection @ uos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제주올레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연구

-7코스와 5코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 Influencing User's Satisfaction of JeJu Olle

-Focused on the Olle 7course and 5course-

2013년 2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 경 학 과

윤 죠 흔

Collection @ uos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2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 7

제 3 절 선행 연구 고찰 ····· 10

1.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선행연구 ····· 10

2.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 13

3. 선호·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 16

4. 관련제도 ····· 18

5.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20

제 2 장 관련 문헌 고찰 ····· 21

제 1 절 탐방로 ····· 21

1. 탐방로의 개념 및 구성 ····· 21

2. 탐방로의 유사개념 ····· 23

제 2 절 해안경관 ····· 24

1. 해안경관의 개념 및 분류 ····· 24

Collection @ uos

2. 해안경관 구성 요소 ····· 26
3. 해안경관 유형 ····· 27
4. 유형별 특성 ····· 28
제 3 절 조망경관 ····· 30
1. 경관의 형식적 유형 ····· 30
2. 조망경관 형성요인 ····· 32
3. 경관자원 조사범위 ····· 33
4. 조망점 선정기준 ····· 33

제 3 장 분석의 틀 ····· 35
제 1 절 분석의 틀 구축 ····· 35
제 2 절 분석 방법 ····· 36
1. 이용자 설문에 의한 분석 ····· 36
2. 운영주체 인터뷰에 의한 분석 ····· 38

제 4 장 대상지 연구 ····· 39
제 1 절 대상지 자원 평가 ····· 39
1. 탐방로 지표 선정 ····· 39
2. 경관특성분석 ····· 46
3. 소결 ····· 93
제 2 절 관련 주체 인식 평가 ····· 93
1. 이용자 분석 ····· 94
2.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 114
3. 운영상 의견 ····· 132

Collection @ uos

4. 소결 ····· 143

제 3 절 분석의 종합 ····· 148

1. 제주올레의 경관특성 ····· 148

2.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8

제 5 장 결론 ····· 163

▣ 참고문헌 ····· 168

▣ 부록 ····· 172

▣ 영문초록 ····· 188

Collection @ uos

<표 목차>

<표 1-1> (사)제주올레가 적용하고 있는 개설원칙과 기준……4
<표 1-2> 지형적 특성에 따른 개설 올레의 분류 -2010년 4월 기준…… 4
<표 1-3> 바다코스 유형에 속한 코스별 이용률 - 전체 올레 이용률 기준……5
<표 1-4>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선행연구…… 11
<표 1-5> 경관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15
<표 1-6> 선호·만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17
<표 2-1> 탐방로 종류 및 개념 구분…… 22
<표 2-2> 탐방로의 유사개념 정리…… 23
<표 2-3> 해안경관의 구성요소……26
<표 2-4> 제주올레 경관요소……27
<표 2-5> 경관의 형식적 유형…… 31
<표 2-6> 조망경관형성의 요인……32
<표 2-7> 시점으로부터 거리 구분…… 33
<표 2-8> 유형별 조망점 선정기준…… 34
<표 3-1> 이용자 분석항목…… 37
<표 3-2> 주체별 심층인터뷰 분석항목……38
<표 4-1> 유사개념 정리…… 39
<표 4-2> 유사지표 정리 ……42
<표 4-3> 탐방로 지표…… 43
<표 4-4>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44
<표 4-5> 요인의 일표본 t-검정 결과…… 45
<표 4-6> 생태환경 정량 지표 계산법 ……52
<표 4-7> 분석결과……52
<표 4-8> 접근성 측정 결과…… 59
<표 4-9> 7코스 주요 경관자원 조사표 …… 64
<표 4-10> 등급별 선정 기준……65
<표 4-11> 7코스 주요 경관자원 등급화 ……66
<표 4-12> 5코스 주요 경관자원 조사표 ……68
<표 4-13> 5코스 주요 경관자원 등급화 ……69
<표 4-14> 7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선정……72
<표 4-15> 5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선정……73
<표 4-16> 조화성 평가 고려사항……74
<표 4-17> 편의시설 현황(개)……84
<표 4-18> 자연·문화자원 해설시설 현황…… 86
<표 4-19> 축제 및 행사…… 90
<표 4-20>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92
<표 4-21> 코스 선택 이유…… 94

Collection @ uos

<표 4-22> 방문 목적 ····· 95
<표 4-23> 방문 전 정보를 얻는 출처 ····· 96
<표 4-24> 방문 빈도 ····· 96
<표 4-25> 방문 시 교통수단 ····· 97
<표 4-26> 방문 소요시간 ····· 97
<표 4-27> 탐방로 이용 지점 ····· 98
<표 4-28> 탐방로 이용 지점 선택 이유 ····· 99
<표 4-29> 총 완주시간 ····· 99
<표 4-30> 총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 100
<표 4-31> 편의시설 사용 빈도 ····· 100
<표 4-32> 농수산물 구입 여부 ····· 101
<표 4-33> 구입 종류 ····· 102
<표 4-34> 사지 않은 이유 ····· 102
<표 4-35> 알고 있거나 참여했던 축제 ····· 102
<표 4-36> 축제 참여 의사 ····· 103
<표 4-37> 7코스의 코스 분할의 적당한 위치 ····· 103
<표 4-38> 5코스의 코스 분할의 적당한 위치 ····· 103
<표 4-39> 방문 코스 재방문 및 추천 의사 및 이유 ····· 104
<표 4-40> 방문 코스 추천 의사 및 이유 ····· 104
<표 4-41>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05
<표 4-42> 문제점 및 개선사항 ····· 105
<표 4-43> 7코스의 이미지 ····· 106
<표 4-44> 5코스의 이미지 ····· 106
<표 4-45> 7코스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 ····· 107
<표 4-46> 5코스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 ····· 108
<표 4-47> 중요도 신뢰도 분석 ····· 113
<표 4-48> 만족도 신뢰도 분석 ····· 114
<표 4-49> 이용 집단별 전체 만족도 차이검정 ····· 117
<표 4-50> 요인분석을 통한 각 집단별 요인들 ····· 119
<표 4-51> 모형 요약 ····· 120
<표 4-52> 분산 분석 ····· 120
<표 4-53> 7코스의 요인별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21
<표 4-54> 모형 요약 ····· 122
<표 4-55> 분산 분석 ····· 123
<표 4-56> 5코스의 요인별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123
<표 4-57> IPA속성의 특징 ····· 125
<표 4-58> IPA 비교 분석 결과 ····· 129
<표 4-59> 1차 인터뷰 응답내용 ····· 137
<표 4-60> 관련주체 인식 평가 종합분석 ····· 143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 150
<표 4-62> 7코스, 5코스 요인별 종합비교 ····· 159
<표 4-63>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1

Collection @ uos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범위 ····· 6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9
<그림 3-1> 분석의 틀 ····· 36
<그림 4-1> 7코스 노선도 ····· 46
<그림 4-2> 7코스 경관 ····· 47
<그림 4-3> 5코스 노선도 ····· 48
<그림 4-4> 큰엉해안경승지 ····· 49
<그림 4-5> 7코스 생태자연도 ····· 50
<그림 4-6> 5코스 생태자연도 ····· 50
<그림 4-7> 7코스 임상도 ····· 51
<그림 4-8> 5코스 임상도 ····· 51
<그림 4-9> 7코스 산사태위험지도 ····· 53
<그림 4-10> 5코스 산사태위험지도 ····· 53
<그림 4-11> 7코스 낙석가능구간 ····· 54
<그림 4-12> 7코스 안전시설(울타리/경계석) 현황 ····· 54
<그림 4-13> 5코스 안전시설(울타리/경계석) 현황 ····· 55
<그림 4-14> 안전표지판 ····· 55
<그림 4-15> 경사도(좌:7코스, 우:5코스) ····· 56
<그림 4-16> 7코스 지형단면도 ····· 56
<그림 4-17> 5코스 지형단면도 ····· 56
<그림 4-18> 7코스 보도 현황 ····· 57
<그림 4-19> 5코스 보도 현황 ····· 57
<그림 4-20> 7코스 접근성 ····· 59
<그림 4-21> 5코스 접근성 ····· 60
<그림 4-22> 7코스 우회도로 및 연결탐방로 현황 ····· 61
<그림 4-23> 5코스 우회도로 및 연결탐방로 현황 ····· 61
<그림 4-24> 7코스 경관자원 현황 ····· 63
<그림 4-25> 5코스 경관자원 현황 ····· 67
<그림 4-26> 7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 71
<그림 4-27> 5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 73
<그림 4-28> 7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 75
<그림 4-28> 7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 76
<그림 4-29> 5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 77
<그림 4-29> 5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 78
<그림 4-30> 7코스 경관의 개방성 ····· 79
<그림 4-31> 5코스 경관의 개방성 ····· 79
<그림 4-32> 7코스 경관유형 현황 ····· 81

Collection @ uos

<그림 4-33> 7코스 경관유형의 다양성 ····· 81
<그림 4-34> 5코스 경관유형 현황 ····· 82
<그럼 4-35> 5코스 경관유형의 다양성 ····· 83
<그림 4-36> 7코스 편의시설 현황 ····· 85
<그림 4-37> 5코스 편의시설 현황····· 85
<그림 4-38> 7코스 자연·문화자원 해설시설 ····· 86
<그림 4-39> 5코스 자연·문화자원 해설시설 ····· 86
<그림 4-40> 7코스 농수산물 판매소 현황 ····· 87
<그림 4-41> 5코스 농수산물 판매소 현황 ····· 87
<그림 4-42> 7코스 하이킹/산책에 용이한 구간····· 88
<그림 4-43> 5코스 하이킹/산책에 용이한 구간 ····· 88
<그림 4-44> 7코스 거주지 관통여부····· 89
<그림 4-45> 5코스 거주지 관통여부 ····· 89
<그림 4-46> 인지도에 나타난 7코스의 경관요소분포····· 110
<그림 4-47> 인지도에 나타난 5코스의 경관요소분포 ····· 110
<그림 4-48> 중요도-만족도 분석모형····· 125
<그림 4-49> 7코스 IPA결과 ····· 127
<그림 4-50> 5코스 IPA결과····· 128

Collection @ uos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제주 올레는 국내에서 최초로 저지대를 중심으로 느리게 걷기 위해 조성된 길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도보로 볼 수 있는 길이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모델로 (사)제주올레라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였으며, 2007년 9월 제1코스가 개방된 이후 2012년 11월까지 총 26개 코스가 개발되어 현재 총 423km가 조성되었다.

제주올레는 제주도의 경관, 생태,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하였음은 물론 해마다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광정보 제공, 기념품 판매, 커뮤니티 구축 등을 통해 '올레노믹스'란 신조어[1]가 생겼을 만큼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제주도 관광산업에 가져왔다. 개방 첫 해인 2007년에 약 3000명이던 방문자가 2010년 10월 말까지 59만4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재방문의사는 98.6%에 달했다[2].

제주올레는 기존 시설 관광지와 자동차 위주의 방문으로 인해 제주관광

---

1) 1980년 대 세계 경제의 지형을 바꾼 미국 발 경제 독트린을 일명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렀다.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과 금융자유화를 세계화시키려는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이었다. 이후 30여 년 동안 수많은 'OO노믹스'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DJ노믹스, MB노믹스, 콜레보노믹스, 위키노믹스 같은 용어들이다. 이런 용어의 명멸(明滅)은 흔히 주도 세력의 부침(浮沈)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용어를 유행시키는 속내에는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효과'를 바라는 의지가 스며있다. 이런 시속(時俗)에 따라 한가지 'OO노믹스'를 추가하고 싶은 마음을 동하게 만든 현상이 있다. 바로 '제주 올레 현상'이다.

2) 이승환 (2010년 11월 26일). "[매경이 만난 사람] 올레길 만든 서명숙".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50970
박영아·현용호, 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3권 제7호, p78.

Collection @ uos

의 매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걷기를 통해 제주의 숨겨진 풍광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올레열풍은 제주올레를 벤치마킹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해외에까지 올레를 수출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렇듯 제주올레가 전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올레의 길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의 명확한 근거나 지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로인해 제주올레와 올레에 포함되지 못한 길은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구분되고 단절되는 현상이 빚어졌으며[3], 일부 구간에만 많은 관광객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4]. 이는 자기사색, 자기정화의 목적[5]으로 제주올레를 찾는 대다수의 올레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은 물론,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올레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올레의 유형별로 물리적·시각적·문화적 조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설원칙은 일률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합리적 구간설정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탐방로 지표 선정과 경관분석을 통해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주체의 만족도와 상호 비교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스의 전체 만족도에

3) 이명구, 201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 관리 연구: 제주 올레길 중심. 서비스산업연구, 제7권 제2호, p161

4) 양승진 (2011년 11월 3일). “[여행]제주 올레의 4가지 ‘불편한 진실’”.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50519

5) 박영아·현용호, 2009, 앞의 논문, p89

Collection @ uos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간의 상대적 우위 평가를 통해 구간 설정 시 우선해야 할 요인을 밝혀낸다. 이를 통해 기존 제주올레에 대한 부분적 구간 재조정 내지는 특성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면 제주올레의 구간별 이용자 편중문제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주 올레 보전에 대한 경관 관리 전략의 발전 방향과 해안을 끼고 있는 타 지역의 탐방로 조성에도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대상지 개요

(1) 제주올레 개념

'올레'는 본래 집 마당에서 마을길로 들고나는 어귓길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사)제주올레 이사장인 서명숙씨가 길을 내면서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제주올레의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15km 이내로, 완주하는데 평균 5~6시간이 소요된다.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도 있다.

제주올레는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 (사)제주올레에서 코스를 선정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하는 역할로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Collection @ uos

(2) 제주올레 개설 원칙

현재 제주올레가 코스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원칙과 기준은 <표1-1>과 같다. 이는 코스 개설의 개괄적인 원칙은 될 수 있으나, 지역의 독특한 여건을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구체성을 갖는 원칙과 기준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1-1> (사)제주올레가 적용하고 있는 개설원칙과 기준

코스 개설 원칙	기준
광범위한 지역 검토	해안변을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 구간이 많거나 육상 양식장과 같은 경관훼손구조물을 피하여 개설
자연환경	새로운 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방식을 씀 새 길의 폭은 1m를 넘지 않아야 함
역사·문화적 가치	사라진 옛길을 찾음
풍광	자연 상태에서의 길을 찾음
길의 상태(도로 현황, 접근성)	포장도로는 되도록 피함
옛길의 모습	점(지점)과 점(지점)을 잇는 선으로서 개발되고 있으나 선의 상태에 따라 바뀌기도 함 점차 점과 점이 면을 이루고 면과 면을 잇는 선(생태 문화적 벨트)으로 변화 진화되도록 유도함
기타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보수 할 때는 군, 민 등 다양한 인력을 참여시킴 사유지는 올레가 소유하지 않되, 통과하도록 조율함

출처: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2010

(3) 제주올레 유형

제주올레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바다코스, 해안+오름코스, 중산간코스, 내륙코스, 섬코스로 나눌 수 있다.

Collection @ uos

<표 1-2> 지형적 특성에 따른 개설 올레의 분류 -2010년 4월 기준

분류	코스
바다코스	5, 6, 7, 8, 10
해안+오름코스	1, 2, 3, 4, 12,14
중산간코스 (표고200m~600m사이 지역)	7-1, 9, 11, 13, 15
내륙코스	16, 14-1
섬코스	10-1, 18-1, 1-1

출처 :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2010

(4) 제주올레 이용객 현황

제주올레는 2009년 기준 총 약 251349명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에서 7코스가 66607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코스 중에서는 10코스가 14650명으로 가장 낮았다. 2010년 기준으로는 전체 530673명 중에서 역시 7코스가 28105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10529명으로 5코스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바다코스 유형에 속한 코스의 이용률을 비교해 본 결과는 <표1-3>에 정리되어 있다.

<표 1-3> 바다코스 유형에 속한 코스별 이용률 - 전체 올레 이용률 기준

구분	2009(%)	2010(%)	평균
7코스	26	53	39.5
8코스	10	4	7
6코스	9	4	6.5
10코스	6	5	5.5
5코스	6	2	4

Collection @ uos

2) 공간적 범위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고, 해안변을 따라 조성하는 것이 제주올레의 가장 큰 특징인 점을 감안할 때 바다를 중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바다코스' 유형이 제주올레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다코스 유형에 속하는 올레(5개 코스)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높은 1구간(7코스)과 낮은 구간 1구간(5코스)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표 분석의 결과와 각각의 중요도·만족도가 전체 이용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용률이 높은 코스와 낮은 코스의 상호비교를 통해 이용률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 요인별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려 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범위



Collection @ uos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이론적 연구와 대상지 연구로 나뉜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주올레와 유사한 탐방로들의 개념과 구간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고찰하였고,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해안 및 조망경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경관특성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특성뿐만 아니라 포괄적 경관의 개념으로써 물리적·문화적 특성 역시 경관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경관의 특성을 연구하려 한다.

대상지 연구에서는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를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기초로 하여 각 코스의 현황과 경관특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주체인 이용자, 거주민,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바다코스 유형의 경관특성을 밝히고, 두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만족도와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여, 관련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바다코스 유형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주올레와 유사한 탐방로들의 개념과 구간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고찰하여 지표를 추출하고, 이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해안 및 조망경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이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경관성격을 분석·평가한다.

Collection @ uos

둘째, 관련주체의 인식을 평가하기위해 이용자의 이용실태와 중요도·만족도, 인지도를 조사하고, 거주민과 운영자인 (사)제주올레, 관리자인 제주도청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셋째, 도출된 대상지 경관특성 및 평가 내용과 관련주체의 인식결과의 상호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가치들 간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한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제주올레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그림1-2>와 같은 흐름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도입단계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밝히고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제시한다.

제2장 이론적 고찰에서는 탐방로와 해안경관, 조망경관의 관련이론을 검토하여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도출하며, 대상지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제3장 대상지 연구에서는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두 대상지의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얻은 관련주체의 선호·만족요인 및 의견과 비교·분석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의 통계자료는 SPSS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T-TEST, 요인분석, 회귀분석, IPA 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한다.

제4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결과에 대한 제언 및 연구의 의의에 대해 언급한다.

Collection @ uos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Collection @ uos

제 3 절 선행 연구 고찰

본 논문의 주제인 제주올레의 경관 특성 및 선호 요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주요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연구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도보길 및 제주올레에 관한 연구, 둘째,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셋째, 선호·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 올레 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검토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취하는 연구의 주된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1.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선행연구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연구는 관광측면, 활용 및 보전, 조성방안,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1-4>를 통해 알 수 있다.

관광측면에서는 대개 관광지의 이미지와 여행객의 방문 동기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박시사, 노경국(2010)은 정신적인 사색 및 성찰과 함께 웰빙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연감상의 목적으로 도보여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도보관광지에 있어서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성된 제주올레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는데, 전반적인 내용만을 다룰 뿐 구간별, 유형별 구체적인 현황조사나 방안마련에는 미흡했다.

Collection @ uos

조성방안에서는 도시지역 내 생태문화탐방로 위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계획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탐방로 조성의 연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생태' 분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선 선정 및 평가에서는 김민선(2012)이 숲길의 경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경관관리등급을 설정하였으나 물리적 경관자원 이외의 정성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윤인용 외 3인(2010)는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을 위해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사용했으나, 시군구 단위의 대상지를 중심으로 했기에 제주올레에 적용하는 데에는 특성과 구체성 면에서 무리가 있다. 최나무(2010)는 제주올레를 생태회랑으로 보고 평가지표를 만들었으나, 경관을 비롯한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해안경관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자원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을 보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정성적 특성을 밝혀 경관적 특수성과 가치를 고려한 관점의 연구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4>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자	논 문 명	논 문 내 용
관광측면에서의 연구	최병길, 이영관 (2011)	도보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 제주올레길과 지리산둘레길을 중심으로	시사점으로 도보관광지의 매력요인 강화 및 관광객의 감정적인 측면의 만족을 유발해야 한다고 주장
	김인신, 조민호 (2011)	제주올레 관광지 속성, 도보관광객 편익 그리고 지각된 가치 간 관계 분석 : 수단-목적 사슬 이론 적용	도보관광객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관광지속성, 편익, 가치에 대한 항목들을 파악하고 도보관광지의 특징적인 속성, 관광객 편익, 그리고 관광객이 지각한 가치 간의 인과 관계를 수단-목적 사슬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했음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1-4〉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자	논 문 명	논 문 내 용
관광측면에서의 연구	박시사, 노경국 (2010)	도보여행객의 여행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제주올레여행객을 중심	도보여행동기 유형에 따른 세분시장을 파악하고 유형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 자연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음
	이명구 (201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 관리 연구 -제주 올레길 중심	제주도 올레길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과정과 운영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과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모색함
	박영아, 현용호 (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방문동기로 기존연구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자지사색, 자기정화, 자기성취감 같은 요인들 들며, 이는 도보여행만이 가지는 독특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함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연구	이성용 (2010)	걷는 길의 가치를 높인 제주올레 보전 및 관리 방안	걷는 길의 현황 및 효과를 밝히고 제주올레의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
	이성용 (2009)	제주올레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주올레 현환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이동수단의 다양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의 연계, 등을 제시함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봉호 외 3인 (2010)	서울 성북구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	도시생태문화탐방 현황 파악 및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적절한 도시생태문화탐방로 조성방안을 제시함
	임휘룡 (2010)	서울 북악산 군 순찰로를 활용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이용 프로그램 개발	현장조사를 통해 북악산 과거 군순찰로를 활용하여 주변 식생구조를 파악하고 경관자원은 물론 문화,역사자원을 종합하여 산책로별 특색있고 구체적인 생태탐방로를 위한 탐방프로그램을 제시함
	윤나리 (2009)	백제문화권의 문화생태탐방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백제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자원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문화자원을 개발,보존하며 관광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하여 백제문화권의 도보여행과,그를 위한 탐방로 조성방안을 계획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1-4>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자	논 문 명	논 문 내 용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박병옥 (2007)	도시 숲과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양림산 자연생태조사를 통하여	도시 숲과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식생조사와 자연환경 모니터링, 역사·문화 조사, 법규 및 여건분석을 통하여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
노선선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김민선 (2012)	숲길 경관정량평가에 의한 공간구획 관리 - 지리산국립공원 숲길을 대상으로	숲길의 경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경관관리등급을 설정하였으나 물리적 경관자원 이외의 정성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윤인용 외 3인(2010)	지역단위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 기법에 관한 연구 -과천시를 대상으로	지역단위 노선선정에 필요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요소별 분석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며, 실제적인 노선 선정을 위한 분석 방법, 현장적용 등을 수행
노선선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최나무 (2010)	환경지표를 통한 생태회랑 평가에 관한 연구 - 제주올레를 중심으로	생태회랑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되는 요소를 찾고 정량적인 판단기준 마련

2.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는 자연경관과 해안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1-5>를 통해 알 수 있다.

자연경관에서는 이영경(2004)이 경관의 자연성이 어떠한 특질에 의해 인식되는가를 밝히고 자연성이 경관평가와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경관의 자연성이 높을수록 경관에 대한 세가지 평가(시각적 평가, 휴식성 평가,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경관의 자연성은 긍정적 역할을 하는 중요 요소임이 나타났다. 특히 가장 자연적인 경관은 경관 내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없거나 원형대로 보존된 것으로, 손

Collection @ uos

대지 않은 느낌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영향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과수원이나 길)로 인식되거나 자연이 지배적일 때는 자연적인 경관으로 인식되었다. 자연성이 낮게 평가된 경관은 자연적으로 보이더라도 인간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유발되는 경관들로서, 논이나 밭, 골프장 등이 포함된다. 자연성평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학생 집단의 차이점은 없으며, 유사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안경관에서는 강향혜(2008)가 제주도 연안역의 경관평가를 위해 사빈해안을 중심으로 피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슬라이드를 1장씩 상영하고 피험자는 좌석에 앉은 채로 각 지점마다 마크 시트를 체크하는 앙케이트 방식을 사용했다.

노영란(2008)은 해안경관을 바다에서 육지를 조망하는 경관을 중심으로 물리적 구성요인들의 만족도 평가와 심리적 반응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영향분석을 통하여 물리적 구성요인과 심리적 평가항목들이 해안경관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힌 후 이미지 평가를 위한 개선 필요도 산출 및 각 인자별 개선 우선순위를 선정함으로서 해안경관의 평가방법을 정립하였다.

이은정(2001)은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안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에 대한 시각적 차폐도를 입면차폐도로 보고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경관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설문 분석하여 시각적 선호도에 건물의 높이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

Collection @ uos

〈표 1-5〉 경관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자	논 문 명	논 문 내 용
자연경관	신상섭 외 (2007)	제주 영주십경의 형식미학적 특성 및 경관체험 방안	제주 영주십경의 형식미학적 특성을 밝히고 경관 체험 방안을 보색함
	이영경 (2004)	자연경관의 특질 분석-자연성에 대한 조경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를 중심으로	경관의 자연성이 어떠한 특질에 의해 인식되는가를 밝히고 자연성이 경관평가와 반응에 미치는 여향을 파악함
해안경관	강향혜 (2008)	제주도 연안역의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앙케이트 조사기법을 통하여 제주 해안의 어메니티를 평가하는 것을 검토함
	노영란 (2008)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	해안경관의 물리적 구성요인과 심리적 평가항목들이 해안경관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평가방법을 정립함
	윤국진 (2003)	동해안 연안역 경관의 인식특성에 관한 연구	연안역 경관이 가진 특성을 규명하고 다양한 조망경관을 대상으로 한 시각적 인식특성을 파악함
	이재진 (2003)	해안도시의 조망경관 형성에 있어서 Open Space 역할에 관한 연구	해안도시의 조망경관에서 가시권역 확보를 위한 국내외의 규제제도와 사례 조사 후 여건에 적합한 Open Space 활용방법 모색
	윤상호 (2003)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해안지역의 경관특성과 자원에 따른 경관유형별 문제점 도출
	이은정 (2001)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시각적 차폐도 분석에 관한 연구-제주도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안경관의 시각적 선호도에 건물의 높이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냄

Collection @ uos

3. 선호·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선호·만족요인에 관한 연구는 자연경관과 도시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1-6>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혜린 외 4인(2011)은 설문조사를 통해 지리산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숲길경관체험(자연경관, 숲길 개발정도, 관리상태, 문화·관광자원, 주민친절) 요인으로 밝혀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수가 자연경관인 것을 알아냈다.

김상범(2008)은 제주오름에 대한 경관적 특성과 경관 선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보이는 총 18개 오름을 대상으로 지상과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 슬라이드를 평가매체로 비 제주인(1그룹), 제주인(2그룹), 외국인(3그룹)에 대한 선호도와 선호요인 그리고 이미지 구조를 조사 분석하였다.

도시경관에서 송대호외 1인(2006)은 경관사진을 활용하여 피험자에게 설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가로경관에 대한 가로 폭원의 차이에서 오는 선호특성 및 선호유형을 추출하였으며 아울러 경관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시민의 시각적 선호 결정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는 광폭원의 가로에서는 주로 '건물군집형상'에 의해 가로 분위기 및 이미지가 좌우되는 반면에 대 ·중폭원의 가로에서는 '광고간판', '가로수·녹지' 등에 의해 경관의 시각적 선호가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Collection @ uos

〈표 1-6〉 선호 · 만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자	논 문 명	논 문 내 용
자연경관	이혜린 외 4명(2011)	지리산숲길 이용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 영향 요인 연구	지리산숲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도보체험의 영향요소들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
	Song Meijie (2011)	중국 강남 전통 수향(水鄕) 하천 경관의 시각적 특성 및 선호요인 분석 : - 중국 강수성 주장(周莊) 하천경관을 중심으로 -	중국 전통 강남 수향 하천경관인 주장(周莊)을 대상으로 경관 형용사 분석에 의한 시각적 특성을 도출하고 시각적 특성과 선호도의 관계를 파악함
	김상범 (2008)	제주도 오름경관의 선호 및 이미지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 오름에 대한 경관적 특성과 경관 선호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보이는 총 18개 오름을 대상으로 지상과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 슬라이드를 평가매체로 비 제주인(1그룹), 제주인(2그룹), 외국인(3그룹)에 대한 선호도와 선호요인 그리고 이미지 구조를 조사 분석
	안태원 (2004)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의 경관특성 및 시각적 선호요인에 관한 연구	낙산도립공원지역의 집단시설지구의 경관유형화와 각각의 유형에 대한 경관특성과 시각적선호도를 파악함
도시경관	고은정(2010)	가로경관의 공간적 특성이 도시이미지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분석 -디자인서울거리를 중심으로 -	가로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가로경관이 도시 이미지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로 경관의 이미지 선호에 대한 영향만을 고찰한 한계
	송대호 외 1명(2006)	도시가로경관의 선호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경관선호 유형 및 영향요인 추출을 중심으로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세부요소가 경관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선호요인을 통해 규명함

Collection @ uos

4. 관련제도

1) 제주올레 친환경 관리 및 행정지원 지침(안)

: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수립

(1) 목적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제주올레에 대하여 행정 및 마을 등이 올레 길의 원칙에 벗어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가이드라인 및 행정지원 지침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태•문화탐방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① 조성원칙

올레의 조성원칙은 자연과 생태계 보호, 인공적인 공법과 재료의 사용 최소화, 작은 길, 편안한 길, 수익창출의 대안을 제시 등 5가지이다.

② 조성기준(가이드 라인)

경관·생태환경분야는 자연경관, 자연과의 연속성·일체성, 식생복원, 생육환경, 환경조건에 맞는 재료 사용, 안전방안 등에 염두를 두었다.

인문사회 분야는 자연속의 생명 배려, 주민의 일상생활(의례·풍속) 존중, 역사·문화적 유적과 유물의 훼손 금지, 느림의 미학으로 자연 치유의 길, 공정여행의 원칙, 역사·문화의 향기, 토착주민의 경제적 이익 증진, 지역축제·이벤트 연계, 지역농수축산물 유통, 마을의 설화와 민요 소개 및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리적 시설분야는 위 '경관·생태환경 및 인문사회'의 기준을 적용하는 코스조성 및 관리, 이동통로, 안전시설, 편의시설, 사인물, 흙길 복원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조성방법

Collection @ uos

탐방로의 넓이·높이, 침수지역, 안내표식(화살표, 리본, 간세사인, 표지석), 토양침식 방지 시설물(측사면, 물길, 계단), 편의시설(휴게시설, 안전시설, 방목지용 미로형문, 교량, 화장실), 흙길 복원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올레 길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생태문화 자원 발굴 및 스토리화(예: 아카데미, 길동무, 올레지기 등), 마을체험 프로그램 문화 이벤트 제공(예: 빙떡 만들기, 제주전통 뗏목 테우체험, 전통춤 재연, 해녀공연 등), 체류형 공간(숙박시설, 음식점, 쉼터) 제공(예: 게스트하우스, 할망숙소, 토속음식점, 마을회관의 올레꾼 쉼터 등), 지역특산물 체험 코너 및 직거래 시스템 마련(예: 특산물 판매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1사 1올레 결연, 무릉외갓집 브랜드로 인터넷 판매시스템 구축 등), 홍보마케팅 및 세계화 추진(예: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탐방정보센터, 콜센터, 여행사 팸투어, 국제걷기 페스티벌, 슬로시티 연맹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제주올레 행정지원 사항

행정지원T/F팀을 운영하고, 제주올레 발전을 위한 전문가자문 및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다. (사)제주올레, 도, 행정시, 읍면동의 올레업무 관계자 합동 워크숍 실시로 민·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올레코스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한다.

(2) 한계점

제주올레의 조성수법에서 탐방로의 넓이나 높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노선 설정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며, 조성 기준은 일반적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실제로 노선을 설정하는데 적용하기엔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들 간의 상대적 우위평가를 통하여 노선설정 시 우선되어야 하는 요인을 밝히려 한다.

Collection @ uos

5.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주올레 및 도보길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관광측면에서와 조성방안에 치중해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현재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도보길과 탐방로로 인하여 자연 훼손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었고,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제주올레에 있어서 경관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경관특성 및 선호·만족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정량적 혹은 정성적 평가로 치우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대상지의 경관을 통합적으로 보지 못해 다소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설문의 방식에 있어서 한정된 피험자를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사진 및 슬라이드 방법을 통한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장시간 걷는 것이 특징인 제주올레이기에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인지되는 결과와는 오차가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게다가 해안경관과 도보길의 특징을 반영한 선호·만족요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의 중요성을 반영한 평가와 중요요인 도출에 목적을 두고 대상지의 경관특성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분석하려 한다. 특히 대상지를 '바다코스' 유형의 올레로 한정하여, 향후 해안경관이 주가 되는 탐방로의 기준 설정 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관련주체를 비롯하여 전문가의 견해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상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판단, 사진매체가 아닌 현장에서 올레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이용자설문을 실시하기로 한다.

Collection @ uos

제 2 장 관련 문헌 고찰

제 1 절 탐방로

1. 탐방로의 개념 및 구성

1) 탐방로의 개념

탐방로는 사전적 정의로 동사로서 '뒤를 밟다', 명사로는 '발자국','오솔길' 등을 뜻한다. 이용하는 주체가 다양하며, 인공적인 환경보다는 자연적 환경과 친숙한 개념이다. 넓고 번잡한 길보다는 좁고 한산한 길로,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자연탐방로, 자연체험탐방로 등 자연지역에서의 활동 외에도 탐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6]. 국내에서는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의 환경교육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즐기고 감상하는 여가활동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의미한다[7]. 해외에서는 외부지역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길을 의미한다[8]. 미국의 삼림학자 마카에(Banton Makaye)가 'The Appalachian Trail'에서 탐방로는 차가 없는 길, 마음의 길, 발견의 길이라고 하였으며, 탐방로는 그것이 제공하는 경험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9].

2) 탐방로의 구성

탐방로는 물리적으로 노선, 흥미자원, 안내시설, 부대시설 등의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탐방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탐방로, 탐방지역, 탐방

6) 정휘, 2008, 광역 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기법 연구, p13

7) 환경부, 2007,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p5

8) 환경부, 2007, 앞의 연구, p6

9) Jubenville, 1976, 환경부, 2007, 앞의 연구, p5에서 재인용

Collection @ uos

시설, 탐방자원, 연결로, 접근로, 거점지역 등으로 구분하며 계획요소로는 탐방주변 환경, 정상, 조망점, 연못·호수·시냇물등의 수자원, 마을, 탐방로 시작점(Trail heads)과 주차, 숙박시설 등을 들 수 있다[10].

우리나라 국립공원구역에서는 탐방객이 보행하는 보도를 탐방로로 통일하되 국민 정서에 맞고 동시에 자연공원 관리목적을 고려하여 <표2-1>과 같이 세분화할 것을 제안한다[11].

<표 2-1> 탐방로 종류 및 개념 구분

명칭		개념
탐방로	서비스도로	공원구역 내의 취락지구, 야영장, 사찰 등으로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차도 또는 포장된 보차도로서, 이를 경유하여 등산로 등으로 접근기능도 갖는 탐방로
	자연탐방로	삼림욕, 경관감상 등을 목적으로 가벼운 자연탐방로 위한 보도 또는 등산로에 접근하기 위한 경사도가 10%미만으로 완만히 유지되는 비포장 보도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관리(청소, 구조활동 등) 등의 특수목적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보차도를 포함
	등산로	서비스도록, 자연탐방로를 지나 산록부나 산정상에 이르는 순수 보행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전용 탐방로
	종주등산로	능선부와 산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성부에 위치한 종주등산 전용탐방로
	자연관찰로	자연생태계, 문화자원 및 자연경관 등의 감상, 관찰,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이해 및 흥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찰 테마에 따라 노선을 설계하여 해설시설, 편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한 등산로

출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세굴유형 분석과 복원대책에 관한 연구, p8

본 연구의 대상인 제주올레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자연경관감상이 목적이 되는 자연탐방로와 자연관찰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에서가 아닌 제주도 해안 전역에 걸친 제주올레의 특성상 자연탐방로와 자연관찰로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내외 유사

10) 환경부, 2007, 앞의 연구, p7

11)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세굴유형 분석과 복원대책에 관한 연구, p9

Collection @ uos

개념의 검토를 통해서 제주올레 예비평가항목을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2. 탐방로의 유사개념

제주올레와 목적 및 효과 측면에서 유사한 탐방로 관련 개념을 찾아보았고 자세한 내용은 <표2-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2> 탐방로의 유사개념 정리

구분	주요 개념	목적 및 효과
자연탐방로	▪ 야생지(wildland), 농산촌벽지(backcountry) 등의 일정한 길이 없는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길(내무부, 1980) ▪ 정적이 아니라 동적인 광광을 유발시키는 선형의 관광자원(윤주철,1983) ▪ 삼림욕, 경관감상 등 가벼운 자연탐방을 위한 보도 또는 등산로에 접근하기 위한 경사도 10%미만의 완만한 비포장보도(권태호 외 2001)	▪ 길을 걸으며 즐거움을 얻고 심신을 단련하며, 여행을 즐긴다는 그 자체가 목적 ▪ 직접 경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전달 ▪ 즐거움을 주고, 학습효과가 있으며, 지역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기능(박석희,2000).
자연학습탐방로 (국립공원관리공단)	▪ 지형, 생태, 문화 등 자연을 천천히 걸으면서 관찰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	▪ 실내에서는 할 수 없는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
트레일	▪ 야외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는 길	▪ 역사탐방 ▪ 환경교육 및 체험 ▪ 자연친화적 여가 ▪ 도보위주의 활용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2-2〉 탐방로의 유사개념 정리

구분	주요 개념	목적 및 효과
생태탐방로 (환경부)	▪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전 국토에 걸쳐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과 그 시스템	▪ 역사탐방 ▪ 환경교육 및 체험 ▪ 자연친화적 여가 ▪ 도보위주의 활용
건강·문화· 생태회랑 (국토연구원)	▪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체육,문화,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선적으로 연결된 공간	▪ 생태계 보전 ▪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 건강 및 여가시설의 제공 ▪ 기존 노후 및 미활용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장거리자연보도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관찰과 경관감상, 사적 등에 접근하는 등 자연의 수려함에 감동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직접 접하고 자연보호와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 자연관찰 및 경관 감상 ▪ 자연보호와 문화재 보존
해변길	▪ 해안형 국립공원의 해안생태계, 지역문화, 자연경관, 휴양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탐방로	▪ 해안생태계 보존과 이용의 조화 ▪ 해안형 지역사회 협력 ▪ 해안탐방 인프라 구축

출처 : 정휘 외, 2008, 국토연구원,2008, 환경부,2007를 참고하여 연구자 수정 정리

제 2 절 해안경관

1. 해안경관의 개념 및 분류

경관이란 대상(군)의 전체적인 조망이며 그것을 계기로 형성되는 인간(집단)의 심적 현상으로,[12] 동적인 변화성을 가지고, 지극히 주관적이며 상

12) 시노하라 오사무 저, 배현미 외 공역, 1991,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대우출판사, p15

Collection @ uos

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경관은 눈에 보이는 자연 풍경 및 인공풍경 모두를 포함하며 토지, 동식물 생태계,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내포하고 있다.

경관은 인공성의 여부에 따라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인공경관)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연경관은 지형에 따라서 산림경관, 평야경관, 해안경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문화경관은 주거의 양식에 따라서 도시경관, 농촌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주올레는 자연경관인 해양경관과 삼림경관, 문화경관인 농어촌경관이 복합된 경관으로서 수역에 의한 광대한 전망과, 육역과 다른 연안에서의 자연현상 및 인간 활동으로 인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안경관 역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은 기상(氣象), 해상(海象), 식생, 지형, 생물 등 자연계 요소로 형성된 경관을 의미하며 인문경관은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역사적, 문화적, 심미적인 경관요소에 의해 형성된 경관이다. 해안경관은 육역으로부터 보이는 해역의 풍경과 해역으로부터 보이는 해역을 포함한 육역의 풍경으로 구성된다. 해양경관이 모든 해양환경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의한 시각적 현상을 의미한다면 해안경관은 해안지역에서 자연과 개발에 의한 결과로 생겨나는 자연경관을 의미한다. 광의의 해양경관은 협의의 해안경관의 배경을 형성하며 그 가치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결국 해안경관은 육역에서 보이는 해역의 풍경과 해역으로부터 보이는 육역의 풍경에 의해 구성되는 통합된 경관으로 필수경관요소로서 반드시 수면을 포함하는 경관이며 해안지역의 개발로 인해 파괴될 수 있는 해안환

Collection @ uos

경의 하나로서 정의할 수 있다[13].

2. 해안경관 구성 요소

해안경관은 바다가 가지는 특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육지지역과는 다른 경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안경관을 구성하는 독특한 요소로서는 광대한 해역이나 하늘, 섬, 곶, 해안선, 사빈, 송림 등은 물론이고 파도나 너울, 반사광, 도경(倒景)등 자연적 현상에 의한 경관과 선박, 물류용기, 교량, 도시의 스카이라인 등의 인공적인 현상에 의한 인문경관을 들 수 있으며[14] 주요 경관요소를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표 2-3> 해안경관의 구성요소

구분		주요한 경관요소
자연경관	지형	도서, 반도, 갑 등
	해안형태	사빈, 해식애, 사주 등
	생물	식물, 동물, 조석대의 생물상 등
	기상 · 해상	태양광의 해면반사, 조수간만 등
인문경관	생산	항만, 어항, 콤비나트
	생활	상업 · 업무시설, 주거시설, 인공섬 등
	오락	임해공원, 이벤트, 레크레이션 활동 등
	교통	교량, 도로, 선박, 유도시설(등대) 등
	방재	방파제, 돌제, 호안 등

- 갑(岬) : 바다나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 땅. 곶
- 해식애(海蝕崖) : 파도의 침식 작용과 해면상의 암석에 행하여지는 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해안에 이루어진 낭떠러지
- 돌제(突堤) : 육지에서 강이나 바다로 길게 내밀러 둑같이 만든 시설

출처 : 水環境創造研究會,ミチゲーションと第3の國土究聞づくり, 共立出版株式會社, 1997 ,p.147

13) 노영란, 2008,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 p19

14) 일본건축학회편, 이한석 역, 2000, 해양건축용어사전, 기문당, p316

Collection @ uos

3. 해안경관 유형

해안경관의 유형은 도시경관과는 달리 모두 해안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능적, 형태적, 이용적 측면에서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제주올레는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마을을 끼고 조성되어, 해안의 풍경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관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려한 제주올레의 경관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제주올레 경관요소

구분	유형	세부구분	경관 요소
연안	농어촌경관	농업생산	농지 : 밭, 과수원, 수목 등 농업시설 :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시설 및 설비(축사, 정미소, 비닐하우스 등) 등
		농촌생활	농가주택(담장 등), 공공시설, 상점, 도농교류시설(마을 회관 등), 공장, 도로, 안내시설 등
		어촌풍경	어부림, 해안방품림, 어선 등
		역사·문화	봉화대, 사적, 유적, 관광시설, 마을 행사 및 시설(동제, 축제, 사당, 당산목 등) , 유형·무형 문화재 등
	자연경관	육역	해안사구, 석호, 하천, 구릉지, 산, 식생 등
		해역	섬, 해안단애, 주상절리, 해안동굴, 사빈, 해식애, 조수간만, 일출, 일몰 등
수제부	해수욕장경관	주요시설	유영시설, 휴식·편의시설, 관리시설, 환경시설, 교통시설
		부대시설	휴양·놀이시설, 공원시설, 숙박시설, 기타 관련시설
	친수공간경관	친수공간	해변공원, 해안공원, 해안산책로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2-4> 제주올레 경관요소

구분	유형	세부구분	경관 요소
수변	해안형도로경관	해안도로, 철로	가로시설물, 입간판, 도로조경 등
	어항경관	어항기능시설	항로표지시설(등대 등)
		어업기반시설	시설배치, 대지 디자인, 경계부 처리 범선 형상, 위판시설 등
		방파제	해안산책로, 바다낚시터
		횟집거리	건축물,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등

출처 : 윤상호(2007), 김상범(2006) 참조하여 연구자 재구성

4. 유형별 특성

1) 어촌경관의 특성

어촌경관은 해안경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오랜기간 동안 사람들이 정착해 살아오고 있는 물리적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삶의 근간이 되었던 만큼 우리에게는 친숙한 공간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주 5일제의 시행과 국민여가 활동의 증가로 체험관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개발의 압력과 비원주민의 토지소유가 늘어나면서 상업화되는 양상으로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어촌고유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어촌 마을의 독특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판상형의 건축물과 횟집, 유사한 상업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면서 어촌의 경관적 분위기는 획일화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연경관의 특성

해안역의 자연경관은 육역, 해역, 기수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육역의 자연경관은 해안사구, 석호, 구릉지, 산, 하천, 해안식생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역은 섬, 육계도, 해안단애, 주상절리, 해식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Collection @ uos

기수역은 연안습지, 갯벌 등이 해당되며, 특성상 다양한 어류와 철새의 서식지로 생태경관이 매우 뛰어는 곳이기도 하다.

3) 해수욕장 경관의 특성

해수욕장은 공유수면 가운데 모래, 자갈, 몽돌, 패사 등이 퇴적되어 아름다운 해변을 형성하고 그 배후에 해수욕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기반시설과 송림이 갖추어진 곳을 의미한다. 해수욕장 경관은 일반적으로 기능적, 미적, 생태적인 측면에서 경관을 해석하고 특히, 자연환경을 가능한 보전하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내 해양관광의 패턴과 계절적 제한성 등을 감안해 볼 때 계절적 편중이 매우 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서지로만 인식되고 있다.

또한 다른 지형에 비교해서 지형적인 변화가 거의 없으며, 경관이 매우 단조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평방향의 지배가 강해서 연직 방향의 구조물은 주변 환경과 고려해야 된다.

4) 친수공간 경관의 특성

친수공간 경관의 특성은 관광·레저 등 특정한 목적에 대응하는 시설이 아니고 생활기반시설로서 바닷가가 있는 지역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해수욕장 경관이나 기타 유형과는 다른 공간적 개념이다. 친수공간은 특성별로 광장형, 해빈형, 종합 공원형, 유원지형, 경승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수공간은 해안선의 경관이 장소의 매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바다에서의 조망에 대해서도 고려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5) 해안형 도로경관의 특성

해안형 도로 경관은 해안지역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형

Collection @ uos

성되며, 해안도로의 시각적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해안도로는 도로 양측 또는 한쪽 이상이 바다에 접하는 구간의 도로경관을 의미한다. 해안형 도로 경관의 문제점은 횟집 등 상업적 건축물들이 바다를 향한 조망을 차단하고 있어 경관적인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항만경관의 특성

항만경관은 자연경관인 해양경관과 문화경관인 도시경관이 복합된 경관으로서 항만 고유의 시설물과 그 배후부지의 구성요소에 의해 구성되는 통합된 경관으로 해상·기상 등의 자연조건에 대한 정온한 수역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선박의 운항이나 정박, 계류에 지장이 없는 형태로 오락시설이 계획된다. 한편, 육지부는 어업기반·생산, 유통·가공, 어촌관광(횟집, 유어선 낚시)등의 시설이 일반적으로 들어서게 된다. 항만경관은 특수한 자연환경과 시설물로 인하여 육지지역이나 일반 해안경관과는 다른 경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해안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광대한 해역이나, 하늘, 섬, 곶, 물가의 해안선, 수평선 등은 물론이고 파도나 너울, 반사광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한 경관과 선박, 물류용기기, 교량 배후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시설물 등의 인공적인 현상에 의한 인문경관을 들 수 있다.

제 3 절 조망경관

1. 경관의 형식적 유형

경관의 공간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관찰 거리에 따라 동일한 장소가 상이하게 지각되기도 하므로, 경관의 형식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관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

Collection @ uos

류가 가능하며, 이는 주로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 2-5> 경관의 형식적 유형

구분	개념 및 특성
파노라믹 경관	▪ 파노라믹 경관은 시야가 제한받지 않고 멀리까지 트인 경관을 말함 ▪ 파노라믹 경관은 시야가 트인 경관이므로, 주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됨. 따라서 조감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음
지형경관	▪ 독특한 평태와 큰 규모의 지형지물은 관찰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주변 환경의 지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지형지물이 경관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닐 때 이를 지형경관이라고 부름 ▪ 예로는 규모가 큰 독특한 형상의 장엄한 산봉우리나 평원을 배경으로 솟은 산봉우리 등을 들 수 있음
위요경관	▪ 위요경관은 수목 또는 경사면 등 주위 경관 요소들에 의하여 울타리처럼 자연스럽게 둘러싸여 있는 경관을 말함 ▪ 위요경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선을 끌 수 있는 낮고 평탄한 중심공간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중심 공간 주위에서 중심 공간을 둘러싸는 수직적 요소가 있어야 함 ▪ 이러한 경관으로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산중 호수를 들 수 있음
초점경관	▪ 초점경관은 관찰자의 시선이 경관 안의 어느 한 점으로 유도되도록 구성된 경관을 말함 ▪ 경관 요소로는 특이한 형태를 지닌 폭포, 수목, 암석 등 자연적인 지형지물과, 인공적인 경관 조성 시에는 분수 조각, 기념탑 등이 초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초점 경관은 비스타(vista)경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스타경관은 시선이 좌우로 제한되고 중앙의 한 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된 경관을 말함
관개경관	▪ 관개경관은 교목의 수관 아래에 형성되는 경관을 말함 ▪ 즉, 수림의 가지와 잎들이 천정을 이루고 수간이 기둥처럼 보이는 경관은 관개경관에 속함 ▪ 관개경관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곳은 숲 속의 오솔길이나 노폭이 좁아서 나뭇가지와 잎들이 하늘을 뒤덮은 도로임 ▪ 관개경관에서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과 짙은 그늘이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서 신비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위요된 공간에서처럼 안정감과 친근감도 느낄 수 있음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2-5〉 경관의 형식적 유형

구분	개념 및 특성
세부경관	▪ 세부경관은 사방으로의 시야가 제한되고 협소한 공간규모를 지니고 있어서 공간 구성요소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지각될 수 있는 경관을 말함 ▪ 이와 같은 세부경관은 내부 지향적인 구성을 지니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또한 미지의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심, 신비감 등을 느끼게 되므로 낭만적 경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
일시적 경관	▪ 일시적 경관은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경관 유형에 부수적으로 또는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관이며 주의력이 없으면 지나쳐버리기 쉬움 ▪ 즉, 대기변화에 따른 경관 분위기의 변화, 수면에 투영되는 영상, 동물의 일시적 출현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관의 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특별한 주의를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관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계절감과 시간성 그리고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됨

출처 : Litton(1974), Simonds(1961)을 임승빈(1991)에서 재인용

2. 조망경관 형성요인

경관은 우리가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존재한다. 경관이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조망대상 또는 대상군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조망하는 인간과 인간이 조망할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을 형성하는 요인을 <표2-6>과 같이 크게 조망장소, 조망대상, 조망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6〉 조망경관형성의 요인

구분	설명
조망점	▪ 대상을 바라보는 장소, 이러한 조망장소는 조망광장 등과 같은 점적 장소일수도 있지만 도로, 하천 등의 선적 장소, 일정한 영역을 지닌 공원, 주거지 등의 면적대상일 수도 있음 ▪ 조망장소가 선전, 면적 일 경우 조망대상에 대한 시각적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2-6〉 조망경관형성의 요인

구분	설명
조망대상 (경관요소)	▪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요소 혹은 경관자원으로서 산정, 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조망대상이 되는 요소를 주대상, 직접적인 조망대상은 아니지만 주대상의 배경에 위치하여 같이 조망하는 대상을 부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망대상에 발생하는 건축 및 개발행위 등 토지이용변화는 시각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의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
조망경로	▪ 조망 대상이 보이는 조망점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경로를 이룸
조망면	▪ 조망장소와 조망대상의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형, 지물의 특성에 따라 선형 혹은 면적일 수 있음 ▪ 조망면의 변화는 조망대상의 차폐, 단절, 침해, 이질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출처 : 유헌석 外(2002), 건설교통부(2001)를 토대로 연구자 정리

3. 경관자원 조사범위

경관구성요소는 시점에서의 거리에 의해 시각적 변화를 가져온다. 근경, 중경, 원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리에서 조망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리의 기준은 각각 100m내외, 500m내외, 1,000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주변으로의 시야 개방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2-7〉 시점으로부터 거리 구분

구분	거리	경관의 구조(1976)	동경도입해부에 있어서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 (1974)	항만경관 설계조사
근경	0~200m	수목의 잎, 줄기, 가지의 특성이 시각적 의미를 가지는 영역	전장 200m의 배가 60°의 세계에 들어가는 범위	항망경관구성요소 각각의 표정을 잘 알 수 있는 거리
중경	200~500	텍스추어의 단위는 각각의 수목이 되고 다른 종류의 나무, 수목군의 모양이 됨	배, 대안의 건물 등의 집합체를 효과적으로 지각	각각의 요소대상이 군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리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2-7〉 시점으로부터 거리 구분

구분	거리	경관의 구조(1976)	동경도입해부에 있어서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 (1974)	항만경관 설계조사
원경	500~2000	지형, 식생분포의 변화(원근법의 영향, 지형의 아웃라인, 스카이라인 강조)	대안의 돌출체가 스카이라인의 위에 돌출한 것이 지각(1°의 원추에 들어감)	각각의 요소의 표정은 관계없이 요소군으로 인식
초원경	2000m 이상	-	-	배경으로서 인식, 색의 명도차가 중요하게 됨

출처 : 일본건축학회, 건축계획지침 내용을 표로 정리

4. 조망점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조망점은 이용밀도가 높은 지점을 선정하거나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한다. 중심개념(경관자원,이용자)측면의 조망점 구분 외에도 조망위치에 따른 구분(내부,외부), 조망 거리에 따른 구분(근경, 중경, 원경), 조망점 활용방식에 따른 구분(규제형, 형성형, 관리형)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표 2-8〉 유형별 조망점 선정기준

구분		조망점 선정기준
중심개념에 따른 구분	경관자원중심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
	이용자중심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조망위치에 따른 구분	내부 조망점	계획대상지 내부 주요 지점
	외부 조망점	대상지 주변 주요 지점
	원경/중경/근경	원경/중경/근경별 경관변화 예측지점
조망점 활용에 따른 구분	규제형 조망점	양호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 조망점
	형성형 조망점	향후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기준 조망점
	관리형 조망점	불량한 경관 관리를 위해 설정한 기준 조망점

출처 : 한국경관협의회, 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Collection @ uos

제 3 장 분석의 틀

제 1 절 분석의 틀 구축

본 연구는 탐방로 지표 선정과 경관분석을 통해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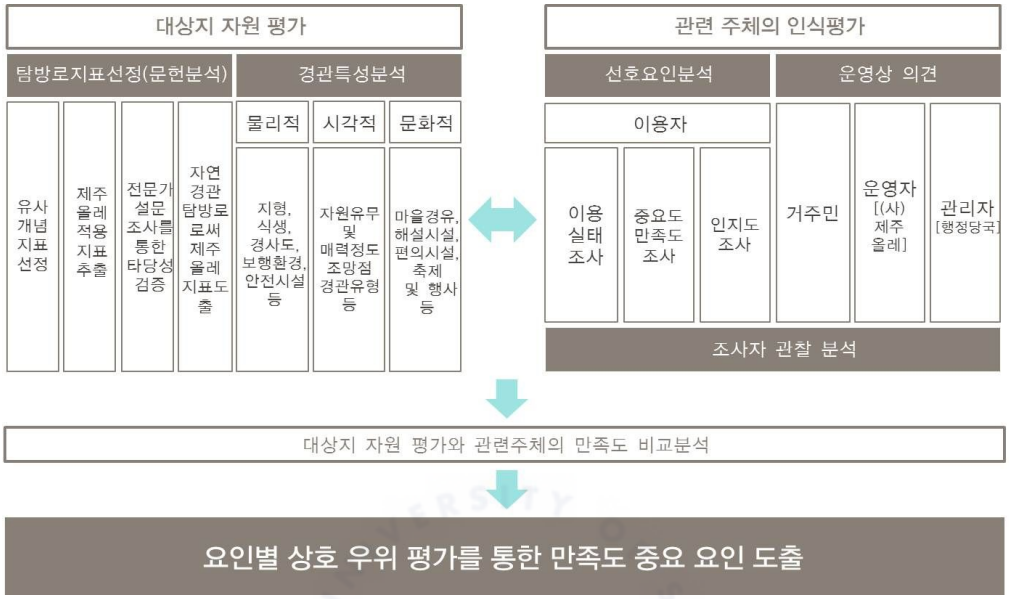
그 첫 단계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탐방로 지표로써 물리적·시각적·문화적 인자를 추출한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 인자는 유사 개념의 평가지표 및 고려사항 등을 통해 세부지표를 도출하고, 본 연구 대상지인 제주올레의 환경을 감안하여 보정한 후 전문가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위 지표를 추출한다.

추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세부항목들을 선정하여 대상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련주체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항목별 만족도를 파악한다. 대상지 현황과 만족도와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중요하고 유효한 요인을 추출해 낸다.

Collection @ uos

<그림 3-1> 분석의 틀



제 2 절 분석 방법

1. 이용자 설문에 의한 분석

이용자의 선호·만족요인을 반영한 중요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7코스와 5코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조사의 통계자료는 SPS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T-TEST, 요인분석, 회귀분석, IPA 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지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 동기 및 목적, 이용행태로 구분하였고,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별 만족도와 중요도, 선호 및 이미지에 대해 묻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끝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

Collection @ uos

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3-1> 이용자 분석항목

항목			분석방법	도출내용
이용 실태 분석	동기·목적	코스 선택 이유	빈도 분석	이용자의 방문 동기 및 목적, 방문 전 정보 출처 현황 파악
		방문 목적		
		정보 출처		
	이용행태	방문 빈도	빈도분석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대해 파악
		이용 교통수단		
		방문까지 소요시간		
		이용 시작점		
		완주 및 휴식 시간		
		이용 시설 종류와 횟수		
		농수산물 구입 여부		
		참여 축제		
		방문 장소 표시		
		적절한 분리지점		
		재방문 혹은 추천의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인지도	이미지 분석	인지도에 나타난 이미지	이미지맵	이용자가 느끼는 이미지를 통해 현황 파악
		떠오르는 이미지	빈도분석	
		선호/비선호 자원	빈도분석	이용자의 선호/비선호 자원 파악
	중요도-만족도 분석	이용 코스별 중요도 및 만족도	빈도분석 독립표본T-검정	코스별 만족요인 분석
		요인별 중요도 및 만족도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IPA분석	중요 요인 도출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성별	빈도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분석
		연령		
		직업		
		소득		
		거주지		

Collection @ uos

2. 운영주체 인터뷰에 의한 분석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지 못하는 중요 요인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주민과 운영자((사)제주올레), 관리자(행정당국)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3-2> 주체별 심층인터뷰 분석항목

주체	항목		도출내용
거주민	전반적 만족 평가	올레 개설에 대한 만족사항	제주올레 개설로 인한 긍정/부정적 사항 파악
		올레 개설에 대한 불만족사항	
	노선에 대한 구체적 의견	경관성	올레 경관에 대한 의견 파악 (ex: 마을 내 더 아름다운 경관 유무)
		수익성	실제 수익창출 규모 및 여부 파악
		일상성	주민들 피해 사항 및 이용 여부 파악
		안전성	위험 요소 및 구간 파악
	개선사항	올레꾼에 대한 요구사항	개선 및 요구 사항 파악
		제주올레에 대한 요구사항	
운영자	전반적인 운영상 의견	제주올레 운영방식	제주올레를 운영하는 방식과 현재 문제점 및 해결 조치 파악
	노선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의견	시종점 선정	시종점 선정의 당위성 파악
		노선의 다양성	노선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 확인
		안전성	안전 대책 방안과 진행사항 확인
		현 제주올레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체험 부족과 식수,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방안 확인
		민관 협력 방식	구체적인 협력 방식 확인
관리자	전반적인 관리상 의견	제주올레 관리방안	관리 방안 파악
		향후 발전 방향	향후 발전 및 관리 방향 파악

Collection @ uos

제 4 장 대상지 연구

제 1 절 대상지 자원 평가

1. 탐방로 지표 선정

1) 유사개념 분석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추려내기 위하여 제주올레와 조성 목적과 효과 측면에서 유사한 개념들의 노선 선정원칙을 포함한 고려사항, 평가지표를 <표4-1>과 같이 요약·정리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기재하였다.

<표 4-1> 유사개념 정리

탐방로체계 혹은 탐방로명	노선 선정원칙	고려사항 및 평가지표
일본 자연보도	▪ 연결성 ▪ 중점정비방식 ▪ 접근성 ▪ 자원선정	▪ 긴키 자연보도 - 지역의 보도와 가도를 활용한 루트 선정 - 전국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균형과 지역특성을 살린 노선형태 구상
		▪ 도카이 자연보도 - 대중교통 및 자동차로의 접근성 - 매력적인 자원이 많은 지역 통과
대만 국가보도		- 대만지역 자연·문화·역사·경관자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함 - 잠재적 환경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며 재해 민감구역의 통과를 금지함 - 자연환경 및 생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막고 정부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급적 기존 보도 활용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1〉 유사개념 정리

탐방로체계 혹은 탐방로명	노선 선정원칙	고려사항 및 평가지표
구미 지역 자연탐방로	▪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할 것 ▪ 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요소 보호 ▪ 필요시설들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영국 Cotssold Way National Trail – 루트주변의 경관적 특성과 질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 미국 North country National Scenic Trail – 전체 탐방로 시스템 내에서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 – 하이킹 및 산책에 적합한 지역
		▪ 미국 Colorado Front Range Trail – 기존에 이용되거나 승인되고, 계획된 탐방로를 기본 골격으로 함 –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등과 가능하면 분리
한국 자연탐방로	▪ 일상성 ▪ 직접성 ▪ 안전성 ▪ 경관성 ▪ 연속성	▪ 생태탐방로 – 탐방로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최소화 –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거주지역 탐방로 관통제한) – 보행시 타 교통과의 마찰 최소화 – 경관이 우수한 지역
	▪ 자연과 인간 공존의 교육 ▪ 생태계 보존 ▪ 수익 창출의 대안 제시	▪ 생태문화로 – 사고·재해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방안 – 최대한 있던 길 활용 – 코스 조성 및 관리, 이동 통로, 탐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편의시설, 사인물로 구분하여 계획
	▪ 생태성 ▪ 문화성 ▪ 편의성	▪ 건강·문화·생태회랑 – 국립공원 포함 여부, 포장 여부, 생태자연도, 법정보호 지역, 습지, 주요 종 발견 지역 –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 공원·녹지 – 접근성,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편의시설, 보행안전, 이용 수요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1〉 유사개념 정리

탐방로체계 혹은 탐방로명	노선 선정원칙	고려사항 및 평가지표
한국 자연탐방로	▪ 높은 이용성 ▪ 해설대상이 풍부하게 분포 ▪ 적당한 이용시간 및 거리 ▪ 재해에 대한 안정성 ▪ 경관 파괴하지 않을 지역	▪ 자연학습탐방로 - 자연경관, 지형, 지질, 동·식물, 산림, 자연현상 등이 풍부히 분포하고 있는 곳 - 토지의 붕괴, 홍수 등 재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마련함 - 탐방로 설치에 의해 경관파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탐방자원활용 ▪ 사유지 우회 ▪ 안전 및 교통 ▪ 다변성 고려 ▪ 선택 및 회피	▪ 해변길 - 최대한 공원 구역 내 노선으로 하되 사유지는 가능한 우회 - 도로를 가능한 피하여 안전하게, 대중교통 연계로 편리성 제고 - 성수기의 조용한 길, 썰물길, 일부 군사길은 스스로 선택 유도
	▪ 안전성 ▪ 경관성 ▪ 보행성 ▪ 자원성 ▪ 지역성 ▪ 이용편리성	▪ 동해안 탐방로 - 순수 보행로 우선 - 동해안 및 경관자원 조망 가능 노선 우선 - 역사성, 스토리를 지닌 이야기가 있는 옛길 우선 - 마을의 중심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고려 - 탐방객의 지역민의 교류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선 우선

출처 : 정휘 외, 2008, 환경부, 2007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Collection @ uos

유사한 용어에 대하여 <표4-2>와 같이 재분류하여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4-2> 유사 지표 정리

유사 지표 통합	
연속성, 다변성 고려, 선택 및 회피	→ 연결성
직접성, 교통	→ 접근성
자원선정, 자원 활용	→ 자원성
높은 이용성	→ 이용성
생태자원 보호	→ 생태성
경관자원 보호, 경관적 특성과 질	→ 경관성
충분한 정보제공, 이용편리성, 편의시설	→ 편의성
재해에 대한 안정성, 이용자의 안전	→ 안전성
해설대상 풍부, 자연과 인간의 공존 교육	→ 교육성
수익창출의 대안, 지역경제 기여	→ 수익성
적당한 이용시간 및 거리, 보차분리, 포장여부	→ 보행성
지역 축제 및 행사, 마을 문화, 문화성	→ 지역성
사유지 우회	→ 일상성

2) 제주올레 적용지표 추출

<표4-1>의 내용 가운데 유사한 내용의 지표를 정리하고, 대상지 환경을 감안하여 보정 한 내용은 <표4-3>과 같다.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인자를 나누고 주요 원칙과 세부 평가지표로 분류한 후, 본 연구의 지표로써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원생 및 석사·박사를 포함하여 관련 업종(도시, 조경, 관광, 경관, 생태) 종사자들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는 앞서 추출된 29개 지표에 대해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지표로써의 적합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드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Collection @ uos

〈표 4-3〉 탐방로 지표

대분류	주요 원칙	평가지표	방법
물리적인자	생태성	생태자원 우수 및 다양성	생태자연도, 임상도 분석
		기존 보도 활용	현장 조사
	보행성	보차 분리 여부	현장 조사
		포장 여부	현장 조사
		거리의 적절성	문헌 조사
		코스의 경사도	GIS분석
	접근성	대중교통, 승용차, 도보 접근성	문헌 및 현장 조사
	안전성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현장 조사
		잠재적 환경 위험성 고려 여부 (재해 민감구역 통과여부 등)	문헌(산사태위험지도) 및 현장(낙석위험구간) 조사
	연결성	해당 지역 일주 가능에 대한 물리적 연결성	문헌 및 현장 조사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성	문헌 조사
		대안적·순환적 루트 여부	문헌 및 현장 조사
시각적인자	경관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문헌 및 현장 조사
		지역특성을 살린 노선형태(가능하면 곡선)	문헌 및 현장 조사
	가시성	주변 경관자원 조망 가능성	문헌 및 현장 조사
		코스의 가시성	현장 조사
	개방성	시각적 개방 정도	현장 조사
	다양성	경관유형의 다양한 정도	문헌 및 현장 조사
	자원성	자원의 가치	문헌 및 현장 조사
문화적인자	교육성	자원해설시설 유무	문헌 및 현장 조사
	수익성	지역경제에 기여(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등)	현장 조사
	일상성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설문 조사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거주지역 관통 여부)	문헌 및 현장 조사
	이용성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 위치	현장 조사
	편의성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의 편의성	문헌 및 현장 조사
		편의 시설(숙박,음식,휴게소)의 유무	현장 조사
	지역성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의 문화체험과 연계	문헌 및 현장 조사

Collection @ uos

3) 타당성 검증

전문가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4-4>와 같다.

<표 4-4>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전문가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3	41.9
	여자	18	58.1
	합계	31	100.0
최종학력	대학교	3	9.7
	대학원(석사)	25	80.6
	대학원(박사)	3	9.7
	합계	31	100.0
전공 분야	조경	9	29.0
	관광	5	16.1
	도시	6	19.4
	경관	7	22.6
	생태	4	12.9
	합계	31	100.0

평가지표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SPSS 19를 이용한 일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척도 3이상의 등급이 다소 적합, 매울 적합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t-검정 결과 3보다 큰 값의 지표들이 임계값으로 고려되어지도록 제시하였다. 결정기준은 95% 신뢰수준에서 일표본 t-검정 결과의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SPSS에서는 양측검정의 결과물만을 제시하므로 각 평가항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보다 우향하는 경우는 p-value/2로, 평균값보다 좌향하는 경우에는 1-(p-value/2)로 보정한 단측 검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평가지표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스의 가시성'과 '이용성'이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올레는 제주도 해안변

Collection @ uos

을 따라 코스가 개설되어 연결되어 있으므로 물리적 연결성의 지표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이 세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표 4-5> 요인의 일표본 t-검정 결과

대분류	소분류	요인	평균 (표준편차)	p-value (p<0.05)
물리적인자	생태성	생태자원 우수	4.61(.495)	.000
		기존 보도 활용	4.00(.683)	.000
	보행성	보차 분리 여부	3.68(.945)	.000
		포장 여부	3.55(.723)	.000
		거리의 적절성 여부	3.90(.870)	.000
		코스의 경사도	3.65(.755)	.000
	접근성	대중교통, 승용차, 도보 접근성	3.97(.983)	.000
	안전성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4.55(.723)	.000
		잠재적 환경 위험성 고려 여부 (재해 민감 구역 통과여부 등)	4.26(.893)	.000
	연결성	해당 지역 일주 가능에 대한 물리적 연결성	3.94(.680)	.000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성	3.77(.884)	.000
		대안적·순환적 루트 여부	3.52(.724)	.000
시각적인자	경관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4.42(.672)	.000
		지역특성을 살린 노선형태(가능하면 곡선)	3.77(.805)	.000
	가시성	주변 경관자원 조망 가능성 여부	4.35(.661)	.000
		코스의 가시성	3.10(.944)	.572
	개방성	시각적 개방 정도	3.68(.979)	.001
	다양성	경관유형의 다양한 정도	4.06(.814)	.000
	자원성	자원의 가치	4.06(1.124)	.000
문화적인자	교육성	자원해설시설 유무	3.45(.768)	.003
	수익성	지역경제에 기여(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등)	3.48(.811)	.002
	일상성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3.61(.844)	.000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거주지역 관통 여부)	4.13(.846)	.000
	이용성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 위치	3.23(.920)	.182
	편의성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의 편의성	3.68(.748)	.000
		편의 시설(숙박,음식,휴게소 등)의 유무	3.77(.956)	.000
	지역성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의 문화체험과 연계	3.61(.715)	.000

Collection @ uos

2. 경관특성분석

1) 대상지 일반적 현황

(1) 7코스

<그림 4-1> 7코스 노선도



① 코스 길이 및 개장연도 : 총13.8km(4~5시간), 2007년 12월 개장

7코스는 2010년 8월 코스의 경로가 다시 한번 수정·완성되었는데, 돔베낭골이 끝나는 지점에서 펜션 단지 길이 막히면서 서귀포여고 쪽으로 길을 우회했으나 제주올레 탐사국이 펜션단지 주차장에서 바다쪽으로 길을 새로 개척하여 속골로 이어지는 자연의 길을 완성하였다.

Collection @ uos

2009년 2월에는 너무 험해 갈 수 없었던 '두머니물~서건도'해안 구간을 일일이 손으로 돌을 고르는 작업 끝에 새로운 바닷길로 만들어, '일강정 바당올레'로 명명하였다. 2009년 3월에는 각종 자연현상에 유실되었던 수봉교 자리에 '풍림올레교'가 세워졌다. 수봉로는 언덕 길이고, 새로 만든 펜션단지 아래 해안길과 일강정 바당올레에서 서건도 사이 바윗길이 험한편이기 때문에 코스 난이도는 상(上)이다.

<그림 4-2> 7코스 경관



자료 : 우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외돌개, 월평포구, 황우지해안, 출처: 네이버 이미지

Collection @ uos

(2) 5코스

〈그림 4-3〉 5코스 노선도



① 코스 길이 및 개장연도 : 총14.7km(4~5시간), 2008년 8월 개장

5코스는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꼽히는 큰엉 경승지 산책길을 지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쇠소깍까지 이어지는 바당올레와 마을올레이다. 남원읍과 해병대 93대대의 도움을 받아 사라지고 묻히고 끊어진 바다 올레길 세 곳을 복원하였고, 덕분에 난대식물이 울창한 숲을 지나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생겼다.

Collection @ uos

<그림 4-4> 큰엉해안경승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

2) 물리적 인자

(1) 생태성

생태성에서 코스별 생태자원의 우수함을 생태자연도[15]와 임상도[16]를 통하여 판단하려고 한다. 생태자연도와 임상도의 특성상 코스가 지나는 생태자연도와 임상도를 살펴본다면 등급과 분포에 따라 그 생태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5) 생태자연도란 산, 하천, 습지, 호소, 농지, 도시, 해양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로써, 환경부에서 전국 자연환경조사사업을 통해 조사된 각종 자연환경정보를 수치지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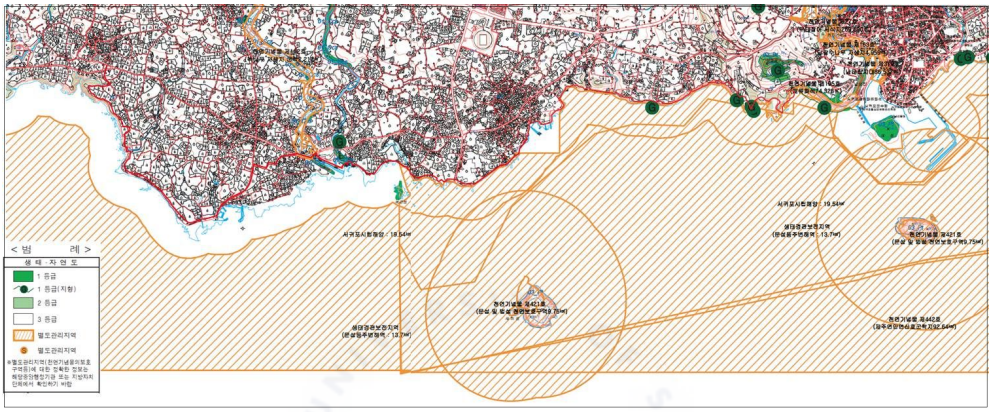
16) 임상도(林相圖, stock map)란 항공사진을 판독한 임상·주요수종·경급·영급·소밀도 등 임황 자료를 임지에 대한 소관별,임종별로 지형도(1/25,000)에 도화 작성한 도면을 임상도라 하며 산림관련 도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면을 말한다. 임분의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한 수종을 조사하여, 해당 임분의 수종의 분포상황을 나타낸다.

Collection @ uos

① 생태자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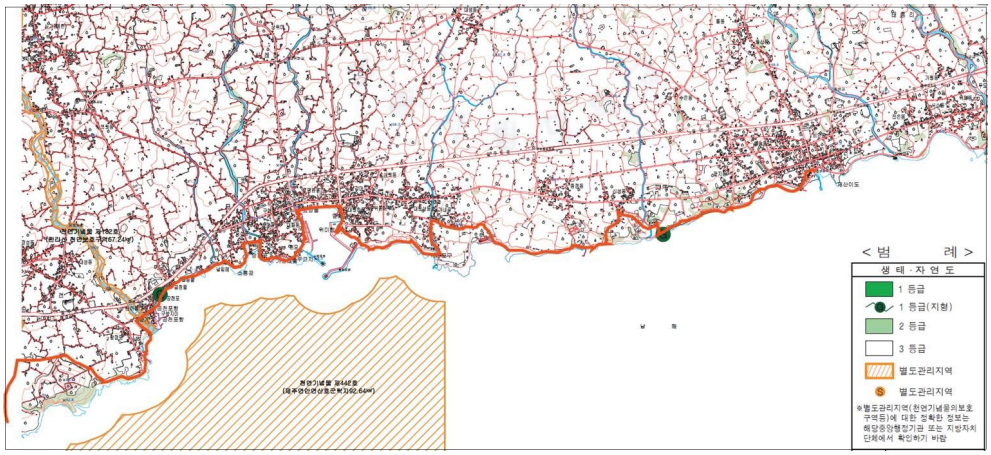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생태자연도 현황은 <그림 4-5>와 <그림 4-6>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4-5> 7코스 생태자연도



출처: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그림 4-6> 5코스 생태자연도



출처: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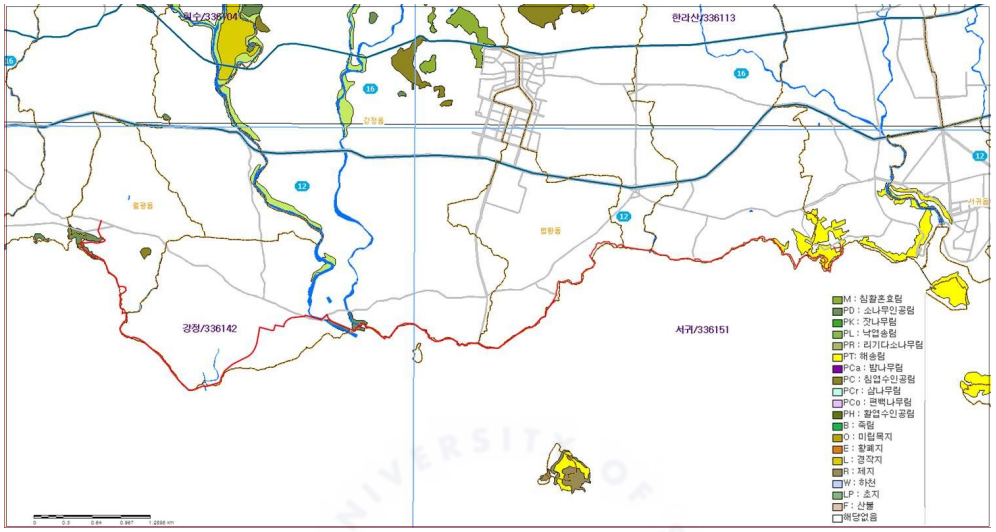
② 임상도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임상도는 <그림 4-7>과 <그림 4-8>을 통해

Collection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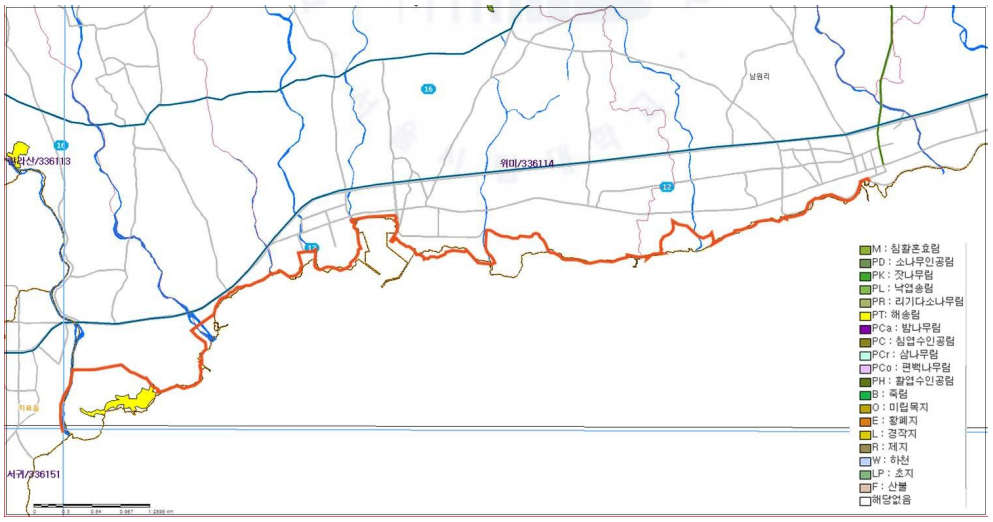
알 수 있다.

<그림 4-7> 7코스 임상도



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4-8> 5코스 임상도



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생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코스의 생태자연도와 임상도를 측정하였다. 생태자연도 각 등급 내에서 각 코스가 지나가는 거리(m)를 측정한 후

Collection @ uos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하여 곱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7코스의 생태자연도 점수가 249, 임상도 점수가 2550로 5코스의 생태자연도 점수45, 임상도 점수 247에 비해서 생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4-7>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6> 생태환경 정량 지표 계산법

지표	분석 방법	
생태 자연도	1등급	( )m X 5
	2등급	( )m X 3
	3등급	( )m X 1
임상도	분포 개수	( )m X 1

출처 : 국토연구원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을 토대로 재구성

<표 4-7> 분석결과

코스	항목	
	생태자연도	임상도
5	45	247
7	249	2550

(2) 안전성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코스별 위험구역과 안전시설[17] 현황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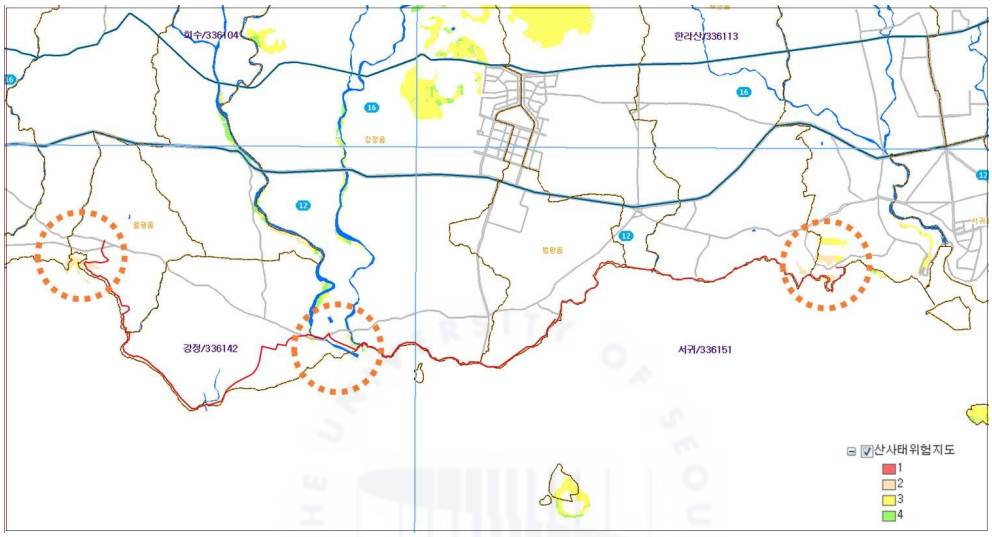
코스별 산사태위험구역을 조사해본 결과 7코스 근처에서 3등급의 위험도가 2군데, 4등급의 위험도가 1군데 발견되었으며, 5코스는 발견되지 않

17) 안전시설은 탐방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로서 탐방객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안전시설에는 위험표지판, 차단울타리, 경계시설 등이 있으며, 설치 지역은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한 지역 등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나 높이가 높아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한다.

Collection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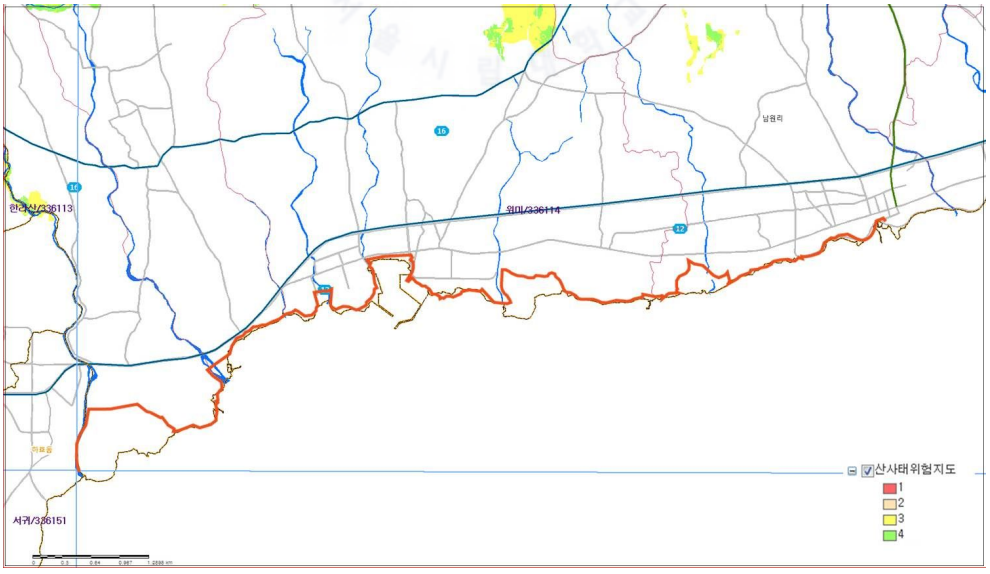
았다. 낙석가능구역은 7코스에 1군데가 발견되었고, 5코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잠재적 위험성 측면에서 7코스가 5코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7코스 산사태위험지도



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그림 4-10> 5코스 산사태위험지도



출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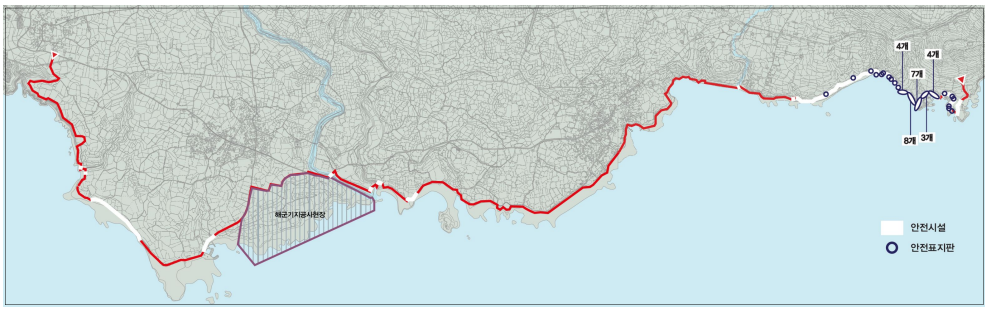
Collection @ uos

<그림 4-11> 7코스 낙석가능구간



안전표시판 조사 결과 7코스에서는 약 26개가 분포하고 있었고, 5코스에서는 약 10개의 표지판이 있었다. 개수로만 보면 7코스가 5코스에 비해 안전위험에 대한 더 민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낙석가능지역이나 산사태위험지역에는 대한 안전표지판은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작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12>를 보면 분포에서 있어서 일부 구역에만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의를 요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관리당국별로 상이한 표지판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난잡한 느낌을 주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12> 7코스 안전시설(울타리/경계석) 현황



Collection @ uos

<그림 4-13> 5코스 안전시설(울타리/경계석) 현황



<그림 4-14> 안전표지판



(3) 보행성

보행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거리와 경사도를 비롯하여 바닥포장여부와 도로분리여부를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존보도활용 여부도 살펴보아 환경훼손 여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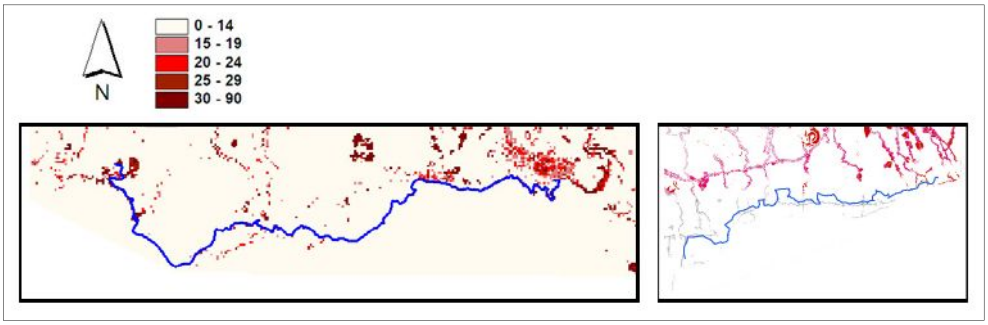
거리는 7코스가 13.8km이고 5코스가 14.7.km로 5코스가 7코스에 비해 약 1km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사도의 경우 구간에 따라 경사 정도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7코스와 5코스 모두 코스 전체가 14°미만의 경사도를 갖고 있으며, 완만하지만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지형임을 알 수 있었다. 7코스와 5코스의 평균경사도[18]는 각각 1.52%와 0.68%로 나타났다.

18) 경사도는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 가능하나 모든 구간에 따라 각각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저 고도 및 최고 고도와의 거리,

Collection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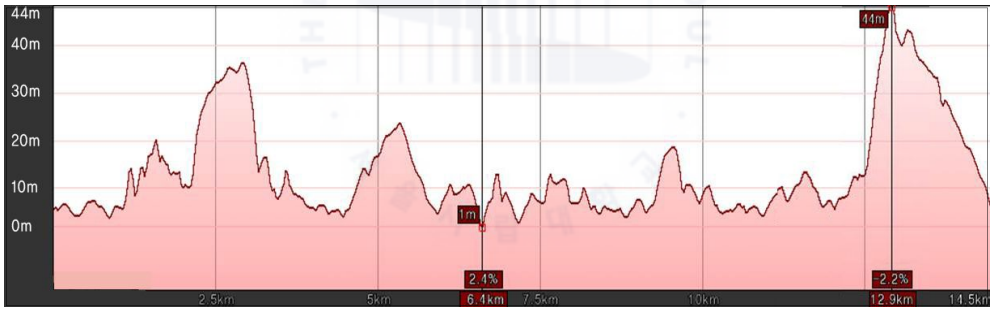
<그림 4-15> 경사도(좌:7코스, 우:5코스)



<그림 4-16> 7코스 지형단면도



<그림 4-17> 5코스 지형단면도



보도 조사 결과 7코스의 경우 기존 보도의 활용이 약 70%, 새로 만든 길이 약 30%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행 전용 구간이 약 65%, 보차 혼용 구간이 약 35%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소재 바닥상태(돌길, 자갈길, 흙길) 구간이 약 30%, 도보포장 구간이 약 35%, 도로포장 구간이 약 3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의 경우 기존 보도 활용이 약 95%, 새로 만든 길 약 5%로 구성되

최고고도의 높이를 이용하여 평균 경사도를 산출하였다.

Collection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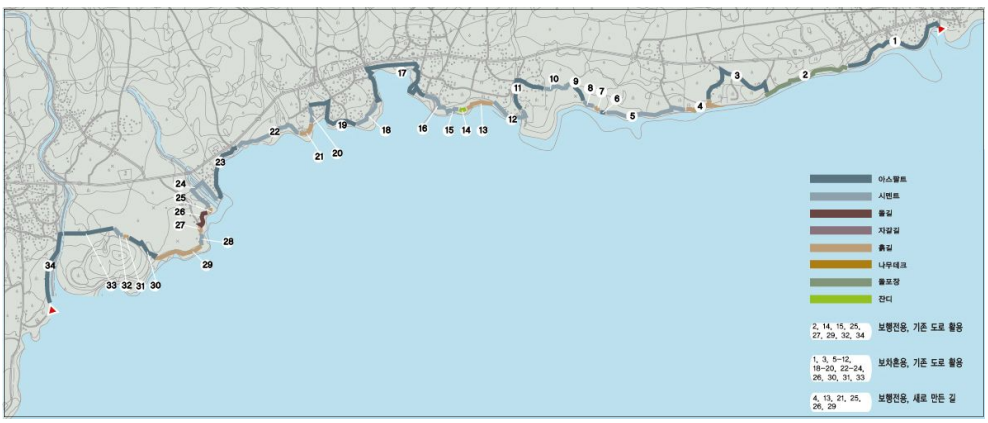
어 있었고, 그 중 보행전용구간이 약15%, 보차 혼용 구간이 약 85%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자연소재 바닥 상태(돌길, 자갈길, 흙길) 구간이 약 10%였으며, 도보포장 구간이 약 5%, 도로포장 구간이 약 85%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만든 구간은 보행전용구간으로 제주올레의 철학을 담아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연적인 바닥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새로 만든 길이 많은 7코스가 보행 전용구간도 많고, 자연소재 바닥상태가 많았다. 또한 기존보도를 최대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5코스가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 보차 혼용 구간과 도로포장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7코스에 비해 자연성 측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8> 7코스 보도 현황



<그림 4-19> 5코스 보도 현황



Collection @ uos

(4) 접근성

각 코스의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및 자동차의 시·종점까지의 거리와 버스정류장, 운행 노선을 조사하였다. 거리는 자동차 경우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삼았고, 주차장이 있을 시, 주차장에서부터 시·종점까지의 거리를 조사하였다. 대중교통의 경우 주변 정류장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접근성 측정 결과 7코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시점에서 2개, 종점에서 1개의 정류장과 인접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점의 2번째 정류장의 경우, 시점과의 거리가 685m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9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예상된다. 또한 정류장1은 거리상 시점과 가깝지만, 버스 노선이 1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종점은 정류장 한 개가 종점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2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었다. 7코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시·종점 모두 전반적으로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운행노선이 많지 않아 사전에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불편이 예상되었다.

자동차 접근성의 경우 시점인 외돌개 인근에 주차장이 2개가 있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 반면, 종점에는 주차장도 없고 간선도로와의 거리도 상당히 멀었다. 이는 종점에서 출발하는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5코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시점에서 4개의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3개가 4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3개, 3개, 1개의 버스노선이 운행중이라 다양한 시간대와 지역을 아우를 수 있어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선도로와의 거리도 멀지 않은 편이라, 시점의 대중교통과 자동차의 접근성은 좋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5코스의 종점에서는 2개의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각각 1400m, 1550m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각각 5개와 4개로 많았지만, 장시간 걸어서 지쳐있을 이용객들을 감안할 때, 거리상 적지 않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선도로와의 거리 역시 1400m였지만,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있어 자동차 접근성은 양호한 편으로 판단된다.

<표 4-8> 접근성 측정 결과

구분		대중교통 접근성			자동차 접근성
코스	지점	정류장	정류장 거리(도보)	버스노선(개)	간선도로/주차장 거리
7코스	시점	1	80m(1분)	1	주차장 1 : 60m
		2	685m(10분)	9	주차장 2 : 160m 간선도로 : 685m
	종점	1	5m(0분)	2	간선도로 : 1.39km
5코스	시점	1	270m(4분)	3	간선도로 : 655m
		2	165m(2분)	3	
		3	280m(4분)	1	간선도로 : 1400m
	종점	4	545m(8분)	4	
		1	1400m(20분)	5	주차장 : 40m
		2	1550m(21분)	4	

<그림 4-20> 7코스 접근성



Collection @ uos

<그림 4-21> 5코스 접근성



(5) 연결성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 여부와 대안적·순환적 루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에 있어서 7코스는 시점에서 6코스의 종점과 7-1코스의 시점과 연결되어 있었고, 종점에서는 8코스의 시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5코스는 시점에서 4코스의 종점과, 종점에서 6코스의 시점과 만나고 있었다.

대안적·순환적 루트에 있어서 7코스는 단체이용자나 일반화 착용자, 영유아 동반자 및 노약자를 위해 돔베낭골 화장실 방향으로 서귀포여자고등학교와 서귀포시위생환경사업소를 지나는 우회로가 있고, 악근천에서 비가 올 때 악근천을 건너지 않고 악근교 방향으로 나있는 농로길을 이용하는 우회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는 만조시나 너울이 심할 때 망장포 쪽에서 일주동로 방향으로 돌아가는 우회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코스 모두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우회로가 각각 1개씩이고, 이용자에 따른 우회로가 7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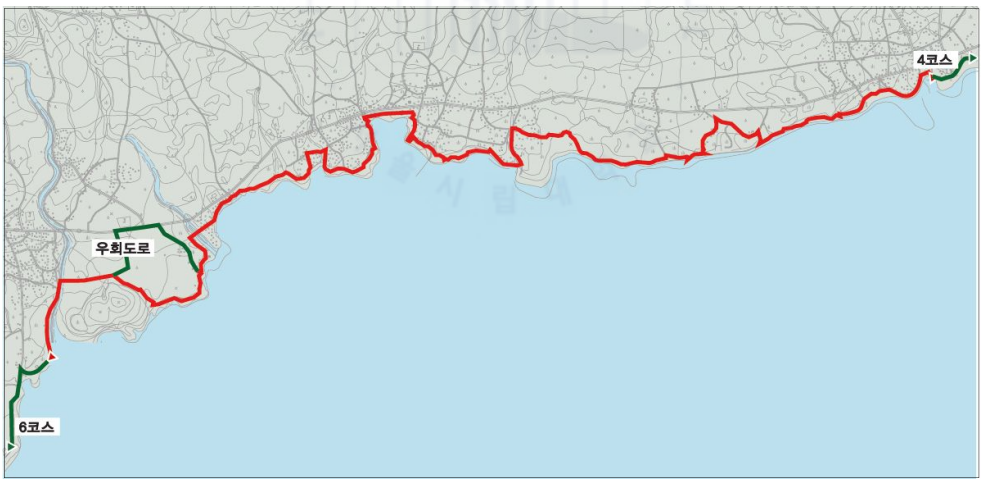
Collection @ uos

스에서 1개로 나타났는데, 코스 내에 우회로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비슷한 구역이 더 있으므로, 분석을 종합해서 추가로 우회로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우회로 이용시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추후 조사가 필요하겠다.

<그림 4-22> 7코스 우회도로 및 연결탐방로 현황



<그림 4-23> 5코스 우회도로 및 연결탐방로 현황



(6) 물리적 인자 종합 비교

7코스와 5코스의 물리적 인자를 분석해본 결과 7코스가 5코스에 비해 더 다양하고 질이 높은 생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

Collection @ uos

측면에서는 7코스가 5코스보다 위험한 구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위치와 수의 안전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행성에서는 거리상 약1km 정도 7코스가 짧았고, 두 코스 모두 평균 1% 안팎의 낮은 경사도를 가지고 있었다. 기존 보도의 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5코스에 비해 7코스는 새로 낸 길의 비율이 약 25%정도 더 높았고, 자연상태의 바닥 구간도 약 20% 정도 더 높았다. 보행 전용 구간도 약 50% 높다는차이점이 있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5코스의 종점을 제외하고, 편리한 편이며, 자동차 접근성은 7코스의 종점을 제외하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성은 좋으나, 우회로 이용의 어려움 등 차후 설문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3) 시각적 인자

(1) 자원성

지역의 대표성을 띈 자원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경관자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7코스의 경관자원 현황은 <그림 4-24>와 같으며 <표 4-9>에 주요 경관자원을 정리하였다.

Collection @ uos

<그림 4-24> 7코스 경관자원 현황



Collection @ uos

〈표 4-9〉 7코스 주요 경관자원 조사표

구분		근경 (200m이내)	중경 (200~500m)	원경 (500~2000m)	초원경 (2000m이상)
자연경관자원	삼림자원		삼매봉		고근산, 금산, 구산봉
	수경관	선녀탕, 속골, 일강정바당올레, 악근천, 강정천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소정방폭포, 엉또폭포
	식생경관	소철나무동산, 돔배낭골			
	지형경관	황우지해안12굴, 외돌개, 망밭	서건도	하논, 새섬	범섬, 문섬
농어촌경관자원	농·어업생산요소	법환포구, 강정포구, 월평포구		서귀항	대포포구
	농·어업취락요소	강정마을, 법환어촌			
도시경관자원	공원/녹지	수모루공원		걸매생태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상록수수목원
	주거지경관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지구
	상업/공공업무시설	제주풍림리조트			서귀포시청제1·2,청사
도시기반시설	도로/철도	남성로, 속골로	이어도로, 월드컵로, 말질로, 월평하원로		일주동서로, 중산간서로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원	연동연대, 용문사, 법환본향당	혜광사	서귀포층의폐류화석, 약천사	
	문화자원	홍반장촬영지, 대장금촬영지, 강정천낚시터, 무인등대		세계조가비박물관, 서귀포시립미술관, 제주월드컵경기장	

Collection @ uos

7코스는 자연경관자원이 24개, 농어촌경관자원이 7개, 도시경관자원이 9개, 도시기반시설이 8개, 역사문화자원이 12개로 주로 자연경관자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경관자원을 단순히 그 개수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자원을 등급화 해 줄 필요가 있다.

제주올레는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하는 복합적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관자원을 등급화 하는 데에도 이런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이창연(2008)은 도시대표경관자원과 관련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언급된 요인 간의 관련성을 비교 검토하였는데, 자연경관형의 경우 가시성, 대중성, 규모성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졌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촌 어메니티자원 100선(2008)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기준으로 심미성, 고유성, 전통성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사된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가시성, 대중성, 규모성, 심미성, 고유성, 전통성을 기준으로 등급화 하였고, 자세한 기준은 <표 4-10>에 정리하였다.

<표 4-10> 등급별 선정 기준

선정기준	가시성	온전히 보임(A), 가려졌으나 보임(B), 보이지 않음(C)
	대중성	자주 가거나 가봤음(A), 가보진 않았지만 알고 있음(B), 들어본 적 없음(C)
	규모성	인간적 척도를 기준, 약 24m 내외(A), 약 240m 내외(B), 1,200m 내외(C)
	심미성	설문 빈도에 따라. 아름답다(A), 보통이다(B), 아름답지 않다(C)
	고유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음(A),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으나 흔하지 않음(B), 흔하게 볼 수 있음(C)
	전통성	문화재 등급 및 전통 계승 여부에 따라, 중요문화재(A), 문화재(B), 지정되지 않음(C)
평가점수		A=5, B=3, C=1

Collection @ uos

<표 4-11> 7코스 주요 경관자원 등급화

구분	거리	경관자원	경관자원 선정기준						종합	등급
			가시성	대중성	규모성	심미성	고유성	전통성		
자연경관자원	초원경 (+0)	범섬	A	A	A	A	A	A	30	I
		문섬	A	A	A	A	A	A	30	I
	원경 (+1)	새섬	A	A	A	B	C	C	23	II
	중경 (+3)	삼매봉	B	A	B	B	C	C	19	III
		서건도	A	A	C	B	B	B	27	I
	근경 (+5)	선녀탕	A	A	C	C	C	C	23	II
		속골	A	B	C	B	B	B	21	II
		일강정바당올레	A	A	A	A	C	C	27	I
		악근천	A	B	B	A	C	C	25	II
		강정천	A	B	C	C	C	C	25	II
		소철나무동산	A	B	C	C	C	C	25	II
		돔배낭골	A	A	B	B	C	C	31	I
		외돌개	A	B	B	B	A	A	31	I
		폭풍의언덕	A	A	A	A	C	C	19	III
		망밭	C	C	C	B	B	B	17	III
인문경관자원	근경 (+5)	법환포구	A	A	C	C	C	C	19	III
		강정포구	A	B	C	B	C	C	19	III
		월평포구	A	C	C	C	C	C	23	II
		강정마을	A	C	C	A	C	C	23	II
		화훼단지	A	B	B	B	C	C	23	II
		법환어촌	A	A	C	A	C	C	23	II
		수모루공원	A	B	A	A	C	C	21	II
		제주풍림리조트	A	A	C	A	C	C	23	II
역사문화자원	근경 (+5)	연동연대	C	A	A	A	A	A	19	III
		대장금 촬영지	A	B	A	C	B	C	21	II

5코스의 경관자원 현황은 <그림 4-25>와 같으며 <표 4-12>에 주요 경관자원을 정리하였다.

Collection @ uos

<그림 4-25> 5코스 경관자원 현황



Collection @ uos

〈표 4-12〉 5코스 주요 경관자원 조사표

구분		근경 (200m이내)	중경 (200~500m)	원경 (500~2000m)	초원경 (2000m이상)
자연경관자원	삼림자원	예촌망			망오름, 칡오름, 서걸세, 제지기오름, 설오름
	수경관	신례천, 효돈천, 신그물		서중천	신흥천, 의귀천, 보목천
	식생경관	신남골, 동백나무 자생지, 비취동산	마영이동산	거미동산	
	지형경관	큰엉, 우렁굴, 조배머들코지, 신우지코지, 넙빌레, 쇠소깍			선덕굴, 섶섬, 지귀도
농어촌경관자원	농·어업생산요소	남원포구, 세천포구, 앞개포구, 위미항, 공천포구, 망장포구	하효항	제주개발양식장	덕돌포구, 태흥리포구, 보목포구, 구두미포구
	농·어업 취락요소	위미마을		보목마을	출못
도시경관자원	공원/녹지	세천동체육공원, 해양소공원		서귀포축구공원	신흥2리체육공원
	주거지경관		남원읍		
	공업경관	제주감귤공장			
	상업/공공업무시설	제주연수원, 제주해역수산, 생물종센터	남원읍사무소		
도시기반시설	도로/철도	국도 1132	국도1118		국도 1136

(표계속)

Collection @ uos

〈표 4-12〉 5코스 주요 경관자원 조사표

구분		근경 (200m이내)	중경 (200~500m)	원경 (500~2000m)	초원경 (2000m이상)
역사문화자원	역사자원	선광사, 서광사, 보타사, 용문사	종남사, 백련사	보현사, 돈지할망당	용화사, 법련사, 하잣성, 원광사
	문화자원	제주신영영화박물관, 금호제주리조트, 건축학개론집, 증간문화연구소, 공천포쉼터	남제주군종합운동장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서귀포감귤박물관

5코스는 자연경관자원이 27개, 농어촌경관자원이 15개, 도시경관자원이 10개, 도시기반시설이 3개, 역사문화자원이 2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의 경관자원도 7코스의 경관자원을 등급화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된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가시성, 대중성, 규모성, 심미성, 고유성, 전통성을 기준으로 등급화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표 4-13>에 정리하였다.

〈표 4-13〉 5코스 주요 경관자원 등급화

구분	거리	경관자원	경관자원 선정기준						종합	등급
			가시성	대중성	규모성	심미성	고유성	전통성		
자연경관자원	초원경 (+0)	지귀도	A	A	A	A	B	C	24	II
	근경 (+5)	예촌망	A	A	B	B	C	C	23	II
		신례천	A	A	A	C	C	C	23	II
		효돈천	A	A	A	A	A	C	31	I
		동백나무자생지	A	A	B	A	B	C	27	I
		큰엉	A	A	A	A	B	C	29	I
		우렁굴	A	B	C	B	B	C	21	II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13〉 5코스 주요 경관자원 등급화

구분	거리	경관자원	경관자원 선정기준						종합	등급
			가시성	대중성	규모성	심미성	고유성	전통성		
자연경관자원	근경 (+5)	조배머들코지	A	A	C	A	A	C	27	I
		넙빌레	A	A	C	B	B	C	23	II
		쇠소깍	A	A	B	A	A	C	29	I
인문경관자원	중경 (+3)	남원읍	B	A	A	C	C	C	19	III
	근경 (+5)	남원포구	A	A	B	C	C	C	21	II
		앞개포구	A	B	C	C	C	C	17	III
		위미항	A	A	A	C	C	C	23	II
		공천포구	A	A	C	B	C	C	21	II
		망장포구	A	C	C	B	C	C	17	III
		위미마을	A	A	A	C	C	C	23	II
		해양소공원	A	C	B	C	C	C	17	III
		제주연수원	A	C	B	C	C	C	17	III
역사문화자원	근경 (+5)	선광사	A	B	C	B	C	B	21	II
		제주신영영화박물관	B	B	B	C	C	C	17	III
		금호제주리조트	B	B	B	B	C	C	21	II
		건축학개론제주도집	A	B	C	C	A	C	21	II
		공천포쉼터	A	A	C	C	C	C	19	III

그 결과 7코스는 범섬, 문섬, 서건도, 일강정바당올레, 돔배낭골, 외돌개가 주요 경관자원으로 선정되었고, 5코스는 효돈천, 동백나무자생지, 큰엉, 조배머들코지, 쇠소깍이 주요 경관자원으로 선정되었다.

두 코스 모두 타 경관자원에 비해 자연경관자원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주요 역사문화자원에서는 5코스가 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Collection @ uos

(2) 가시성

경관자원에 대한 가시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스별 조망점 및 조망경로를 찾아보았다.

조망점은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으며 이용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조망점을 선정하였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대표경관자원의 가시정도와 실제 이용밀도를 중심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조망경로는 같은 조망대상을 가진 조망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경관을 이루고 있을 시 조망대상의 등급과 이용밀도를 고려하여 최종 조망경로를 선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4-26>과 <그림 4-27>, <표 4-14>와 <표 4-15>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4-26> 7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Collection @ uos

<표 4-14> 7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선정

구분			조망내용	주요 조망점 선정 이유
근경	조망점	2	외돌개를 바라보는 경관	외돌개 및 선녀탕 등을 온전히 조망할 수 있음
		4	악근천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	악근천 조망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객의 체류시간이 긴 공간
	조망경로	A	외돌개가 보이는 경관	대표경관자원인 외돌개를 연속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이용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C	돔베낭길이 보이는 경관	대표경관자원인 돔베낭길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중경	조망점	5	월평포구에서 보는 경관	전 종점으로 인지도가 높고 아름다운 포구경관이 잘 조망됨
	조망경로	E	서건도가 보이는 경관	대표경관자원인 서건도가 온전히 보이고, 멀리 범섬도 조망됨
원경	조망점	1	새섬,문섬,범섬이 보이는 경관	바다를 향해 탁 트인 공간으로 멀리 새섬,문섬,범섬이 온전히 조망됨
		3	법환포구에서 보는 경관	법환포구의 경관과 멀리 문섬, 섶섬, 범섬, 새섬이 모두 조망되는 지점임
	조망경로	B	돔베낭길에서 보이는 경관	범섬이 온전히 지속적으로 보이는 구간임
		D	범섬이 보이는 경관	주위의 암벽을 뒤로 바다와 범섬을 근접한 거리에서 온전히 볼 수 있는 구간임

분석 결과, 7코스는 근경·중경·원경의 거리에서 고르게 조망점과 조망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포에 있어서 가시성이 높은 경관자원이 코스의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후반부로 갈수록 볼거리가 줄어들 가능성일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용자의 체력도 소진되는 것을 감안한,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요소 도입 및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Collection @ uos

〈그림 4-27〉 5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표 4-15〉 5코스 조망점 및 조망경로 선정

구분			조망내용	주요 조망점 선정 이유
근경	조망점	1	남원포구를 보는 경관	5코스의 시점으로 이용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3	조배머들코지를 보는 경관	대표경관자원인 조배머들코지를 근접에서 온전히 조망할 수 있음
	조망경로	A	큰엉, 우렁굴을 보는 경관	큰엉과 우렁굴을 비롯한 지형경관을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경관
		B	동백나무군락지를 보는 경관	동백나무군락지를 따라 이어진 길을 걷는 구간으로 연속적으로 조망 가능함
		C	쇠소깍을 보는 경관	효돈천에서 쇠소깍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조망가능하며, 관광지인 만큼 이용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중경	조망점	5	공천포해변을 보는 경관	공천포마을과 해변을 조망할 수 있음
		6	위미항과 망장포를 보는 경관	위미항과 망장포를 조망할 수 있음
원경	조망점	2	바다와 위미항을 보는 경관	탁 트인 공간으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멀리 위미항과 섶섬이 조망 가능함
		4	건축학개론 제주도집에서 보는 경관	방해물 없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음

Collection @ uos

5코스는 7코스에 비해서 가시성이 높은 경관자원이 근경거리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경·원경 거리에서는 조망점만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는 중경·원경 거리에서의 주요경관자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분포에 있어서는 조망점과 조망경로가 코스에 적절하게 분포되어 근경지역에서의 볼거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판단된다.

(3) 경관성

① 주변 경관과의 조화

자연경관에 있어서 조화성 평가 기준은 <표 4-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개발계획과 기존 경관의 형태, 색채, 규모, 높이 등의 측면에서의 조화성을 고려해야 하고, 토지이용, 식생,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19].

<표 4-16> 조화성 평가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비고
	유형	세부사항	
형태	2차원적 형태, 3차원적 형태	기하학적 형태, 복잡성, 방향성(수평/수직)	조망위치, 조명 등
색채	색상, 명도, 채도		거리, 기상조건, 조명위치, 관찰시간대, 계절 등
규모 및 높이	절대적 규모, 상대적 규모		거리, 위요감, 조망위치, 기상조건 등

하지만 제주올레의 경우 개발 대상지가 선의 형태로써 높이와 같은 물리적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보도의 활용이 각각 70%, 95%에 달하고 있어 제주올레와 기존경관과의 형태, 색채, 규모, 높이 등의 측면에서 조화성을 판단하는데 다소 무리가

19) 환경부, 2005, 자연 경관심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p

Collection @ uos

있다고 판단, 이에 이용자의 만족도-중요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② 노선 형태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노선의 형태보다, 보행시 시각적으로 보이는 노선의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다. 이는 코스의 가시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선이 장애물로 인해 가려져 있거나, 형태적으로 지나치게 구불구불함으로 인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노선의 형태를 지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7코스는 주로 직선형태보다는 곡선의 형태로 노선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시야가 트여 있어 근시적으로는 직선에 가까워도, 곧 지형에 따라 곡선으로 노선이 바뀌는 모습이 드러나 시각적으로 곡선의 형태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코스는 곡선에 비해 직선형태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의 큰엉 산책로의 경우 나무와 수풀들로 인해 노선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구불구불한 곡선 형태임에도 전체적인 노선의 형태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전체적으로 해안주변 한차례 정비된 기존 도로를 95%로 사용하고 있기에 직선의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28> 7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곡선형태 직선형태 직선형태 직선형태

Collection @ uos

〈그림 4-28〉 7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곡선형태



곡선형태



직선형태



직선형태



곡선형태



곡선형태



곡선형태



곡선형태

Collection @ uos

<그림 4-29> 5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직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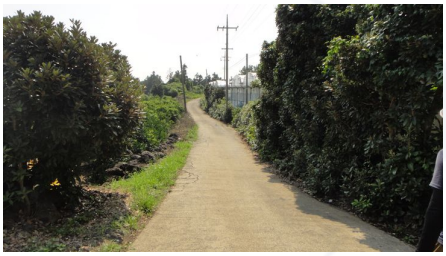
곡선형태



곡선형태



직선형태



직선형태



직선형태



곡선형태



곡선형태



곡선형태



직선형태

Collection @ uos

<그림 4-29> 5코스의 시각적 노선형태


직선형태


직선형태

(4) 개방성

경관은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분석 시에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일부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배제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각 차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물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제작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안 및 자연경관이 주 대상이기에 건물 뿐 아니라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요소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이에 하늘, 바다, 산, 건물, 노선의 형태로 경관의 구성요소를 고정시켜 구분하였다.

조사지점에서 보이는 각 요소들의 시각적인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 사진의 면적을 100으로 할 때 하늘과 바다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개방성을 나타내었다.

조망점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7코스는 각각 62.7%, 77.3%, 52.4%, 63.1%, 26.2%로 평균 56.3%의 개방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5코스는 각각 39.1%, 62.1%, 8.3%, 58.3%, 54.3%, 87.5%로 평균 51.6%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Collection @ uos

<그림 4-30> 7코스 경관의 개방성



개방성 : 62.7%



개방성 : 77.3%



개방성 : 52.4%



개방성 : 63.1%



개방성 : 26.2%

<그림 4-31> 5코스 경관의 개방성



개방성 : 39.1%



개방성 : 62.1%

(그림 계속)

Collection @ uos

<그림 4-31> 5코스 경관의 개방성



개방성 : 8.3%



개방성 : 58.3%



개방성 : 54.3%



개방성 : 87.5%

(5) 다양성

경관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스별 경관유형을 파악하였다. 조망점과 조망경로를 포함하여 경관 유형이 크게 바뀌는 지점을 중심으로 경관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7코스에서 파노라믹 경관은 7개, 초점경관은 3개, 위요경관과 관개경관은 각각 2개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에서는 파노라믹 경관이 6개, 초점경관이 3개, 관개경관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코스 모두 주로 바다를 조망하는 파노라믹 경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징적인 지형지물을 바라보거나, 길의 형태에서 비롯된 초점경관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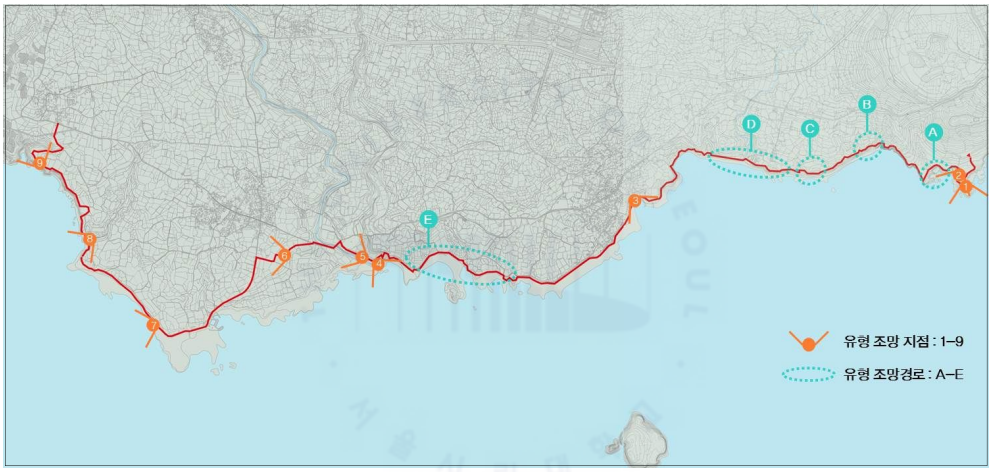
7코스의 경관 유형은 대략적으로 파노라믹-초점-초점-파노라믹-파노라믹-파노라믹-파노라믹-파노라믹-위요-관개-초점-파노라믹-위요-관개경관 순서로 이어져 중반부까지 단조로웠다가 후반부로가면서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조망점과 조망경로의

Collection @ uos

분포에 있어 불리했던 7코스 후반부를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5코스의 경관유형은 파노라믹-파노라믹-관개-초점-파노라믹-초점-파노라믹-파노라믹-파노라믹-관개-초점경관 순서로 이어져있고, 분포도 적절하여 이용자가 흥미롭게 경관을 바라볼수 있을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경관유형의 수로 미루어볼 때는 위요경관을 가진 7코스가 5코스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경관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림 4-32> 7코스 경관유형 현황



<그림 4-33> 7코스 경관유형의 다양성

① 파노라믹 경관





· 지점 : 1, 3, 7 · 경로 : B, C, D, E

Collection @ uos

<그림 4-33> 7코스 경관유형의 다양성

② 초점경관



· 지점 : 2, 6 · 경로 : A

③ 위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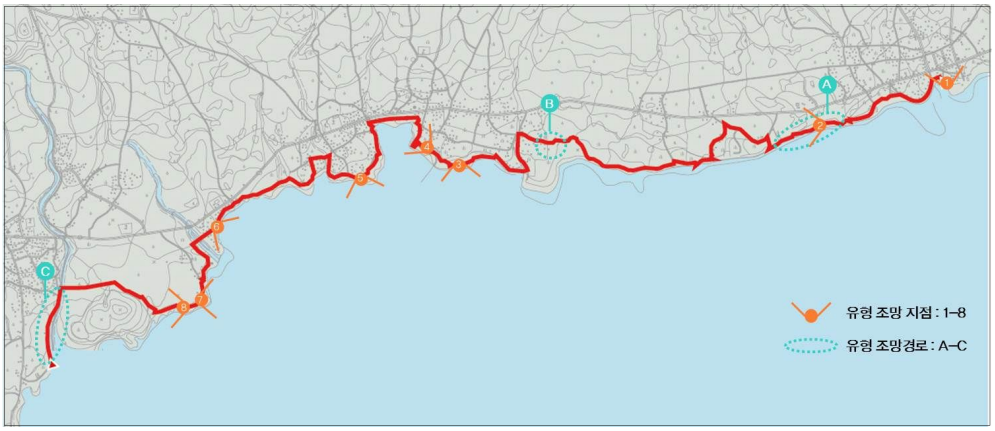
· 지점 : 4, 8

④ 관개경관



· 지점 : 5, 9

<그림 4-34> 5코스 경관유형 현황



Collection @ uos

<그림 4-35> 5코스 경관유형의 다양성

① 파노라믹 경관



· 지점: 1, 3, 5, 6, 7 · 경로 : A

② 초점경관



· 지점 : 4 · 경로 : B, C

③ 관개경관



· 지점 : 2,8

(6) 시각적 인자 종합 비교

7코스와 5코스의 시각적 인자를 종합해 본 결과, 두 코스 모두 자연경관 자원이 수적·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가 7코스에 비해 더 많은 수의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등급화 결과 7코스가 5코스 보다 더 다양한 거리(원경,중경,근경)에서 높은 등급의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체감되는 자원성은 7코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코스는 거리에 따라 2개씩의 조망점과 조망경로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거리에 대한

Collection @ uos

가시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5코스는 조망경로가 근경에 집중되어, 가까운 거리의 가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노선의 형태는 5코스보다 7코스에서 곡선형태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경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평균적으로 7코스에서 조금 더 개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유형은 두 코스 모두 바다를 조망하는 파노라믹 경관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7코스가 5코스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경관유형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4) 문화적 인자

(1) 편의성

편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종류별 편의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7코스는 5개의 화장실과 34개의 식당, 51개의 숙소, 13개의 휴게정자와 5개의 상점, 2개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는 9개의 화장실과 119개의 식당, 37개의 숙소, 14개의 휴게정자, 6개의 상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제외한 편의시설의 개수는 5코스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요 관광지나 마을, 시내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17>과 <그림 4-36>, <그림 4-37>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편의시설의 개수가 만족도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비교가 필요하겠다.

<표 4-17> 편의시설 현황(개)

구분	화장실	식당	숙소	휴게정자	벤치	상점	주차장
7코스	5	34	51	13	13	5	2
5코스	9	119	37	14	13	6	0

Collection @ uos

<그림 4-36> 7코스 편의시설 현황



<그림 4-37> 5코스 편의시설 현황



(2) 교육성

① 자연 · 문화자원 해설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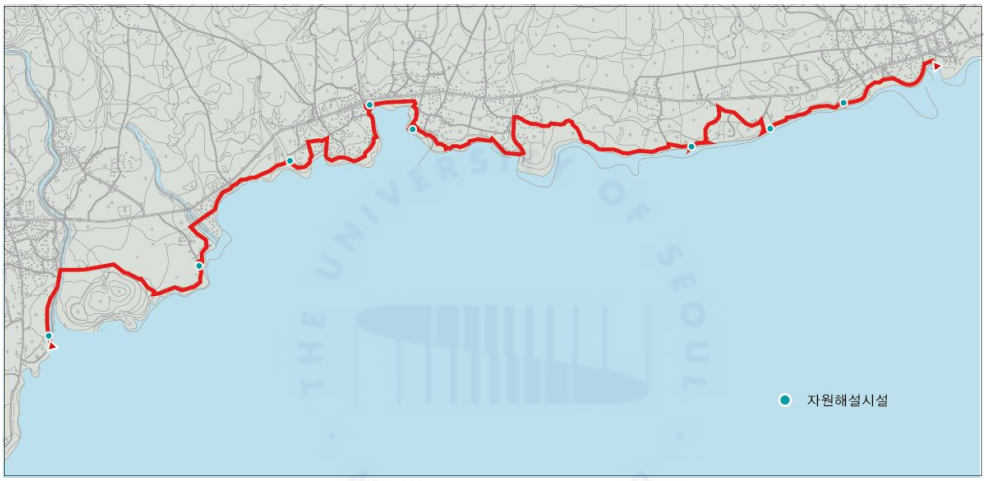
교육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원·문화자원의 해설시설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두 코스 모두 자연적 요소의 해설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7코스가 15개, 5코스가 10개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근경거리에 한하여 주요경관자원의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5코스가 더 많은 주요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시설의 개수가 적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18>에 나타나있다.

Collection @ uos

〈그림 4-38〉 7코스 자연 · 문화자원 해설시설



〈그림 4-39〉 5코스 자연 · 문화자원 해설시설



〈표 4-18〉 자연 · 문화자원 해설시설 현황

구분	개수	내용		
		자연적 요소	역사적 요소	문화적 요소
7코스	15	일냉이, 공물, 망다리, 두머니물, 황근복원지, 썩은섬, 악근천, 강정천, 주상절리대	막숙, 배염줄이(2개), 오다리흰돌밑(황해산성터)	대장금 촬영지(해설판), 동가름물/서가름물
5코스	10	큰엉(2개), 신그물, 고망물, 넙빌레, 쇠소깍	망장포, 조배머들코지	동백나무 군락지, 위미 여인상

Collection @ uos

(3) 수익성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해 코스 주변 농수산물 판매소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7코스는 12개, 5코스는 2개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감귤과 같은 제주 특산물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상품을 소량으로 가져다 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향후 이용자 설문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하겠다.

<그림 4-40> 7코스 농수산물 판매소 현황



<그림 4-41> 5코스 농수산물 판매소 현황



(4) 일상성

①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코스 내에서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한 구간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Collection @ uos

가벼운 옷차림으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가 편리한 구간을 마을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7코스에서는 법환마을과 인접하여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강정마을과 인접한 구간이 하이킹이나 산책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코스에서는 코스의 시점 지역인 남원읍과 인접하여 약 1km에 걸친 포장구간이 있었고, 위미3리와 위미1리, 신례2리, 효돈동과 인접하여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큰엉 산책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좁고 구불구불하며, 마을과의 거리감도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시켰다.

하이킹 및 산책에 있어서는 5코스가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42> 7코스 하이킹/산책에 용이한 구간



<그림 4-43> 5코스 하이킹/산책에 용이한 구간



Collection @ uos

② 거주지 관통

거주지 관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경유되는 마을과 지역주민 피해가능지역을 살펴보았다. 지역주민 피해가능지역의 여부는 코스와 바로 인접한 사유지(농작지 및 주택가)에 붙여놓은 금지나 알림 표지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7코스가 경유하는 마을은 법환동, 강정동, 월평동 총 3개이며,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능구역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가 경유하는 마을은 남원리, 위미1,2,3리, 신례2리, 효돈동 총 6개이며, 지역주민 피해가능구역은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4> 7코스 거주지 관통여부



<그림 4-45> 5코스 거주지 관통여부



Collection @ uos

(5) 지역성

① 축제 및 행사

지역성을 엿볼수 있는 축제 및 행사를 조사해본 결과는 <표 4-19>와 같다. 제주올레 걷기 축제와 같은 공통 축제를 포함해서 7코스는 7개, 5코스는 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행사를 제외하면 모두 5회 이상 진행되온 축제이기에 연계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나, 제주올레 걷기 축제도 매회 개회되는 코스가 상이하고, 쇠소깍 축제를 제외하면 코스 내에서 치뤄지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레와 각 축제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 가능성과 필요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19> 축제 및 행사

구분	개수	축제		행사
7코스	7	제주올레 걷기 축제 (2011년 6-9코스 2012년 10-13코스)	서귀포 칠십리축제 (18회째, 9월 초) 제주평생학습축제 (7회, 10월 중) 서귀포 시민화합한마당 축제	한 여름밤의 새연교 콘서트 (2012년 7월 20-9월 8일 매주 금,토) 서호 고근산 추석달맞이 행사 (6회째, 추석) 서귀포 주민자치박람회 (9월 중)
5코스	2		환경사랑 쇠소깍 해변 축제 (10회째, 8월 중)	-

Collection @ uos

(6) 문화적 인자 종합 비교

7코스와 5코스의 문화적 인자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제외한 편의시설의 개수는 5코스가 7코스에 비해 더 많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자원해설시설과 농수산물 판매소는 7코스가 5코스보다 더 많이 갖추고 있었으며, 지역주민 피해가능 지역은 두 코스 모두 각각 3곳으로 나타났다. 축제와 행사는 5코스보다 7코스 주변에서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계가능성과 필요성 여부를 향후 관련주체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3. 소결

물리적 인자의 분석 결과, 두 코스 모두 우회로 이용에 대한 조사가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안전성을 제외한 다른 인자들은 7코스가 5코스에 비해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성은 바닥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각적 인자의 분석 결과, 자원의 양적 수는 5코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급화 결과 7코스 자원이 높은 등급을 고르게 얻어 질적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5코스 자원들의 연계 및 부족한 측면의 개선을 통해 보유 자원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관 유형은 7코스가 조금 더 다양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자원의 가시영역에 대하여 향후 만족·선호 여부에 따라 부족한 부분의 보완도 이뤄져야겠다.

문화적 인자의 분석 결과, 편의성은 5코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과 교육성은 7코스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심층인터뷰를 통해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제 2 절 관련 주체 인식 평가

1. 이용자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응답하게 하였다. 표본 집단은 선정 대상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였다.

7코스에서는 2012년 7월 27일, 29-31일, 8월 4일 5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용자에게 60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5코스에서는 2012년 7월 28일, 8월 1-3일, 8월 5일 역시 5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이용자에게 54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20>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7코스		5코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8	53.8	22	47.8
	여자	24	46.2	24	52.2
	합계	52	100.0	46	100.0
연령	20대	8	15.4	14	30.4
	30대	12	23.1	10	21.7
	40대	18	34.6	11	23.9
	50대 이상	14	26.9	11	23.9
	합계	52	100.0	46	100.0
최종학력	초등학교	0	0	2	4.3
	중학교	0	0	1	2.2
	고등학교	20	38.5	10	21.7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20〉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7코스		5코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최종학력	전문대	6	11.5	4	8.7
	대학교	19	36.5	26	56.5
	대학원	7	13.4	3	6.5
	합계	52	100.0	46	100.0
직업	학생	6	11.5	7	15.2
	공무원	6	11.5	1	2.2
	전문직	6	11.5	5	10.9
	자영업	4	7.7	6	13.0
	사무직	8	15.4	8	17.4
	서비스직	2	3.8	3	6.5
	관리직	4	7.7	2	4.3
	생산직	5	9.6	2	4.3
	판매직	2	3.8	4	8.7
	전업주부	2	3.8	3	6.5
	기타	7	13.5	5	10.9
	합계	52	100.0	46	10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6	30.8	14	30.4
	100~200만원	14	26.9	11	23.9
	200~300만원	14	26.9	16	34.8
	300~400만원	2	3.8	2	4.3
	400~500만원	3	5.8	2	4.3
	500만원 이상	3	5.8	1	2.2
	합계	52	100.0	46	100.0
거주지	서울	11	21.1	15	32.6
	경기도/인천	6	11.5	12	26.1
	강원도	2	3.8	0	0
	충청도	1	1.9	2	4.3
	경상도	6	11.5	5	10.9
	전라도	0	0	5	10.9
	제주도	26	50.0	6	13.0
	기타	0	0	1	2.2
	합계	52	100.0	46	100.0

Collection @ uos

2) 이용 실태 분석

(1) 코스 선택 이유

제주올레 중에서 7코스와 5코스를 선택하여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7코스의 경우 '경치/경관이 아름다워서'라는 응답이 53.8%로 절반을 넘기며 가장 높았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서'라는 응답이 26.9%로 뒤를 이었다. 5코스의 경우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서'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았으며, 역시 '경치/경관이 아름다워서' 라는 응답이 28.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제주올레를 선택할 시 경치/경관에 대한 요인이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추천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주올레의 모든 코스를 돌아보기 위한 일부로써'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제주올레 방문 코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도 성취동기에 의한 선택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21> 코스 선택 이유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치/경관이 아름다워서	28	53.8	13	28.3	41	41.05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어서	0	0	1	2.2	1	1.1
주변관광지 및 역사문화지역을 답사하기 위해서	4	7.7	1	2.2	5	4.95
교통이 편리해서	0	0	4	8.7	4	4.35
주변사람들이 추천해서	14	26.9	15	32.6	29	29.75
모든 코스를 돌아볼 예정이라 그것의 일부로서	4	7.7	11	23.9	15	15.8
기타	2	3.8	1	2.2	3	3.0

(2) 방문 목적

제주올레를 방문하는 목적은 7코스와 5코스 모두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Collection @ uos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2.7%, 32.6%로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제주올레 여행객의 도보여행 동기에서 성취동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노경국(2011)의 연구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주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표 4-22> 방문 목적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17	32.7	15	32.6	32	32.65
자연과 환경을 배우기 위해	2	3.8	1	2.2	3	3.0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15	28.8	9	19.6	24	24.2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1	1.9	7	15.2	8	8.55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5	9.6	10	21.7	15	15.65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0	0	0	0	0	0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0	0	0	0	0	0
가족 및 동료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10	19.2	4	8.7	14	13.95
기타	2	3.8	0	0	2	1.9

(3) 방문 전 정보를 얻는 출처

제주올레를 방문하기 전 어디서 정보를 얻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각각 51.9%, 54.3%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과, 각각 34.6%, 28.3%의 비중으로 주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얻는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이뤘다. 이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확성과 다양성, 편리성 측면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올레를 이용해 본 이용자들의 살아있는 정보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표 4-23> 방문 전 정보를 얻는 출처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인터넷	27	51.9	25	54.3	52	52.6
홍보책자	5	9.6	7	15.2	12	12.4
잡지 및 신문	2	3.8	0	0	2	1.9
TV나 방송매체	0	0	1	2.2	1	1.1
주변 친구나 지인	18	34.6	13	28.3	31	31.45
기타	0	0	0	0	0	0

(4) 방문 빈도

제주올레를 방문하는 빈도는 7코스와 5코스 각각 44.2%, 45.7%로 처음 방문자가 가장 많았고, 1년에 1-2회 방문한다는 응답이 각각 26.9%, 43.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다수의 이용객이 제주올레를 처음 방문하거나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레를 이용할 때 장소가 생경한 사람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수준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주올레를 일상에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 인터뷰 결과에 따라 일상적 활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고려해 봐야겠다.

<표 4-24> 방문 빈도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처음 방문	23	44.2	21	45.7	44	44.95
일주일에 1-2회	0	0	0	0	0	0
한 달에 1-2회	0	0	0	0	0	0
6개월에 1-2회	15	28.8	5	10.9	20	19.85
1년에 1-2회	14	26.9	20	43.5	34	35.2
기타	0	0	0	0	0	0

Collection @ uos

(5) 이용 교통수단

제주올레 방문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7코스와 5코스 각각 40.4%, 63.0%로 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했고, 자가용과 택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길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버스 이용에 대한 편의가 자가용보다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4-25> 방문 시 교통수단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자가용	16	30.8	6	13.0	22	21.9
버스	21	40.4	29	63.0	50	51.7
택시	8	15.4	9	19.6	17	17.5
도보	7	13.5	2	4.3	9	8.9
기타	0	0	0	0	0	0

(6) 방문 소요시간

제주올레를 방문하기까지 소요시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7코스와 5코스 각각 46.2%, 43.5%의 비중으로 30분이하라고 응답했다. 30분에서1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34.6%, 47.8%를 보였는데, 이는 방문하려는 올레코스와 멀지 않은 장소에 숙박을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가 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방문 시간이 짧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혹은 대중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향후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숙박이용률을 함께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26> 방문 소요시간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0분 이하	24	46.2	20	43.5	44	44.85
30분~1시간	18	34.6	22	47.8	40	41.2
1시간~2시간	6	11.5	2	4.3	8	7.9
2시간~3시간	0	0	1	2.2	1	1.1
3시간 이상	4	7.7	1	2.2	5	4.95

Collection @ uos

(7) 탐방로 이용 지점

제주올레는 정해진 시·종점이 있으나 여러 이유에서 시작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황을 알아보았다. 7코스와 5코스 각각 65.4%, 69.6%로 시작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의 의견이 각각 21.2%, 21.7%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 중에는 시작 점 근처나 중간부터 시작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는 시작점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하지만, 적지 않은 이용객이 시점과 종점에 상관없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간지점에서도 올레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르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겠다.

<표 4-27> 탐방로 이용 지점

구분		시작점	종점	기타	합계
7코스	빈도 (명)	34	7	11	52
	비율 (%)	65.4	13.5	21.2	100.0
5코스	빈도 (명)	32	4	10	46
	비율 (%)	69.6	8.7	21.7	100.0
합계	빈도 (명)	66	11	21	98
	비율 (%)	67.5	11.1	21.4	100.0

(8) 탐방로 이용 지점 선택 이유

그 지점부터 탐방을 시작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7코스와 5코스 각각 46.2%, 47.8%가 코스완주를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교통편 및 숙소와 가까워서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시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으며, 역주행을 해보고 싶어서 등이 있었다. 이는 많은 이용자들이 코스완주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숙소와 교통편 등도 의미 있는 결정요인을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작점을 찾지 못하거나 주민들이 틀리게 알려주는 사례도 발생한 바, 특히 시작점의 인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표 4-28> 탐방로 이용 지점 선택 이유

구분		코스완주를 위해	숙소와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해서	기타	합계
7코스	빈도(명)	24	14	2	12	52
	비율(%)	46.2	26.9	3.8	23.1	100.0
5코스	빈도(명)	22	8	12	4	46
	비율(%)	47.8	17.4	26.1	8.7	100.0
합계	빈도(명)	46	22	14	16	98
	비율(%)	47.0	22.15	14.95	15.9	100.0

(9) 총 완주 시간

코스를 완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 7코스는 38.%가 6~7시간이라고 응답했고, 5코스는 52.1%가 5~6시간이라고 응답했다. 물리적으로 5코스가 더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4-29> 총 완주시간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4시간 이하	0	0.0	1	2.2	1	2.2
4~5시간	12	23.1	5	10.9	17	17.0
5~6시간	15	28.8	24	52.1	39	40.4
6~7시간	20	38.5	13	28.3	33	33.4
7시간 이상	5	9.6	3	6.5	8	8.05

(10) 총 휴식 시간

완주하기까지 식사시간을 포함한 총 휴식시간을 묻는 질문에서 7코스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38.5%로 가장 높았고, 5코스에서는 45분에서 1시간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았다.

Collection @ uos

<표 4-30> 총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구분	7코스		5코스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30분 이하	0	0	2	4.3	2	2.15
30~45분	11	21.2	5	10.9	15	16.05
45분~1시간	12	23.1	21	45.7	33	34.4
1시간~1시간 30분	20	38.5	15	32.6	35	35.5
1시간 30분~2시간	3	5.8	2	4.3	5	5.05
2시간 이상	6	11.5	1	2.2	7	6.85

(11) 편의시설 사용 빈도

편의시설별 이용 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화장실은 7코스와 5코스 각각 48.1%, 45.7%로 2회 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식당은 각각 63.5%, 58.7%로 1회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숙소는 7코스에서 67.3%, 5코스에서 60.9%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고, 휴게시설은 7코스가 48.1%로 3회라고 응답했고, 5코스가 52.2%가 2회라고 응답했다. 상점은 7코스와 5코스 각각 63.5%, 54.3%의 비중으로 2회라고 응답했다. 주차장은 7코스와 5코스 각각 69.2%, 87.0%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표 4-31> 편의시설 사용 빈도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화장실	7코스	빈도(명)	0	3	25	16	8	52
		비율(%)	0	5.8	48.1	30.8	15.4	100.0
	5코스	빈도(명)	0	22	21	3	0	46
		비율(%)	0	47.8	45.7	6.5	0	100.0
식당	7코스	빈도(명)	19	33	0	0	0	52
		비율(%)	36.5	63.5	0	0	0	100.0
	5코스	빈도(명)	19	27	0	0	0	46
		비율(%)	41.3	58.7	0	0	0	100.0
숙소	7코스	빈도(명)	17	35	0	0	0	52
		비율(%)	32.7	67.3	0	0	0	100.0
	5코스	빈도(명)	18	28	0	0	0	46
		비율(%)	39.1	60.9	0	0	0	100.0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31> 편의시설 사용 빈도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합계
휴게시설	7코스	빈도(명)	0	2	19	25	6	52
		비율(%)	0	3.8	36.5	48.1	11.5	100.0
	5코스	빈도(명)	0	0	24	18	4	46
		비율(%)	0	0	52.2	39.1	8.7	100.0
상점	7코스	빈도(명)	0	10	33	9	0	52
		비율(%)	0	19.2	63.5	17.3	0	100.0
	5코스	빈도(명)	0	6	25	15	0	46
		비율(%)	0	13.0	54.3	32.6	0	100.0
주차장	7코스	빈도(명)	36	16	0	0	0	52
		비율(%)	69.2	30.8	0	0	0	100.0
	5코스	빈도(명)	40	6	0	0	0	46
		비율(%)	87.0	13.0	0	0	0	100.0

(12) 농수산물 구입

농수산물 구입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엔 7코스의 67.3%가 5코스의 89.1%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구입물품은 과일이었고, 구입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는 '제철이 아니라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해산물의 구입이 저주한 이유로도 볼 수 있으며, 5코스의 경우 '판매하는 곳을 몰라서'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판매소의 개수가 현저히 적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겠다.

<표 4-32> 농수산물 구입 여부

구분		예	아니오	합계
7코스	빈도 (명)	17	35	52
	비율 (%)	32.7	67.3	100
5코스	빈도 (명)	5	41	46
	비율 (%)	10.9	89.1	100
합계	빈도 (명)	22	76	98
	비율 (%)	22.4	77.6	100

Collection @ uos

<표 4-33> 구입 종류

구분		과일 및 농산물	해산물	기타	합계
7코스	빈도 (명)	17	0	0	17
	비율 (%)	100	0	0	100
5코스	빈도 (명)	5	0	0	5
	비율 (%)	100	0	0	100
합계	빈도 (명)	22	0	0	22
	비율 (%)	100	0	0	100

<표 4-34> 사지 않은 이유

구분		제철이 아니라서	파는 곳이 없어서(몰라서)	들고다니거나 먹기 불편해서	기타	합계
7코스	빈도(명)	17	0	10	8	35
	비율(%)	48.6	0.0	28.6	22.8	100
5코스	빈도(명)	7	16	6	12	41
	비율(%)	17.1	39.0	14.6	29.3	100
합계	빈도(명)	24	20	16	16	76
	비율(%)	31.5	21.1	21.1	26.3	100

(13) 알고 있거나 참여했던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알기 위해 물었을 때 7코스는 51.9%, 5코스는 73.9% 가 모르거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각각 57.6%, 67.4%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참여 의사는 그에 비해 높으므로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4-35> 알고 있거나 참여했던 축제

구분		5코스 : 쇠소깍 해변 축제	7코스 : 서귀포칠십리축제	기타	없다	합계
7코스	빈도(명)	2	21	2	27	52
	비율(%)	3.8	40.4	3.8	52	100.0
5코스	빈도(명)	12	0	0	34	46
	비율(%)	26.1	0	0	73.9	100.0
합계	빈도(명)	14	21	2	61	98
	비율(%)	14.95	20.2	1.9	62.95	100.0

Collection @ uos

<표 4-36> 축제 참여 의사

구분		있다	없다	합계
7코스	빈도 (명)	30	22	52
	비율 (%)	57.7	42.3	100.0
5코스	빈도 (명)	31	15	46
	비율 (%)	67.4	32.6	100.0
합계	빈도 (명)	61	37	98
	비율 (%)	62.55	37.45	100.0

(14) 코스 분할의 적당한 위치

탐방로의 세부 구간을 나눈다면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두 코스 모두 필요없다는 의견이 각각 73.1%와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적당한 위치로 7코스는 강정포구가 17.3%로 높았고, 5코스는 위미항이 21.7%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7> 7코스의 코스 분할의 적당한 위치

구분	강정포구	제주풍림리조트	필요없다	합계
빈도 (명)	9	5	38	52
비율 (%)	17.3	9.6	73.1	100

<표 4-38> 5코스의 코스 분할의 적당한 위치

구분	위미항 (위미1리)	공천포구 (신례2리)	필요없다	합계
빈도 (명)	10	9	27	46
비율 (%)	21.7	19.6	58.7	100

(15) 재방문 및 추천 의사

방문한 코스를 재방문하거나 추천하겠는가의 질문에 대해 7코스는 88.%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재방문 및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코스는 58.%만이 그러겠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7코스의 경우 자연(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가 73.1%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얻었고, 5코스 역시

Collection @ uos

같은 이유지만 30.5%로 절반이하의 응답률을 얻었다.

5코스를 재방문 및 추천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특별함이 없어서', '다른 코스를 가보려고', '상막해서' 등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 역시 '바다 말고 볼 것이 없다', '재미없다'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등 5코스만이 가진 코스내의 경관적·체험적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39> 방문 코스 재방문 및 추천 의사 / 이유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자연(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다른 계절이 궁금해서	기타	길이 험해서	다른 코스를 방문하려고	
7코스	빈도(명)	38	5	3	4	2	52
	비율(%)	73.1	9.6	5.8	7.7	3.8	100
합계	빈도(명)	46			6		52
	비율(%)	88.5			11.5		100

<표 4-40> 방문 코스 재방문 및 추천 의사 / 이유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자연(해안)경관이 아름다워서	걷기 편해서	한번쯤 오기 좋아서	기타	특별함이 없어서	다른 코스를 방문하려고	상막해서	너무 길다	기타	
5코스	빈도(명)	14	7	3	3	6	4	3	2	4	46
	비율(%)	30.5	15.2	6.5	6.5	13.0	8.7	6.5	4.4	8.7	100
합계	빈도(명)	27				19					46
	비율(%)	58.7				41.3					100

(16)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두 코스 모두 편의시설의 부족을 꼽았다. 그 외에 7코스의 경우 낙석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15.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안전(응급)시설에

Collection @ uos

대한 의견도 있었다. 5코스는 길찾기의 어려움에 관련되어 안내 표지판이나 리본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중간 이탈자를 위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 시종점이나 중간스탬프 지점을 찾기 어렵다는 기타 의견이 있었고, 쓰레기 문제 또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나타났다.

<표 4-41> 문제점 및 개선사항

구분		편의시설 부족	낙석위험 우려	안전(응급) 시설 부족	기타	무응답	합계
7코스	빈도 (명)	11	8	5	5	23	52
	비율 (%)	21.2	15.4	9.6	9.6	44.2	100

<표 4-42> 문제점 및 개선사항

구분		편의시설 부족	길찾기의 어려움	쓰레기 문제	안전(응급) 시설 부족	기타	무응답	합계
5코스	빈도(명)	11	9	5	3	9	9	46
	비율(%)	23.9	19.5	10.9	6.5	19.6	19.6	100

3) 이미지 분석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대상지에 대한 '이미지'관련 질문을 통하여 대상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대상지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주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지역을 밝히고자 하였다.

(1) 떠오르는 이미지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7코스에서는 '외돌개'와 '바다경관'이 각각 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악근천과 서건도가 각각 11.6%로 나타나 길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자연경관적 요소를 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코스에서는 쇠소깍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바다와 남원포구가

Collection @ uos

각각 19.6%, 10.9%로 뒤를 이었다.

이는 7코스와 5코스가 바다올레로써 바다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고, 외돌개와 쇠소깍은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시종점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 이미지 요소인 만큼 중점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4-43〉 7코스의 이미지

구분	빈도	백분율(%)
외돌개	13	25.0
바다경관	13	25.0
악근천(리조트옆)	6	11.6
서건도	6	11.6
월평포구	4	7.8
리조트	2	3.8
해군기지	2	3.8
마을	2	3.8
해안도로	2	3.8
바윗길	1	1.9
돔베낭길	1	1.9
합계	52	100

〈표 4-44〉 5코스의 이미지

구분	빈도	백분율(%)
쇠소깍	16	34.8
바다	9	19.6
남원포구	5	10.9
숲	4	8.7
큰엉	3	6.5
바윗길	3	6.5
위미항	2	4.3
마을	2	4.3
넙빌레	1	2.2
망장포구	1	2.2
합계	46	100

Collection @ uos

(2)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용자에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물어 코스 내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코스의 이미지 증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응답자에게 복수로 응답하게 하였고 그 결과, 7코스의 좋아하는 것으로 외돌개가 57.4%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싫어하는 것으로는 무응답이 64.3%, 해군기지가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현장을 지나감으로써 환경적·시각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과 해군기지 주변 농성 및 각종 반대 플랜카드 등으로 인한 심리적 거부감이 작용됐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5코스에서 좋아하는 것으로는 쇠소깍이 5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싫어하는 것으로는 해안을 따라 이어진 공장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공장들로 드나드는 트럭들로 인해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으로 미루어 보아 경관적으로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느껴 부정적인 요소로 꼽혔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기지가 완공되거나 중단되던, 올레 7코스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공장지대 노선의 경우 상막하고 위험해 보이는 것의 원인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대상지 현황과 비교하여 일부 코스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표 4-45> 7코스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

구분		좋아하는것					싫어하는것		
		외돌개	서건도	악근천	월평포구	무응답	해군기지	험한길	무응답
빈도(명)		35	8	6	5	7	13	7	36
비율(%)		57.4	13.1	9.8	8.2	11.5	23.2	12.5	64.3
합계	빈도(명)	61					56		
	비율(%)	100					100		

Collection @ uos

<표 4-46> 5코스 좋아하는 것/싫어하는 것

구분		좋아하는것				싫어하는것		
		쇠소깍	큰엉산책로	건축학개론집	무응답	공장들	쓰레기	무응답
빈도(명)		34	13	7	14	26	12	17
비율(%)		50	19.1	10.3	20.6	47.3	21.8	30.9
합계	빈도(명)	68				55		
	비율(%)	100				100		

(3) 인지도에 나타난 이미지

이용집단의 마음속에 새겨진 인상을 통해 지각된 이미지가 각자의 마음속에서 지도처럼 그려지는 '인지도(image map)'을 통해서 대상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7코스와 5코스의 인지도에 나타난 여러 경관 요소를 린치(Lynch, 1960)가 분류한 다섯 개의 도시 이미지 구성요소(path, edge, district, node, landmark)로 나누어 그 빈도수에 따라 50%이상, 25-50%, 25% 이하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두 코스 모두 표적물(landmark)과 지구(district)가 가장 빈번히 나타났고, 결절점(node)과 경계(edge)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통로(path)의 경우 탐방로의 특성 상 탐방로 코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7코스의 경우 '외돌개'와 '악근천(바다와 만나는 지점)'이 눈에 잘 띄는 표적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서건도'와 '제주풍림리조트', '월평포구'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자연적 요소가 7코스의 이미지 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코스의 경우 '남원포구'와 '쇠소깍'이 가장 높게 나타나 시종점으로써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Collection @ uos

있었으며, 그 외 '큰엉'과 '위미항', '건축학개론 제주도집'이 높게 나타나 문화적 요소가 이미지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로에 있어서는 두 코스 모두 본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코스에서 멀리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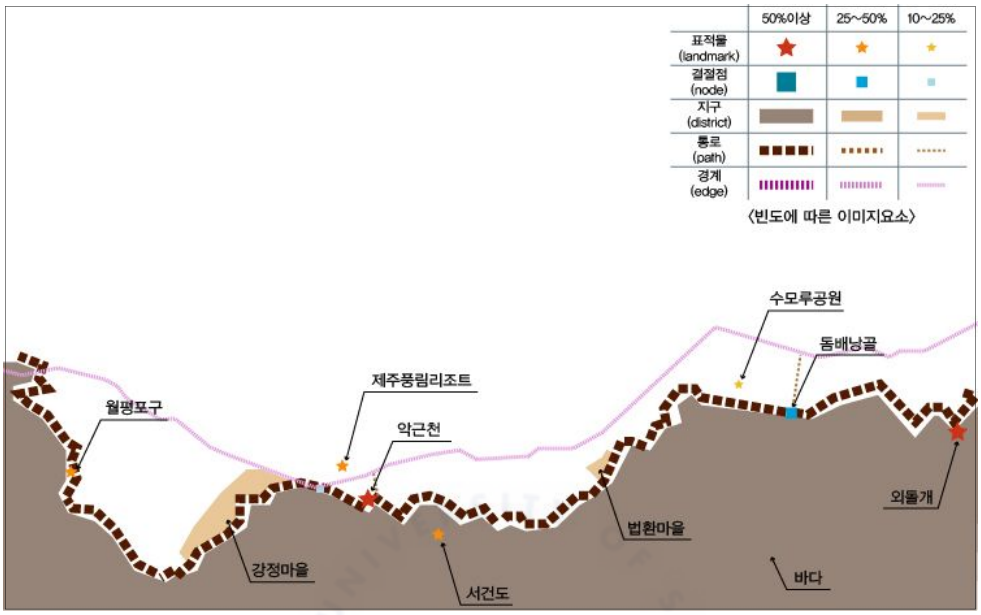
결절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바 없으나, 7코스의 경우 우회로와 만나는 돔베낭골과 경계가 되는 1132국도와 만나는 지점에서 약하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코스의 경우 공천포 쉼터에서 나타났다.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경계의 경우는, 7코스와 5코스 모두 낮은 빈도로 도로가 1132국도가 나타난 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경계 요소가 취약한 것은 이용자들이 탐방로 외에 지역으로 이동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인지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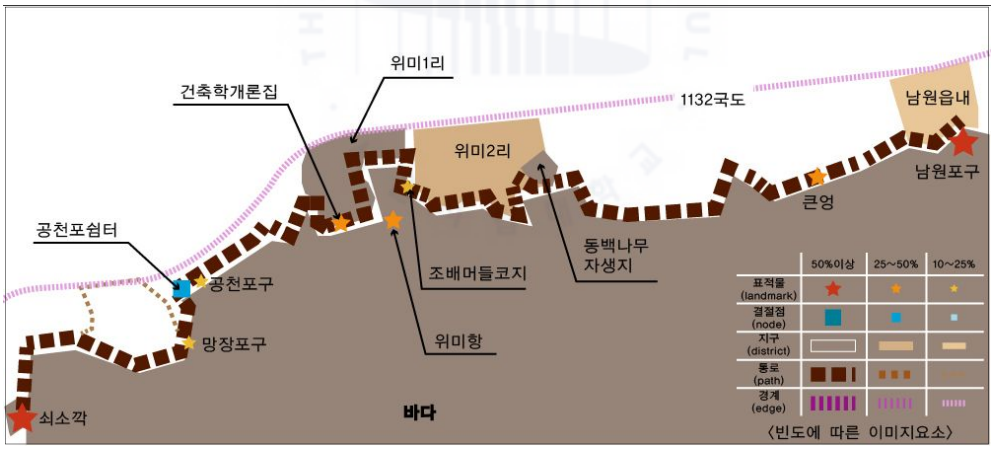
하나의 특징적인 동네나 구역을 나타내는 경관 요소인 지구는, 7코스에서는 법환마을과 강정마을이 낮은 빈도로 나타났고, 5코스에서는 위미1리와 동백나무 자생지가 50%이상의 빈도로 나타났고, 이어서 위미2리와 남원읍으로 나타났다. 법환마을의 경우 7코스에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마을이고,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로 이슈화된 곳이면서도 올레 코스가 관통하는 지역이기에 적게나마 인지되고 있었으며, 5코스의 경우 위미1리와 동백나무 자생지역이 강하게 인지됨으로써 지리적 위치 뿐만 아니라 인지도 측면에서도 중심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ollection @ uos

〈그림 4-46〉 인지도에 나타난 7코스의 경관요소분포



〈그림 4-47〉 인지도에 나타난 7코스의 경관요소분포



4) 이용자 종합분석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이용자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이용자들은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경치가 아름답다고 생각되거나 추천받은 코스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특히 인터넷 정

Collection @ uos

보는 올레가 처음인 이용자도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코스의 시종점 뿐만 아니라 중간이탈자 및 중간 진입한 이용자들을 위한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정보의 제공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휴게시설 사용빈도의 차이가 휴식시간의 차이로 이어져, 7코스가 거리가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총 완주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코스의 휴게시설의 개수가 7코스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7코스의 어떠한 요소가 완주시간을 늘어나게 한 것인지에 대한 차후 보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차장과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로 미루어보아 대중교통의 편이성이 자동차 이용의 편이성에 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농수산물 판매소의 부족이 이용자들의 구매를 막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5코스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제철이 아닌 시기에도 판매 가능한 농수산물 가공물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 축제 및 행사는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참여 의사가 그에 비해 높으므로, 제주올레와 각 축제의 정체성이 흐려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코스 분할의 적당한 위치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적지 않은 비율로 선택된 지역이 있으므로, 향후 거리의 적절성과 코스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비교를 통해 세부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분석해보아야겠다.

재방문 및 추천 의사 결과를 통해 전체 만족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는데, 7코스는 위험요소를 피하고 안전을 강화해야 하고, 5코스는 코스의 인지도와 흥미를 유발시킬만한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 이용자의 이미지를 분석해본 결과, 두 코스 모

Collection @ uos

두 설문의 응답과 인지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코스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요소로는 외돌개와 바다, 악근천, 서건도를, 5코스는 쇠소깍과 바다, 남원포구를 꼽을 수 있었다. 이들은 눈에 잘 띄는 표적물이자 대표적 이미지 요소로써, 코스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두 코스 모두 결절점과 경계가 두드러지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코스 노선 자체가 통로이자 경계가 되어 코스에 바로 인접한 요소 외에 이용자들의 이용이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코스에 대한 이미지가 길의 내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코스 자체에 강하게 인지될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면 금방 지겨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7코스의 경우에는 종점을 비롯한 지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후반부로 갈수록 경로이탈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향후 대상지 분석 내용과 비교하여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앞선 분석의 틀을 통하여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했고, 이를 물리적·시각적·문화적인자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각각 요인별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용집단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이용자에게 있어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중요도 및 만족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측정

Collection @ uos

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신뢰도를 해석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Cronbach 알파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본다.

중요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7코스의 Cronbach 알파값이 0.891 5코스는 0.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요도 항목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족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7코스는 Cronbach 알파값이 0.924, 5코스는 0.877로 나타났다. 이 역시 신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47> 중요도 신뢰도 분석

항목	7코스		5코스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경관의 차별성	.886	.891	.679	.697
농촌경관	.885		.680	
어촌경관	.886		.672	
역사문화경관	.891		.707	
삼림경관	.887		.689	
해안경관	.891		.692	
주거지경관	.884		.682	
친수공간경관	.890		.694	
해안변 도로경관	.893		.704	
횟집거리경관	.889		.712	
주변경관과의 조화	.888		.688	
노선 형태	.888		.688	
경관자원의 가시성	.892		.725	
개방성	.897		.688	
경관의 다양성	.899		.703	
자원의 매력도	.895		.687	
생태자원의 우수성	.888		.703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47〉 중요도 신뢰도 분석

항목	7코스		5코스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기존보도활용	.894	.891	.706	.697
바닥보행상태	.887		.692	
코스의 거리	.887		.687	
코스의 경사도	.882		.678	
코스의 난이도	.883		.673	
편의시설	.886		.679	
교통 접근성	.883		.694	
우회로 유무	.885		.680	
안전시설	.891		.706	
농수산물 구입	.887		.695	
정보습득의 편의성	.884		.674	
하이킹/산책의 용이성	.884		.676	
지역축제 및 행사	.885		.685	
자원해설시설	.883		.676	
마을 경유	.889		.672	

〈표 4-48〉 만족도 신뢰도 분석

항목	7코스		5코스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경관의 차별성	.929	.924	.875	.877
경관의 다양성	.923		.876	
농촌경관	.921		.874	
어촌경관	.922		.874	
역사문화경관	.922		.876	
삼림경관	.924		.877	
해안경관	.921		.873	
주거지경관	.922		.876	
친수공간경관	.922		.871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48〉 만족도 신뢰도 분석

항목	7코스		5코스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항목 삭제시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해안변 도로경관	.923	.924	.871	.877
횟집거리경관	.925		.873	
주변경관과의 조화	.924		.877	
경관자원의 가시성	.923		.875	
노선형태	.921		.874	
자원의 매력도	.924		.879	
개방성	.922		.876	
농수산물 구입	.921		.875	
정보습득의 편의성	.921		.875	
하이킹/산책의 용이성	.922		.875	
지역축제 및 행사	.921		.873	
마을 경유	.921		.875	
자원 해설시설	.922		.874	
편의시설	.923		.873	
생태자원의 우수성	.924		.882	
기존보도활용	.923		.874	
바닥포장상태	.920		.874	
코스의 거리	.920		.870	
코스의 경사도	.920		.874	
코스의 난이도	.924		.872	
교통접근성	.921		.883	
우회로 유무	.921		.876	
안전시설	.920		.871	

2) 이용집단별 만족도 차이 분석

7코스와 5코스의 전체 만족도 비교결과 7코스가 평균 4.07점, 5코스가 3.08점으로 7코스는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5코스는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약 1점 정도 높게 7코스가 5코스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uos

7코스와 5코스의 이용자가 느끼는 개별요인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부분별 평가요소에 대해 5점 리커드 척도법을 사용하였고,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만족도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시각적 요인들 중에서 농촌경관의 만족도에 대하여 7코스는 평균 3.44, 5코스는 평균 2.61로 나타났다. 독립표본 t검증의 결과 판단 전 두 집단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 표본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보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은 유의확률이 0.05 이상 이어야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두 집단이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연구가설이 아닌, 같은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귀무가설을 따르게 된다.

농촌 경관의 만족도에 대한 Levene의 검정 결과를 보면 F통계량 값은 .046이고 유의확률은 .830이므로 유의수준 5%에서 등분산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등분산이 가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독립표본 T 검정결과를 보면 검정통계량 T값은 6.398, 자유도는 96이고 유의확률은 .000이다. 따라서 두 코스의 농촌경관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인자들을 분석해본 결과, 물리적 인자 중에서는 '바닥포장상태', '접근성', '생태자원의 우수 및 다양성', '코스의 경사도'가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 이용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인자 중에서는 '삼림 경관', '친수 경관', '해안변 도로경관', '횟집 거리경관', '어촌경관'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화적 인자 중에서는 '농수산물 구입'과 '하이킹 및 산책의 용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인자들이 7코스에서 더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걷기 편함, 친수공간경관, 해안변 도로경관, 횟집거리경관, 어촌경관, 하이킹

Collection @ uos

이나 산책의 용이성 요인에서만 5코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이용 집단별 전체 만족도 차이검정

항목			만족도					
			Levene의 등분산 검정		7코스	5코스	t값	유의확률
			F	유의확률	평균	평균		
물리적인자	바닥포장상태	등분산이 가정됨	.088	.767	3.27	3.09	1.071	.287
	코스의 거리		.052	.820	3.33	2.65	2.983	.004
	코스의 난이도		2.017	.159	3.63	3.28	2.140	.035
	교통 접근성		1.717	.193	3.35	3.00	1.629	.107
	우회로 유무		2.413	.124	3.42	2.96	2.650	.009
	안전시설		3.550	.063	3.25	2.78	2.794	.006
	생태자원의 우수성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576	.020	3.67	3.59	.536	.593
	기존보도활용		8.169	.005	3.71	2.89	4.408	.000
	코스의경사도		10.009	.002	3.50	3.33	1.073	.286
시각적인자	경관의 차별성	등분산이 가정됨	2.749	.101	3.83	2.96	5.212	.000
	농촌경관		.046	.830	3.44	2.61	6.398	.000
	역사문화경관		1.083	.301	3.40	2.65	3.815	.000
	삼림경관		1.433	.234	3.98	3.83	.970	.334
	해안경관		.421	.518	4.58	4.35	2.129	.036
	주거지경관		.290	.591	3.27	2.39	5.264	.000
	친수공간경관		.348	.557	3.83	4.04	-1.435	.155
	해안변도로경관		2.540	.114	3.00	3.07	-.386	.700
	횟집거리경관		1.694	.196	3.04	3.17	-.792	.430
	경관자원의 가시성		.051	.822	3.90	3.07	5.362	.000
	노선형태		2.353	.128	3.96	3.15	5.785	.000
	자원의 매력도		1.634	.204	3.29	2.57	4.598	.000
	개방성		2.229	.139	3.90	2.89	6.176	.000
	경관의 다양성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548	.021	4.29	3.17	7.263	.000
	어촌경관		13.041	.000	3.38	3.63	-1.290	.200
	주변경관과의 조화		13.127	.000	4.08	2.78	7.307	.000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49〉 이용 집단별 전체 만족도 차이검정

항목			만족도					
			Levene의 등분산 검정		7코스	5코스	t값	유의확률
			F	유의확률	평균	평균		
문화적인자	농수산물 구입	등분산이 가정됨	.055	.815	2.87	2.67	1.139	.257
	하이킹/산책의 용이성		.071	.897	3.21	3.37	-.976	.331
	지역 축제 및 이벤트		2.846	.095	3.38	2.83	3.648	.000
	마을 경유		3.148	.079	3.27	2.63	4.027	.000
	자원 해설시설		.304	.583	3.44	2.74	4.481	.000
	편의시설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314	.255	3.48	2.83	3.598	.001
	정보습득의 편의성		6.267	.014	3.29	2.80	3.149	.002

3) 요인별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표본 T -TEST결과, 몇 개의 요인을 제외하고 두 코스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각각의 요인이 코스 별 전체 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요인을 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많은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묶으면 보다 차원 높고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 앞서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에 있어서는 설명변수들이 질적 데이터나 카테고리 데이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설명변수들을 요인분석에 의해서 몇 개의 요인으로 묶은 다음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요인분석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을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Collection @ uos

본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이 KMO 값이 0.761로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변수 간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판단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와 변수가 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차후 요인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베리멕스(VARIMAX)회전을 통해 8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으며, 상관계수가 높은 10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10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은 총계는 73.43%인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집단별 분류는 <표 4-50>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50> 요인분석을 통한 각 집단별 요인들

구분		요인
시각적인자	경관성·다양성·자원성	경관의 차별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노선형태, 경관의 다양성, 자원의 매력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 농촌경관, 가시성, 개방성
	경관유형2	횟집거리경관, 해안변도로경관
	경관유형3	삼림경관, 친수공간경관
	경관유형4	어촌경관, 해안경관
물리적인자	접근성·보행성·연결성	접근성, 코스의 난이도, 거리의 적절성, 대안노선(우회로), 경사도
	안전성	안전시설, 바닥포장상태
	생태성	기존보도활용, 생태자연자원 우수(다양)
문화적인자	일상성·지역성·교육성	마을경유, 지역 축제 및 행사, 자원해설시설
	수익성·편의성	농수산물 구입 용이, 정보습득 용이, 편의시설

Collection @ uos

(2) 회귀분석

요인집단별로 각 대상지의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추출된 10개의 집단을 독립집단으로 설정하고, 대상지의 전체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7코스

<표 4-51>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841a	.707	.636	.335

a. 예측값: (상수), 수익성_편의성, 가시성_개방성_경관유형1, 접근성_보행성_연결성, 경관유형4, 안전성_보행성, 경관유형2, 생태성, 경관성_다양성_자원성, 경관유형3, 일상성_지역성_교육성

<표 4-52> 분산 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1.096	10	1.110	9.896	.000a
	잔차	4.597	41	.112		
	합계	15.692	51			

a. 예측값: (상수), 수익성_편의성, 가시성_개방성_경관유형1, 접근성_보행성_연결성, 경관유형4, 안전성_보행성, 경관유형2, 생태성, 경관성_다양성_자원성, 경관유형3, 일상성_지역성_교육성

b. 종속변수: a-6

Collection @ uos

〈표 4-53〉 7코스의 요인별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3.658	.088		41.460	.000		
경관성·다양성·자원성	.308	.084	.422	3.663	.001	.538	1.857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	.245	.095	.360	2.576	.014	.366	2.736
경관유형2	-.009	.053	-.017	-.169	.867	.681	1.469
경관유형3	-.143	.054	-.246	-2.624	.012	.813	1.230
경관유형4	.224	.070	.366	3.187	.003	.542	1.843
접근성·보행성·연결성	.046	.066	.086	.701	.487	.476	2.102
안전성	.162	.003	.328	2.560	.014	.436	2.293
생태성	.098	.072	.143	1.367	.179	.656	1.524
일상성·지역성·교육성	.106	.086	.155	1.225	.227	.449	2.228
수익성·편의성	.038	.071	.069	.537	.594	.431	2.321

$F=3.658+0.308F_1+0.245F_2-0.009F_3-0.143F_4+0.224F_5+0.046F_6+0.162F_7-0.098F_8+0.106F_9+0.038F_{10}$

$R^2=0.707$

종속변수 : 전체 만족도

10개의 요인집단들이 투입된 결과 7코스의 R제곱은 .707로 종속변수인 전체 만족도를 70.7% 설명하고 있으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공선성 통계량[20]을 살펴보면 공차[21]와 VIF(분산팽창요인)[22]이 각각 .10

20) 공선성 통계량의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다. 공선성(collinearity)은 두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두 개의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1이면 완전한 공선성을 보인다고 하고, 계수가 0이면 전혀 공선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 개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중공선성이라 한다.

21) 공차한계(tolerance)는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공차한계는 한 독

Collection @ uos

이상, 10이하로 나타나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다고 놓고 보았을 때, '경관성·다양성·자원성'의 만족도가 1점 올라가면 전체 만족도는 0.308점씩,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의 만족도가 1점 올라가면 전체만족도는 0.245점씩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관유형2', '접근성·보행성·연결성', '생태성', '일상성·지역성·교육성', '수익성·편의성'의 회귀계수는 그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서(유의확률 0.867>0.05, 0.487>0.05, 0.179>0.05, 0.227>0.05, 0.594>0.05) 회귀계수로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계수를 표준화한 것으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베타값을 살펴보면, '경관성·다양성·자원성'의 값이 0.422로 가장 크므로 '경관의 차별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노선형태', '경관의 다양성', '자원의 매력'이 7코스의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7코스의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은 '경관유형4',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 '안전성', '경관유형3' 순으로 나타났다.

② 5코스

<표 4-54>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802a	.643	.541	.636

a. 예측값: (상수), 수익성_편의성, 가시성_개방성_경관유형1, 접근성_보행성_연결성, 경관유형4, 안전성_보행성, 경관유형2, 생태성, 경관성_다양성_자원성, 경관유형3, 일상성_지역성_교육성

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R제곱 값이 클수록 공차한계는 작아지는데, 공차한계 값이 작을수록 그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다중공선성이 높다.

22)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공차한계의 역수로 표시되며 VIF값이 클수 록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10이하, VIF값이 10 이상일 때 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Collection @ uos

〈표 4-55〉 분산 분석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25.494	10	2.549	6.302	.000a
	잔차	14.158	35	.405		
	합계	39.652	45			

a. 예측값: (상수), 수익성_편의성, 가시성_개방성_경관유형1, 접근성_보행성_연결성, 경관유형4, 안전성_보행성, 경관유형2, 생태성, 경관성_다양성_자원성, 경관유형3, 일상성_지역성_교육성

b. 종속변수: a-6

〈표 4-56〉 5코스의 요인별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3.698	.167		22.113	.000		
경관성·다양성·자원성	.375	.118	.379	3.169	.003	.713	1.403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	.518	.167	.470	3.105	.004	.446	2.242
경관유형2	.172	.147	.163	1.168	.251	.527	1.899
경관유형3	-.016	.113	-.018	-.146	.885	.637	1.571
경관유형4	.212	.108	.247	1.954	.059	.638	1.568
접근성·보행성·연결성	.389	.122	.390	3.178	.003	.678	1.474
안전성	.212	.135	.186	1.564	.127	.725	1.379
생태성	.301	.099	.364	3.048	.004	.716	1.396
일상성·지역성·교육성	-.157	.171	-.169	-.914	.367	.300	3.335
수익성·편의성	-.072	.157	.072	-.456	.651	.407	2.458

$F=3.698+0.375F_1+0.518F_2+0.172F_3-0.016F_4+0.212F_5+0.389F_6+0.212F_7+0.301F_8-0.157F_9-0.072F_{10}$

$R^2=0.643$

종속변수 : 전체 만족도

Collection @ uos

10개의 요인집단들이 투입된 결과 5코스의 R제곱은 .643로 종속변수인 전체 만족도를 64.3% 설명하고 있으며, 유의확률은 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식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공선선 통계량 결과 공차와 VIF의 값이 각각 .10이상, 10이하로 나타나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변수들을 일정하다고 놓고 보았을 때,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의 만족도가 1점 올라가면 전체 만족도는 0.470점씩, 접근성·보행성·연결성의 만족도가 1점 올라가면 전체만족도는 0.390점씩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관유형2', '경관유형3', '경관유형4', '안전성', '일상성·지역성·교육성', '수익성·편의성'의 회귀계수는 그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서(유의확률 0.251>0.05, 0.885>0.05, 0.059>0.05, 0.127>0.05, 0.367>0.05, 0.651>0.05) 회귀계수로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회귀계수를 표준화한 것으로 회귀계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베타값을 살펴보면, 7코스와 달리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의 값이 0.470으로 가장 크므로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 '농촌경관', '가시성', '개방성'이 5코스의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어서 5코스의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집단은 '접근성·보행성·연결성', '경관성·다양성·자원성', '생태성' 순으로 나타났다.

4)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1)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의 개념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각 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여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평가기법이다. IPA분석은 중요도와 만족도 평가를 동시에 함으로써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결과

Collection @ uos

해석이 용이하다. 사분면상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특정속성에 대한 특징은 <표 4-57>과 같다.

<그림 4-48> 중요도-만족도 분석모형



<표 4-57> IPA속성의 특징

항목	특징
제1사분면 **(Keep up the good work)**	이용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만족도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서비스에 대해 상당수가 만족하는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제2사분면 **(Concentrate Here)**	이용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에 대해 만족도는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만족도가 낮은 특징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중점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3사분면 **(Low priority)**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이 부분의 속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이용자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긴 하나 다른 사항에 우선순위가 낮다.
제4사분면 **(Possible overkill)**	만족도가 높은 반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므로 과잉투자 하지 않고 이러한 속성을 위해 투입된 노력을 다른 분야에 투입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적은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Collection @ uos

(2) 중요도-만족도 분석

① 7코스

7코스 이용자의 IPA분석결과 중요도의 평균은 3.52(5점 만점), 만족도의 평균은 3.56(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 만족도(4.07)에 비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 보다 전체적으로 7코스를 걸으면서 느낀 만족도가 더 높음을 의미하므로, 각 항목 중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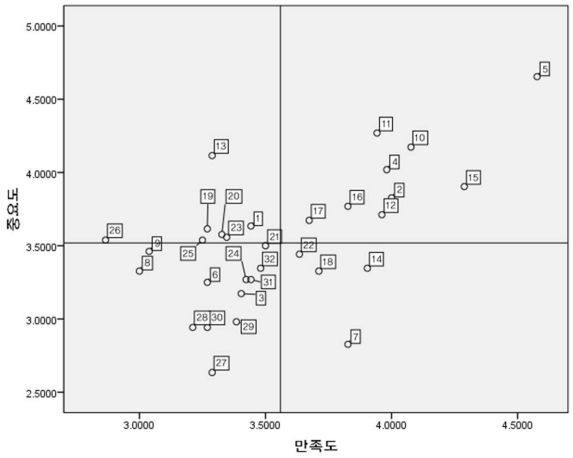
분석 결과 1사분면에 속하는 요인으로 '해안경관', '어촌경관', '삼림경관', '주변경관과 조화', '주변 경관자원의 가시성', '탐방로의 형태', '경관의 차별성', '생태자연자원의 다양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사분면에 속한 요인으로는 '농촌경관', '탐방로 주변 경관자원의 가치', '바닥 보행 상태', '탐방로의 거리', '접근성', '안전시설', '농수산물 구입의 용이성'이 있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사분면에 속하여 개선이 필요하나 우선순위가 낮은 요인은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 '해안변도로경관', '횟집거리경관', '탐방로의 경사도', '우회로 여부', '정보습득의 편리', '마을 경유',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지역 축제 및 행사', '편의시설', '자원해설시설' 인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uos

〈그림 4-49〉 7코스 IPA결과



범례			
1	농촌(농지,농업시설)경관	17	탐방로의 생태자연자원
2	어촌(포구)경관	18	기존 보도의 활용 여부
3	역사문화(문화재,관광시설)경관	19	바닥 보행 상태(포장, 흙길, 돌길)
4	삼림(산,식생)경관	20	탐방로의 거리
5	해안(주상절리,해안동굴,바다)경관	21	탐방로의 경사도
6	주거지경관	22	탐방로의 난이도
7	친수공간(해안공원)경관	23	접근성
8	해안변도로(가로 및 조경시설물)경관	24	우회로(대안루트)의 유무 여부
9	횟집거리(건축물,광고물)경관	25	안전시설의 유무 및 관리상태
10	주변경관과 조화	26	주변 농수산물 구입의 용이성
11	주변 경관자원의 조망 가능성	27	정보 습득이 편리성
12	탐방로의 형태(직선, 곡선)	28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13	탐방로 주변 경관자원의 가치	29	주변 지역 축제 및 행사
14	시각적 개방 정도	30	마을 경유 여부
15	경관유형의 다양성	31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해설시설
16	경관의 차별성	32	편의시설의 유무와 관리상태

② 5코스

5코스 이용자의 IPA분석결과 중요도의 평균은 3.49(5점 만점), 만족도의 평균은 3.06(5점 만점)로 각 만족도 평균이 전체 만족도(3.08)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전체 만족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코스에서 1사분면에 속하는 요인으로 '해안경관', '어촌경관', '삼림경관', '주변 경관자원의 조망가능성', '경관유형의 다양성', '바닥보행상태', '생태자연자원의 다양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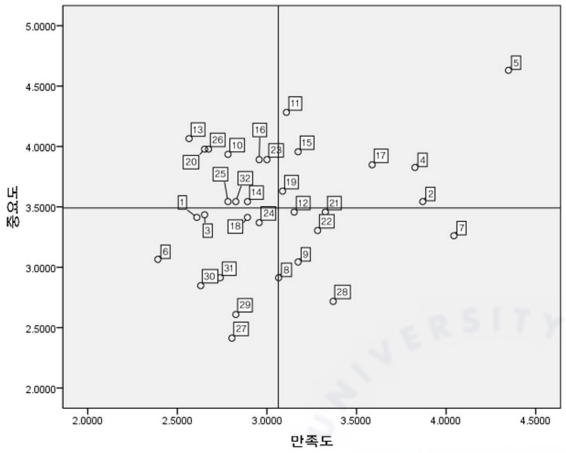
2사분면에 속한 요인으로는 '주변경관과의 조화', '탐방로 주변 경관자원의 가치', '시각적 개방정도', '경관의 차별성', '탐방로의 거리', '편의시설 유무', '접근성', '안전시설', '농수산물 구입의 용이성'이 있었으며, 이 들 요인들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사분면에 속하여 개선이 필요하나 우선순위가 낮은 요인은 '농촌경관',

Collection @ uos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 ‘기존 보도의 활용여부’, ‘우회로 여부’, 정보습득의 편리성’, ‘마을 경유’, ‘주변지역 축제 및 행사’, ‘자원 해설시설’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5코스 IPA결과



범례			
1	농촌(농지,농업시설)경관	17	탐방로의 생태자연자원
2	어촌(포구)경관	18	기존 보도의 활용 여부
3	역사문화(문화재,관광시설)경관	19	바닥 보행 상태(포장, 흙길, 돌길)
4	심림(산,식생)경관	20	탐방로의 거리
5	해안(주상절리,해안동굴,바다)경관	21	탐방로의 경사도
6	주거지경관	22	탐방로의 난이도
7	친수공간(해안공원)경관	23	접근성
8	해안변도로(기로 및 조경시설물)경관	24	우회로(대안루트)의 유무 여부
9	횟집거리(건축물,광고물)경관	25	안전시설의 유무 및 관리상태
10	주변경관과 조화	26	주변 농수산물 구입의 용이성
11	주변 경관자원의 조망 가능성	27	정보 습득이 편리성
12	탐방로의 형태(직선, 곡선)	28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13	탐방로 주변 경관자원의 가치	29	주변 지역 축제 및 행사
14	시각적 개방 정도	30	마을 경유 여부
15	경관유형의 다양성	31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해설시설
16	경관의 차별성	32	편의시설의 유무와 관리상태

③ IPA 종합분석

7코스와 5코스 이용자의 IPA(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7코스의 중점개선사항으로는 ‘바닥포장상태’, ‘코스의 거리’, ‘교통 접근성’, ‘안전시설’, ‘자원의 매력도’, ‘농수산물 구입’인 것으로 나타나 주로 물리적 인자의 개선이 시급했고, 5코스는 ‘코스의 거리’, ‘교통 접근성’, ‘안전시설’, ‘경관의 차별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개방성’, ‘자원의 매력도’, ‘농수산물 구입’, ‘편의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주로 시각적 인자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코스 모두 ‘코스의 거리’, ‘교통 접근성’, ‘안전시설’, ‘자원의 매력도’, ‘농수산물 구입’에 대한 중점적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표 4-58〉 IPA 비교 분석 결과

항목		7코스	5코스
노력지속	물리적인자	▪ 생태자원의 우수성	▪ 바닥포장상태 ▪ 생태자원의 우수성
	시각적인자	▪ 삼림경관 ▪ 어촌경관 ▪ 해안경관 ▪ 경관의 차별성 ▪ 주변경관과의 조화 ▪ 노선형태 ▪ 경관자원의 가시성 ▪ 경관의 다양성	▪ 삼림경관 ▪ 어촌경관 ▪ 해안경관 ▪ 경관자원의 가시성 ▪ 경관의 다양성
중점개선	물리적인자	▪ 바닥포장상태 ▪ 코스의 거리 ▪ 교통 접근성 ▪ 안전시설	▪ 코스의 거리 ▪ 교통 접근성 ▪ 안전시설
	시각적인자	▪ 자원의 매력도	▪ 경관의 차별성 ▪ 주변경관과의 조화 ▪ 개방성 ▪ 자원의 매력도
	문화적인자	▪ 농수산물 구입	▪ 농수산물 구입 ▪ 편의시설
개선요망	물리적인자	▪ 코스의 경사도	▪ 우회로 유무 ▪ 기조보도활용
	시각적인자	▪ 해안변도로경관 ▪ 횟집거리경관 ▪ 역사문화경관 ▪ 주거지경관	▪ 농촌경관 ▪ 역사문화경관 ▪ 주거지경관
	문화적인자	▪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 마을 경유 ▪ 자원해설시설 ▪ 지역 축제 및 행사 ▪ 편의시설 ▪ 정보습득의 편의성	▪ 마을 경유 ▪ 자원해설시설 ▪ 지역 축제 및 행사 ▪ 정보습득의 편의성
현상유지	물리적인자	▪ 코스의 난이도 ▪ 기존보도활용	▪ 코스의 경사도 ▪ 코스의 난이도
	시각적인자	▪ 친수공간경관 ▪ 개방성	▪ 친수공간경관 ▪ 해안변도로경관 ▪ 횟집거리경관 ▪ 노선형태
	문화적인자		▪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Collection @ uos

5) 중요도-만족도 종합 분석

중요도-만족도의 종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도 및 만족도 요소의 신뢰도 분석결과, 본 연구의 항목들은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이용집단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7코스가 5코스에 비해 전체 만족도 및 다수의 개별 요인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상지 자원 평가에서의 결과도 몇몇의 요인을 제외하면 7코스의 대상지 자원 현황이 더 우수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셋째, 7코스의 전체 만족도는 4.07, 5코스는 3.08로 7코스가 약 1점 정도 높은 전체 만족도를 가졌다. 많은 요인들 중에서도 각 요인별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0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7코스에서는 '경관성·다양성·자원성', '경관유형4',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 '안전성', '경관유형3'의 순으로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시각적 인자를 고려해서 보완할 경우 전체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5코스에서는 '가시성·개방성·경관유형1', '접근성·보행성·연결성', '경관성·다양성·자원성', '생태성'의 순으로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시각적 인자와 물리적 인자를 고려하여 개선한다면 전체 만족도 역시 향상되리라 판단된다.

넷째,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결과, 두 지역의 공통적 중점개선 사항으로 물리적 인자 중 '코스의 거리', '교통 접근성', '안전시설'이, 시각적 인자 중'자원의 매력도'가, 문화적 인자 중 '농수산물 구입'이 선정되었고, 이에 대한 중점적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3. 운영상 의견

1) 거주민 인터뷰

(1) 1차 인터뷰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련주체의 의견을 들어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지 못하는 사항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7코스와 5코스 주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31일 ~ 4월 2일에 걸쳐 1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제주올레 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불만족 사항을 질문하여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차 인터뷰 결과 7코스와 5코스의 주변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올레 개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수익성 측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서 오는 이익창출 때문이라는 의견과, 마을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마을 홍보를 통해 마을의 다른 관광자원으로 뻗어가는 수익 창출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다른 의견으로는 젊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어 심심치 않아 좋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부정적 이유의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와 농작물 훼손 및 절도 피해 인 것을 감안하면, 마을을 경유하는 데서 오는 양면성이 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쓰레기 투척과 노상방뇨와 같은 마을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llection @ uos

(2) 2차 인터뷰

1차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들을 토대로 2차 심층 인터뷰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 문항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만이 아는 지역의 특성과 올레를 통해 거는 기대감과 불편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7코스의 심층 인터뷰는 2012년 7월 25일, 5코스는 8월 6일에 실시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정자나 주민 센터 앞에서 실시하여 마을별 다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① 7코스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7코스의 경관성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면담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올레는 다 예뻐. 예쁘니까 많이들 오잖어. 바다도 탁 트여서 볼 수 있고, 바다를 보려면 이 길로 가는게 맞지."(잠녀마을 주민B)

"글쎄요. 여기는 종점지역이라서 그런지 가장 아름다운 곳을 지난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일단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을 연결했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올레라는 게 생겨서 말이지만, 원래 의미의 '올레'는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어디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라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오히려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이죠."(월평마을 주민C)

현재 7코스의 경관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특히 집 앞에서 마을 어귀로 향하는 길로써의 원래 의미의 올레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경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방문객들이 '제주올레'만이 '아름다운 경관', '특별한 경관'으로 다른 길보다 '제주올레'가 아름답다고, 차별성을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Collection @ uos

이를 통해 구간 선정 시 경관성에 있어서는 거주민의 의견보다는 다른 주체들의 의견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 마을은 잠녀 마을이라서 해녀들이 많이 살고 있어. 제철에는 요 밑에서 캐온 해산물을 바로바로 팔기도 하고 그래. 요 밑에 좀 더 내려가면 해녀 체험관도 있는데, 볼 만 하니까 가는 길에 들러봐."(잠녀마을 주민A)

"확실히 전에는 슈퍼에서 얼음물을 팔거나 하진 않았었는데, 요즘은 꽝꽝 얼려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상품을 팔고 하는 것보다, 마을 모두에게 수입이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게 바람이에요. 보면 마을 사람들도 올레가 마을을 지나간다고 해서 기대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실상 크게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월평마을 주민C)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업종에서는 직접적으로 닿는 수익이 없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로는 잠녀마을의 경우 마을을 잠녀마을로 특화시켜, 해녀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올레꾼들에게 적극 권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구간선정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마을별로 판매 이외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야 딱히 걷지는 않지. 그냥 우리 동네 지나는 데는 동네니까 맨날 다니는 거고. 표시 따라 가면 된다는데 굳이 찾아다니지는 않지."

"가본적은 있어요. 다 걷지는 못했고요. 바닷가쪽에 돌길이 나오면서부터는 못가겠더라구요. 아무래도 산책 겸해서 가볍게 나오다보니 그런 길을 걷기엔 힘들어서."

"쓰레기지 뭐. 아무데나 막 버리고들 가니까. 그래도 보면 종종 와서 쓰레기 줍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괜찮아."

"딱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요즘은 쓰레기 같은 것도 알아서 조심하는 분위기이고 해서."

Collection @ uos

일상성에 관한 인터뷰결과 주민들은 올레코스를 굳이 찾아다니거나 완주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올레를 마을길로 보는 관점으로 올레코스의 경관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던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있어서 올레코스가 산책로로 쓰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편사항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이 문제는 올레꾼들의 자제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쓰레기 등의 문제는 지금처럼 올레꾼 교육 및 정기적인 청소 행사 등을 통해서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올레의 산책가능 구간을 찾는 등 지역주민에게도 활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그렇게 안해도 돼. 사람도 많고 으슥한데도 없어서 안전해."

"전 반대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좀 위험한데가 있다고 해서 다 CCTV를 설치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지금껏 잘 지내왔는데, 마을에 그런 게 생긴다니 갑자기 위험한 마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싫기도 하구요."

안전성에 관한 인터뷰 결과, 지역주민들은 7코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범죄예방 측면에서 CCTV 설치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CCTV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마을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CCTV가 코스 자체의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예방이 아닌 만큼 주민들과 협력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안전한 길이니까 걱정말고 오셨음 좋겠고, 올레길에 속한 마을들한테 지원같은게 좀 적극적으로 돼서 마을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방문자와 제주올레에 바라는 점으로는, 안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의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인인 만큼 향후 협력을 통한 조직이 구성된다면 구간선정 시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② 5코스

5코스의 경관성에 대한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면담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는 마을 시내라서 딱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답다고 느낄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네.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편리하기는 할 거야. 뭐, 마을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데를 둘러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올레길은 다 비슷해. 뭐가 더 특별하고, 아름답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여기가 우리 동네니까. 다 똑같아 보여서 그런지 서로 비슷비슷한 풍경인 것 같아, 물론 아름답지. 더 좋은 올레길은 없다고 봐.”

5코스 주변 주민들 역시 올레를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으나, 시내에 있어서는 경관적 측면보다 편리성을 더 중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코스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제주올레 5코스’의 경관적 특별함을 인지하지는 않았지만, 노선 선정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했듯이 시내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많이 사먹고 그러더라구. 내가 아는 사람은 이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원래 모텔을 다가 잘 안돼서 이름 바꾸고 내부 좀 정리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 마을 사람들이 해서 잘되는 거 보면 흐뭇하고 좋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동네도 잘 알고 해서 온 사람들한테도 도움 될텐데.”

“내가 아는 사람은 농장을 하는데, 올레가 생기고부터 그 길옆에서 농장에서 기른 귤을 판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나갔는데, 걷는 사람들이 간식삼아 사가는 것도 수입이 심심치 않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박스로 갖다놓고, 주문도 받고 하는 모양이더라구.”

“농작물 판매가 적어도 20~30%는 늘어났어.”

“요즘에 우리 마을에서는 저 건물을 마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려고 해. 올레꾼들 자고 쉬고 할 수 있는 데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비어있는 건물인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Collection @ uos

구매를 해서 수리를 싹 해가지고, 개인한테 임대를 하는 거지. 그리고 임대비로 일정 금액을 받는 걸로 해서 마을 공동의 수입이 나게 하려고 하고 있어.”

5코스의 수익성에 관한 인터뷰 결과 7코스와 마찬가지로 판매업 종사자들의 수익은 직접적으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농작물 판매에 대한 수익 증가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숙박업과 관련되어 개인 및 마을 공동의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수익성이 올레 주변의 판매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 자체에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써 향후 이런 노력이 지속된다면, 구간 선정시 마을경유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 판단된다.

“동네를 특별하게 걸을거 있겠나. 그냥 내가 다니는 데가 다 올레지 뭐.”

“나는 모임에서 한번 갔었지. 출발점에서 딱 간거는 아니고, 우리 동네를 기점으로 해서 반반씩 다녀왔는데, 다닐 만은 한데, 동네라서 그런지 새로운 느낌은 덜하더라고. 다른데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나는 안 갔어. 안 갔지만, 다 가본거나 다름없지. 내가 여길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맨날 돌아다녀서 안 본건 없어.”

“경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올레꾼들한테 피해를 많이 입었지. 화장실이 부족하니까 소변도 막 들어가서 보고, 따먹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5코스의 일상성에 관한 인터뷰 결과 7코스와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특별히 올레코스를 걷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코스를 걷고자 하는 주민 역시 동네가 아닌 생소한 지역은 가보고싶다고 응답하여, 일상에서 올레코스가 차지하는 의미는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외부인이 찾아오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화장실 부족 문제로 인한 노상방뇨와 농작물 피해가 있었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Collection @ uos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설치한다고 딱히 안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CCTV는 예방책으로 우범지역엔 필요하다고 봐. 물론 5코스에는 그런 곳이 적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하던 안하던, 정부에스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들 것 같아. 그런 안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이랑 협력해서 방법을 고안하고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예산도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아."

안전성에 대한 인터뷰 결과 5코스 주민들은 대체로 5코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CCTV설치에 관하여 필요하면 설치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안전성 증진을 위해 협력단을 조직하려고 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향후 범죄에 의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운영자 인터뷰

(1) 1차 인터뷰(김민정 전 (사)제주올레 사무국장)

제주올레의 운영자인 (사)제주올레 관련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운영 및 문제점,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질의 응답하였다.

<표 4-59> 1차 인터뷰 응답내용

문항	응답내용
제주올레 운영방식	지자체 지원 없이 후원금과 제주올레 패스포트나 간세상품들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운영중 정부의 올레예산은 화장실 설치나 화단 조성 등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사)제주올레에서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59〉 1차 인터뷰 응답내용

문항	응답내용
코스의 편중화와 쓰레기 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	논의 중. 현재 제주올레 7코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마을 주민들에게 소음 및 쓰레기 피해를 주고 있음. 올레마다 하루 입장 정원을 맞춰놓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못오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음 원인 중 하나인 단체관광을 줄이기 위해 여행사 측에 제주올레 관광을 넣을 때 7코스 말고도 주차하기 편리하면서도 30-40분 정도 걷기에 좋은 곳을 선별해서 추천을 하고 있음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 올레 이용 수칙 뿐만 아니라 클린 올레 행사들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음
코스의 네이밍화	숫자화된 코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가 되어 있음 굳이 어색하게 이름을 만들어서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숫자는 전세계 공통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제주올레 수출에도 용이할 거라고 생각 올레에 이름을 꼭 붙여야 한다면, 시점과 종점의 이름을 딴 7코스 '외돌개-월평올레'라고 불려지는게 맞다고 생각
향후 중점사항	비정규코스에 대한 계획은 없음 정규코스 개설이 마무리 되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려함

(2) 2차 인터뷰(허지효 (사)제주올레 사무국장)

1차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들과 운영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코스별 시점과 종점의 선정방식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올레를 시작하고 끝낼 때 그 지역에서 자고 바로 일어나서 출발하는 게 좋잖아요, 올레꾼들이 시작하고 끝내기 좋게끔 마을을 중심으로 잡았구요, 그래야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시종점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중간

Collection @ uos

에 코스가 변경된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시종점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나 숙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요."

시종점의 선정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숙박과 교통편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7코스의 경우, 종점이 월평포구에서 월평마을로 옮겨왔는데, 이는 편의에 의해 교통과 숙박에 더 편리한 곳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만큼 교통을 비롯한 편의시설의 사용, 마을을 경유하는 것이 시종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우회로는 있어요, 올레지기(모니터링)는 그 코스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길동무(가이드)는 그 지역의 식생·자연·역사·사회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 분들과 동행을 하시게 되면 노약자나 힘드신 분에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오름으로 올라갈 걸 평탄한 길로 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코스 자체를 디자인하면서 코스를 선택하게 한 것은 7코스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공식적 코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혼란도 많이 될뿐더러,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view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코스의 다양성에 있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대안노선은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필요에 따라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천하였다. 하지만 안내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존재하는 우회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희는 여행사나 관광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상품까지 조성하기엔 지나친 요구에요. 다만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건 기존의 마을에서 가능한 체험거리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는 홈페이지에 되어있지만 체험거리는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길도 정비가 되고 하니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알리고자 하는 체험거리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코스정보에 체험거리 탭을 넣을 예정이에요... 현재는 길이 통과하는 마을 중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구요"

코스내 체험요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마을에서 가능한

Collection @ uos

체험요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요소를 만들게 된다면 이로 인해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수익성 창출과 이용자들에겐 체험의 기회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올레가 제주도에서 갖는 파워가 크기 때문에, 관광사업에서 갖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협의회를 꾸려져 안전을 진단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떤 것을 체크해야 되는 비단, 사건 발생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등 다방면의 포인트를 정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각 코스마다 일정을 짜서 각 부서별로 누가 갈껀지 팀을 꾸려서 등을 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주올레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지만, 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말 여기는 정말 필요할 거 같다라는 필요가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해야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향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주올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협력해서 협의회를 꾸려져 안전을 진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에서는 청정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작년까지 담당부서가 있었는데, 점점 축소되면서 담당직원이 없는 상태고, 제주시는 최근에 길이 뚫렸기 때문에 더 없어요, 이번 올레 사고가 발생한 것도, 담당직원이 없다보니,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하다보니, 아무래도 관심이 덜할 수 밖에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행정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야 말로 중요한게 아니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관협력에 있어서 담당직원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리자 인터뷰

(사)제주올레는 행정적으로 서귀포시와 협력하고 있다. 제주올레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2009년 2월 18일 '올레 관광 상품화를 통한 슬로상품개발'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는 TF팀인 슬

Collection @ uos

로관광도시육성팀을 출범시켰다. 이 팀은 제주올레와 관련된 편의시설 보강 및 코스 업그레이드, 테마상품 개발, 주민소득 지원 사업, 홍보 마케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민선 4기 시장의 취임에 따라 시장 직속 TF팀으로 만들어졌던 슬로관광도시육성팀이 2010년 8월 민선 5기 출범 후 관광진흥과로 흡수되면서 사실상 해체되었고, 제주도청 역시 담당부서가 아닌 청정환경국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제주올레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질적인 제주올레 전담 지원부서는 없는 실정으로 현재 제주올레 관리자의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는 TF팀의 활동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는 한계점을 보여준 사례로, 제주올레가 서귀포시권역을 넘어 제주도 전체로 확장된 만큼 제주도청과 제주시와도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전담팀의 지원은 조례와 같은 법률적 공포에 기반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그 효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운영상 의견 종합분석

7코스와 5코스 주변지역 주민들은 제주올레의 경관적 특별함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경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의 경관분석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농수산물 판매'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숙박 및 문화체험 시설 등의 마련을 통해 마을 공동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진행중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올레코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으며, 쓰레기 및 농작물 피해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므로 좀

Collection @ uos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올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용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CCTV 설치나 안전협력단 참여에도 긍정적인 의사를 보여, 안전성이 증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제주올레 관계자에 따르면 올레 코스의 시종점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요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의견과 합치되는 부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비정규코스나, 대안노선을 개발하기보다 개설된 코스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려는 상황에서, 관리의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행정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었다.

4. 소결

7코스와 5코스의 관련주체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문제점 및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표 4-60>에 나타나있다.

Collection @ uos

〈표 4-60〉 관련주체 인식 평가 종합분석

항목		문제점 및 잠재력		개선방안	
		7코스	5코스	7코스	5코스
이용자	이용실태	▪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정보를 얻으며, 초행길인 경우가 대다수임 ▪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함 ▪ 주로 코스 완주를 위해 시종점에서 출발함 ▪ 시종점 뿐만 아니라 중간지점 이용률도 꽤 높음 ▪ 숙박 이용률이 높고,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		▪ 자체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의 홍보와 블로그나 카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대중매체(TV프로그램)의 소개로 인한 유치효과도 있으므로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 코스의 홍보가 요구되어짐 ▪ 다루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접근성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 될 필요성이 있음 ▪ 시종점 뿐만 아니라 코스의 주요 지점에 대한 편의시설 및 교통편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두 코스 모두 숙박의 비중이 높으므로 다양한 숙박시설의 조성과 완주 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온천, 마사지 등)의 개발을 통한 만족도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0〉 관련주체 인식 평가 종합분석

항목		문제점 및 잠재력		개선방안	
		7코스	5코스	7코스	5코스
이용자	이용실태	▪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보려 방문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완주하는 데 평균 6~7시간이 소요됨 ▪ 총 휴식시간은 평균 1~1시간 30분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화장실은 2회, 식당은 1회, 휴게시설은 3회, 상점은 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 구입률은 낮으나 주로 과일류를 구입하고, 계절에 맞는 품목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 자연경관을 감상하러 방문한 비율이 가장 높음 ▪ 완주하는 데 평균 5~6시간이 소요됨 ▪ 총 휴식시간은 평균 45분~1시간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화장실은 2회, 식당은 1회, 휴게시설은 2회, 상점은 2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7코스보다 농수산물 구입률이 낮은데, 판매하는 곳을 모르거나 없어서 구매하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좋은 조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됨 ▪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의사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흥미를 유발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부분적으로 길이 험한 구간의 우회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회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회로의 거리 및 노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좋은 조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됨 ▪ 7코스에 비해 완주시간이 짧은 것은 휴게시설 이용빈도의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부족하다면 보충할 필요가 있음 ▪ 농수산물 판매소를 확충하여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배려해야 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0> 관련주체 인식 평가 종합분석

항목		문제점 및 잠재력		개선방안	
		7코스	5코스	7코스	5코스
이용자	이용실태	▪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사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코스를 분할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가능한 지역으로 강정포구가 가장 많았음 ▪ 재방문의사는 88%로 그 이유로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부분적으로 길이 험함 ▪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낙석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인지도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코스를 분할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가능한 지역으로는 위미항이 가장 많았음 ▪ 재방문의사는 58%로 그 이유로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코스의 경관에 특별함이 없고 상막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편의 및 안전시설의 부족하고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쓰레기 문제가 심하다고 인식함	▪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충 ▪ 낙석 위험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음	▪ 5코스 내 축제 및 행사를 마을 주민들과 협력하여 주체하거나, 주변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임 ▪ 코스의 경관적 특이성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인문·역사문화자원이 많으므로 잘 활용하여 경관 외에 방문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함 ▪ 편의시설의 활용도를 위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0> 관련주체 인식 평가 종합분석

항목		문제점 및 잠재력		개선방안	
		7코스	5코스	7코스	5코스
이용자	인지도	▪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로 외돌개, 바다, 악근천, 서건도가 선정됨 ▪ 종점을 비롯한 지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후반부로 갈수록 경로이탈의 소지가 다분함 ▪ 중점개선 요인으로 '바닥포장상태', '코스의 거리', '교통접근성', '안전시설', '농촌경관', '자원의 매력도', '농수산물 구입' 이 선정됨	▪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로 쇠소깍, 바다, 남원포구가 선정됨 ▪ 중점개선 요인으로 '코스의 거리', '교통접근성', '안전시설', '경관의 차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개방성', '자원의 매력도', '농수산물 구입'이 선정됨	▪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요소들이 훼손되거나, 시각적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요인을 중심을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두 코스 모두 '코스의 거리', '교통접근성'에 만족도가 낮으므로, 각각의 코스 안에 작은 세부 코스로 나누거나, 주코스·부코스(연결코스)로 나누어 세부 코스 별 시간 및 난이도, 거리를 제시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코스 내에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별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코스 이탈자들 및 중간지점부터 시작한 이용자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음	
		▪ 결절점과 경계가 약함		▪ 두 코스 모두 자연자원에만 치우쳐 코스 내부에만 집중돼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마을 자원 활용 등 대체 인문자원을 개발하여 제주올레의 이미지가 선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지구단위로 확장되고, 체험적 요소가 증진된다면 자원의 매력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증진 될 것이라 판단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0〉 관련주체 인식 평가 종합분석

항목	문제점 및 잠재력		개선방안	
	7코스	5코스	7코스	5코스
거주민	▪ 직접적인 수입증대가 없음 ▪ 쓰레기 문제	▪ 개인 및 마을 공동의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이 보임 ▪ 노상방뇨, 농작물 피해, 부분별 CCTV 찬성 ▪ 안전을 위한 협력단 참여 의지가 있음	▪ 마을 공동의 수익창출 모델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와 (사)제주올레의 지원을 받아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상시 안전 협력단을 조직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쓰레기 및 환경훼손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자연관리 행사로 만들어 중요성을 인지시킴과 동시에 악화를 방지함	
운영자	▪ 시종점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한 것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열어둠 ▪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체험요소를 만들어 나갈 계획 ▪ 개설된 코스의 관리에 초점을 맞출 예정		▪ 지적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는 구간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효율적인 코스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	
관리자	▪ 제주올레 전담 부서의 부재		▪ 제주올레 전담팀 구성이 시급하고, 전담팀 지원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조례와 같은 법률적 공포에 기반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그 효력을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Collection @ uos

제 3 절 분석의 종합

본 연구는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를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지를 평가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우위를 평가하여, 경관 특성에 따라 구간 설정 시 반영해야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주올레의 경관특성

제주올레의 바다올레 유형에 속하는 코스 중에서 이용률이 높은 7코스와 이용률이 낮은 5코스를 대상으로 경관특성을 종합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7코스는 5코스에 비해서 높은 생태성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성은 낮은 편이지만 길의 거리나 경사면에서 걸어다니기에 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시·종점에서 7코스를 지나는 노선은 적은 편이라 불편하고, 코스 내에는 우회로가 있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다른 자원에 비해 자연경관자원이 양적·질적으로 우수편이고, 범섬, 문섬, 서건도, 일강정바당올레, 돔배낭골, 외돌개 등을 조망할 수 있다. 가시성이 높은 자원이 다양한 거리 내, 바다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많은 볼거리와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코스의 후반부로 갈수록 경관자원은 줄어들지만, 다양한 경관유형들을 볼 수 있어 지루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바다를 향해 트인 파노라믹 경관을 볼 수 있다. 주로 곡선형태의 노선으로 진행되어 아름답고 흥미롭게 걸을 수 있으며, 자원해설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교육적으로도 유익하다. 편의시설 수와 분포에 있어서 미흡하나,

Collection @ uos

농수산물 판매대는 넉넉히 배치되어 구입에 용이하다. 코스 내에 3개의 마을을 경유하는데,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 필요한 시설 및 물품들을 구매하고, 주민들과 교류하기에 용이하다. 7코스 주변으로 다수의 축제 및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부적인 축제 및 행사는 부족한 편이라, 개선한다면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5코스는 7코스에 비해 생태적 우수성이 낮은 편이지만, 잠재적으로 안전한 지역을 지난다. 7코스보다 약 1km정도 길고 평균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지만, 보차혼용구간이 많아 쾌적성과 안전성이 떨어지고, 포장된 구간이 대부분이라 걷기에는 편하나 자연이 덜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종점의 버스정류장이 멀어 불편하고, 코스 내에 1개의 우회로가 있어, 기상 악화시 이용이 가능하다. 자연경관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7코스에 비해 역사문화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주요 경관자원으로 효돈천과 동백나무자생지, 큰엉, 조배머들코지, 쇠소깍을 조망할 수 있으며, 7코스에 비해 가시성이 높은 경관자원이 근경거리에 주로 분포되어, 근경거리에서의 볼거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개방성은 7코스보다 조금 낮은 편이나, 바다를 향해 시야가 트인 파노라믹 경관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된 다양한 경관 유형들을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롭다. 편의시설은 코스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자원해설시설과 농수산물 판매소가 적어 교육적 측면에서 불리하고, 지역 상품을 사는데 불편하다. 7코스에 비해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한 구간은 많으나, 코스 안에 너무 많은 마을을 지나가서 자연성을 느끼기에 부족한 편이고, 코스 내 축제의 수는 7코스에 비해 많다.

대부분의 요인에서 7코스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며, 이들 요인의 우수함이 7코스의 전체 만족도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비교 내용은 <표 4-61>에 나타나있다.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7 코스	물리적인자	생태성	▪ 5코스에 비해 생태적으로 우수함	▪ 생태자원의 우수함은 이용자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이미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중요하다 인지하고 있음	▪ 5코스에 비해 이미 우수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으므로 생태자원을 우수하게 만들려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안전성	▪ 잠재적 위험성은 더 높고, 안전시설의 수는 많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필요지역에는 미비한 면이 있음	▪ 안전성은 평균적으로 5코스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5코스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개선 이후 만족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시급하게 조정 및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보행성	▪ 5코스에 비해 코스의 거리는 약 1km정도 짧음 ▪ 평균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음 ▪ 보행전용구간이 많고 도로포장 구간이 적음	▪ 코스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5코스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지나 전체만족도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았음 ▪ 코스의 경사도는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는 더 높은 만족도를 가져왔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으므로 개선이 시급함 ▪ 평균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나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7 코스	물리적인자	보행성		▪ 바닥포장상태는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보행전용구간이 많고, 상대적으로 도로 포장구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현재 비율보다 더 자연성이 느껴지는 바닥상태가 많아져야 하며, 중요성이 높은 만큼 개선이 시급함
		접근성	▪ 대중교통은 시·종점 모두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운행노선이 부족했음	▪ 교통 접근성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에 있어서 시·종점의 운행노선이 부족한 점이 만족도가 낮게 된 원인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연결성	▪ 전후 코스 간 연결은 양호했고 2개의 우회로가 있음	▪ 우회로의 유무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후 코스 간 연결이 양호하고 우회로가 2개 있었으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5코스와 비교해서 개수가 많아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시각적인자	자원성	▪ 자연경관자원이 양적·질적으로 우수함 ▪ 주요경관자원으로 범섬, 문섬, 서건도, 일강정바당올레, 돔배낭골, 외돌개가 선정됨	▪ 자원의 매력도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경관자원도 주로 자연경관자원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경관자원들을 발굴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7코스	시각적인자	가시성	▪ 근경·중경·원경의 거리에서 고르게 조망점과 조망경로가 나타나 있으나, 가시성이 높은 자원이 코스의 초반에 집중되어 있어 후반부로 갈수록 볼거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경관자원의 가시성은 전체만족도에 꽤 큰 영향을 주지만,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반부의 볼거리는 여부는 다른 요인으로 만회가 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경관성	▪ 주로 곡선형태로 노선이 진행됨 ▪ 다양한 해안경관 요소를 볼 수 있음	▪ 노선의 형태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해안경관요소 중에서도 해안경관과 어촌경관이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농촌경관,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이 꽤 큰 영향을 주지만,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선 형태가 곡선일 경우에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만족하고 있으나, 전체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해안경관과 어촌경관은 바다유형의 올레 특징상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요소인데, 현재 만족도가 높고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함 ▪ 농촌·역사문화·주거지 경관은 자원분포를 보면 비교적 적게 접하는 요소로써, 중요도와 만족도는 낮지만 전체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추가 및 개선될 필요가 있음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7코스	시각적인자	개방성	▪ 전반적으로 바다를 향해 시야가 트여있으며, 5코스에 비해 조금 개방성이 높음	▪ 개방성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큰 편으로,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안경관을 조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반적으로 바다를 잘 조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유지될 필요가 있음
		다양성	▪ 주로 파노라믹 경관유형이 많으며, 5코스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한 경관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유형 진행상 후반부로 갈수록 다양한 경관유형을 보임	▪ 경관의 다양성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바다를 시각적인 방해 없이 파노라믹으로 조망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함
	문화적인자	편의성	▪ 편의시설의 수가 5코스에 비해 적고, 부분별로 집중되어 있음	▪ 편의시설 및 정보습득의 편의성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5코스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만족감을 더 얻었음.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편의시설의 양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성	▪ 5코스에 비해 많은 자원해설시설이 있음	▪ 자원해설시설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5코스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만족감을 더 얻었음.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해설시설 양적으로 많은 것이 더 만족감을 준다고 판단됨
		수익성	▪ 5코스에 비해 많은 농수산물 판매소가 있음	▪ 농수산물판매소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5코스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판매소의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이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판단되며, 개선이 시급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7코스	문화적인자	일상성	▪ 5코스에 비해 하이킹/산책에 용이한 구간은 적음 ▪ 3개의 마을이 코스에 적절히 분포되어 있음	▪ 하이킹/산책에 용이성은 상호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전체 만족도 미치는 영향과 중요도, 만족도 모두 낮음 ▪ 마을경유 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7코스가 더 높으며,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중요도, 만족도 모두 낮음	▪ 용이한 구간이 양적으로 적은 것이 불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5코스에 비해서 적은 수의 마을을 지나가는데, 만족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마을을 많이 경유하는 것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됨
		지역성	▪ 주변 축제 및 행사는 많으나 코스 내의 축제는 1개로 부족함	▪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7코스가 더 높으며,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중요도, 만족도 모두 낮음	▪ 코스 내 축제는 1개 적지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축제 및 이벤트는 양적인 수보다,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5코스	물리적인자	생태성	▪ 7코스에 비해 생태적 우수성이 낮음	▪ 생태자원의 우수함은 이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이미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중요하다 인지하고 있음	▪ 7코스에 비해 생태적 우수성을 부족하지만, 만족하고 있으므로 생태자원을 우수하게 만들려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안전성	▪ 잠재적 위험성과 안전표시판이 적음	▪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7코스에 비해 낮으며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요성에 비해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잠재적으로는 더 안전하지만, 안전성이 더 낮게 인지되고 있으므로 안전표지판의 양적 증대와, 자연적 위험성 이외의 위험성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5 코스	물리적인자	보행성	▪ 7코스에 비해 거리가 길지만, 평균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짐 ▪ 코스의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도로여서인지 보차혼용구간이 많아 쾌적성과 안전성이 떨어지고, 포장된 구간이 대부분이라 걷기에 편하나 자연을 걷는다는 느낌이 덜함	▪ 코스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7코스보다 낮은 만족도를 가지나 전체만족도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았음 ▪ 코스의 경사도는 전체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바닥포장상태는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긴 거리는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함 ▪ 평균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평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보행전용구간이 적고, 상대적으로 도로포장구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바닥의 포장여부는 현재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판단됨
		접근성	▪ 종점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멀고, 정류장까지 가려면 왔던 길을 되돌아 가야된다는 점이 불편함	▪ 교통 접근성은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에 있어서 종점의 정류장과의 거리가 먼 것이 만족도가 낮게 된 원인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연결성	▪ 전후 코스와 연결은 양호하고, 1개의 우회로가 있음	▪ 우회로의 유무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회로의 수가 적은 것이 7코스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라고 볼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5코스	물리적인자	자원성	▪ 자연경관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근경거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7코스에 비해 인문경관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많음 ▪ 주요 경관자원으로 효돈천, 동백나무자생지, 큰엉, 조배머들코지, 쇠소깍이 선정됨	▪ 자원의 매력도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괘 크지만,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경관자원도 주로 자연경관자원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경관자원들을 발굴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함
	시각적인자	가시성	▪ 7코스에 비해 가시성이 높은 경관자원이 근경거리에 주로 분포되어, 근경거리에서의 볼거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경관자원의 가시성은 전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경거리에 분포된 점은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경관성	▪ 직선형태의 노선이 많이 보여 걸을 때 단조로운 느낌을 줌 ▪ 다양한 해안경관 요소를 볼 수 있음	▪ 노선의 형태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며, 만족도에 비해 중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선 형태가 곡선인 경우보다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만족하고 있으나, 전체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5 코스	시각적인자	경관성	▪	▪ 다양한 해안경관요소 중에서도 농촌경관과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어서 해안경관과 어촌경관이 작은 영향을 주지만,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촌·역사문화·주거지 경관은 자원분포를 보면 7코스에 비해 비교적 많이 접하는 요소로써, 중요도와 만족도는 낮지만 전체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추가 및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해안경관과 어촌경관은 바다유형의 올레 특징상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요소인데, 현재 만족도가 높고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함
		개방성	▪ 전반적으로 바다를 향해 시야가 트여있으며, 7코스에 비해 조금 개방성이 낮음	▪ 개방성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편으로, 중요도데 비해 만족도가 낮음	▪ 개방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코스를 추가 및 재구성하는 것이 시급함
		다양성	▪ 경관유형은 7코스에 비해 덜 다양하지만, 적절히 분포되어 있어 흥미롭게 볼 수 있으며, 바다를 향해 열린 파노라믹 경관을 주로 볼 수 있음	▪ 경관의 다양성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고,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바다를 시각적인 방해 없이 파노라믹으로 조망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함
	문화적인자	편의성	▪ 편의시설의 수가 많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편의시설 및 정보습득의 편의성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7코스보다 만족도는 낮음. 편의시설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편의시설은 양적인 수가 많음에도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 절적차원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1〉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경관특성 비교

구분			대상지 자원평가	이용자 만족도	종합
5 코스	문화적인 자	교육성	▪ 자원의 수에 배해 해설시설의 수가 적어 자원을 인지시키기에 부족함	▪ 자원해설시설은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7코스보다 만족도는 더 낮음.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해설시설 양적으로 적은 것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됨
		수익성	▪ 농수산물 판매소가 현저히 적음	▪ 농수산물판매소는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7코스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만족도에 비해 중요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판매소의 양적 측면이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질적 측면도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시급함
		일상성	▪ 7코스에 비해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한 구간이 많으며, 코스 안에 너무 많은 마을을 지나가서 자연성을 느끼기에 부족함	▪ 하이킹/산책에 용이성은 상호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마을경유 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7코스보다 낮으며,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중요도, 만족도 모두 낮음	▪ 용이한 구간이 양적으로 많은 것이 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7코스에 비해서 많은 수의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을 많이 경유하는 것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 보다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구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역성	▪ 주변의 축제 및 행사의 수는 적으나 종점에서 10회째 열린 축제를 비롯해서 2개의 코스 내 축제가 있음	▪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7코스보다 낮으며, 전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중요도, 만족도 모두 낮음	▪ 코스 내 축제는 1개 더 많지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축제 및 이벤트는 양적인 수보다, 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Collection @ uos

2.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지 자원 평가와 이용자만족도 비교결과 전반적인 요인에서 7코스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7코스의 대상지 자원 현황이 5코스에 비해 잘 구성되어 있었고, 이는 7코스의 전체 만족도와 이용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분석 결과를 통해 코스 내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두 코스의 요인별 경관특성을 비교하여,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고 <표 4-62>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4-62> 7코스, 5코스 요인별 종합비교

구분		종합
물리적인자	생태성	▪ 생태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차이는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다고 판단되며, 유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안전성	▪ 잠재적 위험성은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확보가 중점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보행성	▪ 코스의 거리는 7코스보다 더 짧아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중점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코스의 경사도는 두 코스 간 현황과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 5코스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바닥포장상태는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며, 7코스에서 중점적으로 개선, 5코스에서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접근성	▪ 운행노선의 부족과 정류장 거리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연결성	▪ 우회로의 개수는 3개 이상이 되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단계적으로 개선이 요망됨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2〉 7코스, 5코스 요인별 종합비교

구분		종합
시각적인자	자원성	▪ 현재 자연경관자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경관자원들을 발굴 및 발전시키는 것이 중점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가시성	▪ 자원의 가시성의 부족한 사항은 대체로 전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조건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경관성	▪ 대체로 노선형태가 곡선인 경우가 만족도가 더 높으며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해안경관과 어촌경관은 가장 중요한 경관 요소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촌·역사문화·주거지 경관은 개선이 요망되는 경관 요소이고, 그 외 경관 요소들은 만족도에 적은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적으로 개선 및 유지 될 필요가 있음
	개방성	▪ 개방성은 주로 바다를 향해 열린 경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5코스의 경우 중점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양성	▪ 지배적인 경관유형으로 파노라믹 경관이 선정되었고, 다양한 경관을 보유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노력을 지속해야 함
문화적인자	편의성	▪ 편의시설은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용의 용이성, 청결성, 배치 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5코스의 경우 중점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교육성	▪ 자원해설시설의 확충은 교육성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개선이 요망됨
	수익성	▪ 판매소의 수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판매되는 제품의 다양성이나 판매소의 배치 등과 같은 질적 측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일상성	▪ 하이킹/산책에 용이한 구간은 보행하기에도 쉽기에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7코스의 경우 개선이 요망되나 5코스는 현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적당한 수(3개 정도)의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및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등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며, 그 이상의 수는 자연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요망됨
	지역성	▪ 코스 내 축제를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게 개발 및 발전시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Collection @ uos

두 코스간의 요인별 만족도의 차이를 보인 요인들 중에서 두 코스의 전체 만족도에 평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순서와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선별하여 해안 탐방로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요인의 중요순위를 선정하였다.

주로 시각적인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물리적인자, 문화적 인자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만큼 현재 이용자들이 시각적 측면에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만족감을 달리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집중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향후 마을 주민들과 운영자, 관리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적 측면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시각적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해안탐방로를 조성할 시 다음과 같은 중요요인을 참고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구간을 수정·보완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3>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순위	요인		선정조건
1	경관성	해안경관 경관의 차별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중요도가 높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 만족도의 차이를 보임
	가시성	경관자원의 가시성	
	자원성	자원의 매력도	
	다양성	경관의 다양성	
	보행성	코스의 거리	
2	경관성	어촌경관	중요도가 높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접근성	교통 접근성	

(표 계속)

Collection @ uos

〈표 4-63〉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순위	요인		선정조건
3	안전성	안전시설	중요도가 높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만족도의 차이를 보임
4	보행성	바닥포장상태	중요도가 높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생태성	생태자원의 우수성	
	경관성	삼림경관	
5	보행성	코스의 난이도	중요도가 낮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 만족도의 차이를 보임
	연결성	우회로 유무	
	경관성	농촌경관 역사문화경관 주거지경관 노선형태	
	개방성	개방성	
6	보행성	코스의 경사도	중요도가 낮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큼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7	생태성	기존보도활용	중요도가 낮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만족도의 차이를 보임
	지역성	마을 경유 지역 축제 및 행사	
	교육성	자원 해설시설	
	편의성	편의시설 정보습득의 편의성	
8	경관성	친수공간경관 해안변 도로경관 횟집거리경관	중요도가 낮음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음
	일상성	하이킹/산책에 용이성	

Collection @ uos

제 5 장 결론

본 연구는 탐방로의 지표 선정과 경관분석을 통해 경관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자 만족도와 상호 비교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크게 이론적 연구와 대상지 연구로 나뉜다. 이론적 연구에서는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제주올레와 유사한 탐방로들의 개념과 구간설정의 원칙과 기준을 고찰하였고, 제주올레에 적용 가능한 해안 및 조망경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대상지 연구에서는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를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기초로 하여 각 코스의 현황과 경관특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주체인 이용자, 거주민, 운영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바다유형의 제주올레의 경관특성을 밝히고, 두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만족도와 중요도를 비교·분석하며, 관련주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바다올레 구간설정 기준에 적용할 중요요인을 파악하려 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올레 7코스와 5코스의 공통적인 경관 특성은 코스 전반에 걸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코스로써 바다를 향해 시야가 탁 트인 파노라믹 경관을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올레의 각 코스의 평균 거리인 16.3km에 조금 못 미치는 14km 전후의 거리로, 평균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지만, 구간별로 바닥이 험한 구간이 있어 이용자의 특성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우회로를 이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이용자들을 위해 두 코스 모두 시·종점의 정류장의 거리나, 운

Collection @ uos

행노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관되고 충분한 안전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제주올레는 몇 개의 마을을 경유하는 것이 특징인데, 지나치게 많은 마을을 지나는 것은 자연체험의 기회가 줄어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바다코스 유형의 제주올레는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자연경관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경관자원 및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이나 교류가 아직은 부족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률에 따라 선정된 7코스와 5코스를 비교한 결과, 전체만족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요인에서 7코스가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성에서 '친수공간경관'과 '해안변 도로경관', '횟집거리경관', '어촌경관'이, 일상성에서 '하이킹 및 산책의 용이성'에서 5코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들 요인은 '어촌경관'을 제외하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8순위로 선정된 요인으로 7코스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갖지 못하며, 전체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관의 다양성'이나, '경관의 차별성', '경관의 가시성' 등은 7코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7코스에 비해 전체 만족도가 낮고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셋째, 7코스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요인으로는 물리적인자 중에서 보행성의 '코스의 거리', '바닥포장상태', 안전성의 '안전시설', 접근성의 '교통 접근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인자 중에서는 자원성의 '자원의 매력도', 경관성의 '삼림경관'이, 문화적 인자 중에서는 수익성의 '농수산물 구입'이 중점 개선 요인으로 나타났다. 5코스에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요인으로 물리적 인자 중에서 보행성의 '코스의 거리', 접근성의 '교통 접근성', 안전성의 '안전시설'로 나타났다. 시각적 인자 중에서는 경관성의 '경관의 차별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개방성, 자원성의 '자원의 매력도', 문화적 인자 중에서는 수익성의 '농수산물 구입', 편의성의 '편의시설'이 중

Collection @ uos

점 개선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코스 모두 거리에 있어서 불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조정한다면 다수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지만, 기존의 시·종점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제주올레 개설의 목적과도 상충되는 바가 있다가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목적에 따라 선택 가능한 중심구간과 연결구간으로 나누거나,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간 종착지를 두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편의에 따라 수월하게 노선에 진입/이탈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에 따른 편의시설 및 교통편 등의 안내를 철저히 하여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하고, 안전시설이 시각적으로 통일돼야 하며,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곳은 상시 그 위험정도를 파악하여, 여부에 따라 일부 구간의 노선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운영자, 관리자와의 긴밀한 협력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7코스 시점의 운행노선 증설과, 5코스 종점의 정류장 설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고, 자원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연경관자원 외에 다양한 경관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농수산물 판매소의 분포와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상품의 질을 높이고 종류를 다양화시켜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제주올레 7코스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요소로는 외돌개와 바다, 악근천, 서건도를, 5코스는 쇠소깍과 바다, 남원포구를 꼽을 수 있었다. 이들은 눈에 잘 띄는 표적물이자 대표적 이미지 요소로써, 코스 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Collection @ uos

두 코스 모두 결절점과 경계가 두드러지게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코스 노선 자체가 통로이자 경계가 되어 코스에 바로 인접한 요소 외에 이용자들의 이용이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코스에 대한 이미지가 길의 내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으로, 코스 자체에 강하게 인지될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면 금방 지겨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7코스의 경우에는 종점을 비롯한 지구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후반부로 갈수록 경로이탈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7코스와 5코스의 비교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1순위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해안경관', '경관의 차별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경관자원의 가시성', '자원의 매력도', '경관의 다양성', '코스의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은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특성과 비교하여 볼 때 코스별 전체 만족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고, 7코스와 5코스 사이에 유의미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경관성', '가시성', '자원성', '다양성' 등 주로 시각적인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현재 이용자들이 시각적 측면에 큰 가치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만족감을 달리 느끼고 있기에 집중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관성'에서도 '농촌경관'이나 '역사문화경관' 등이 5순위, '친수공간경관', '해안변 도로경관' 등이 8순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시각적인 요인들이 중요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공통적으로 자연을 느끼기 어려운 요인에서 낮은 만족도와 중요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문화적 인자에 속한 요인들의 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며, 현재 자연경관감상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인공적 요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

Collection @ uos

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제주올레에서 부족한 체험적 요인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에 따르면 14km 내외의 코스에는 3개 이하의 마을을 지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마을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문화를 체험한다면 단순히 코스 내부에서의 자연경관에만 치우쳐서 만족도가 결정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만족할 수 있는 탐방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바다유형의 제주올레에 있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포괄적 경관의 개념으로써 눈에 보이는 시각적 특성뿐만 아니라 경관의 매력을 증진시키는 물리적·시각적·문화적 측면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요인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출된 요인을 기준으로 기존의 제주올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구간설정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제주올레 뿐만 아니라 제주도 이외의 해안을 끼고 있는 탐방로 조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uos

▣ 참고문헌 ▣

[단행본]

- 서명숙, 2010, 꼬닥꼬닥 걷는 이 길처럼, 북하우스
- 사단법인 제주올레, 2010, 제주올레 가이드북, 사단법인 제주올레
- (사)제주올레, 2010, 제주형(올레) 생태문화로 조성방안,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문화제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기본계획, 문화제육관광부
- 이성용, 2009, 제주올레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09, 제주올레 길 마을 스토리텔링 자료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09, 해안지역의 자연경관 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2007-2009, 국립환경과학원
- 이영주, 2009, 국내외 트레일 개발사례와 시사점, 강원발전연구원
- 국토연구원, 2008, 건강 문화 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2008,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한국경관협의회, 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보문당
- 서명숙, 2008, 제주 걷기 여행, 북하우스
- 윤상호, 2007,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환경부, 2007,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환경부
- 환경부, 2005, 자연 경관심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환경부
- 환경부, 2004, 자연경관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운영방안 연구, 환경부
- 한국조경학회, 2004, 자연경관계획 및 관리, 문운당
- 유헌석·김시헌·주용준, 2002, 자연경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ollection @ uos

- 건설교통부, 2001, 경관우수지역의 보전방안에 대한 연구, 국토해양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2001, 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세굴유형분석과 복원대책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 일본건축학회편, 이한석 역, 2000, 해안건축용어사전, 기문당
- 국립공원관리공단, 1999, 국립공원 자연학습탐방 프로그램 및 자연해설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 임승빈, 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출판부
- 시노하라 오사무 저, 배현미 외 공역, 1991, 경관계획의 기초와 실제, 대우출판사

[학위논문]

- 노경국, 2011, 환경인식에 따른 올레도보여행객의 동기, 가치, 만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다영, 2011, 공간의 상징적 변형을 통한 장소브랜드 형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SONG MEIJIE, 2011, 중국 강남 전통 수향 하천 경관의 시각적 특성 및 선호요인 분석: 중국 강수성 주장 하천경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청원, 2010, 도시 공공조망점 선정에 있어 문화적 인자에 관한 연구: 남산의 조망점을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은정, 2010, 가로경관의 공간적 특성이 도시이미지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분석 : 디자인서울거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정식, 2009, 조망점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 비교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영란, 2008, 해안경관 구성요소의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Collection @ uos

- 이창연, 2008, 서울시 대표경관의 인지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휘, 2008, 광역 생태탐방로 노선선정 계획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나혹진, 2005, 해안도시지역의 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진, 2003, 해안도시의 조망경관 형성에 있어서 Open Space 역할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정, 2001, 해안경관보전을 위한 시각적 차폐도 분석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해안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논문]

- 강성일·이계회, 2011, 제주올레관광자와 대중관광객의 특성 비교: 방문동기, 환경친화적 여행태도, 웰빙인식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제25권 제6호, 23-40
- 임은정, 2011, 제주올레를 이용한 공정여행, 한국호텔리조트학회지 10권 2호, 301-313
- 정철·정란수·이훈, 2011, 도보관광 수요와 파급효과 분석: 제주올레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5권 제8호, 389-408
- 이혜린·김재준·조은경·강민지·한상열, 2011, 지리산숲길 이용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 영향 요인 연구, 한국임학회지 제100권 제2호, 273-282
- 최병길·이영관, 2011, 도보관광지 이미지와 지각된 가치가 관광자만족에 미치는 영향 :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5권 제7호, 299-321
- 전명숙, 2010. 슬로우 관광의 탐색적 고찰 : 제주올레투어 걷기여행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제8권 제1호, 109-123

Collection @ uos

- 류재숙·이승곤, 2010, 올레길 방문객의 환경인식에 따른 자연친화적 관광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권 3호, 139-151
- 이명구, 201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갈등 관리 연구: 제주 올레길 중심. 서비스산업연구 제7권 제2호, 143-164
- 박영아·현용호, 2009, 도보여행 동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도 '올레길'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3권 제7호, 75-93
- 윤상호, 2007, 해안지역의 경관관리 방안, 도시행정학보, 제20집 제3호, 51-75
- 김상범·이상영, 2006,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정관요소에 관한 연구 :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2(3), 13-18
- .박민아·이우종, 2004, 조망경관기준설정을 통한 도시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김상원·박석희, 2000, 제주도 방문 관광객의 방문 전후 이미지 차이 분석, 경기관광연구 4, 125-146

[기타]

- 김보경, 2010년 8월 20일, 올레노믹스, 아주경제, http://www.ajnews.co.kr/kor/view.jsp?newsId=20100820000364
- 이승환, 2010년 11월 26일. [매경이 만난 사람] 올레길 만든 서명숙,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0&no=650970
- 양승진, 2011년 11월 3일, [여행]제주 올레의 4가지 '불편한 진실',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50519

Collection @ uos

▣ 부록 ▣

1. 유사개념 정리

탐방로체계 및 탐방로명	노선 선정원칙	고려사항 및 평가지표
일본 자연보도	▪ 연결성 ▪ 중점정비방식 ▪ 접근성 ▪ 자원선정 ▪ (환경부, 2007)	▪ 긴키 자연보도 - 뛰어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루트 선정 - 다양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루트 선정 - 지역의 보도와 가도를 활용한 루트 선정 - 기존의 장거리 자연보도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루트 선정 - 전국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균형과 지역특성을 살린 노선형태 구상 - 주변지역의 장거리 자연보도와의 접속 배려 - 공공교통기관 혹은 자동차, 배를 이용, 접근성을 고려한 루트 선정 - 숙박시설 혹은 야외 레크레이션 이용거점 등을 활용한 루트 선정 - 근접한 부현과의 접속을 고려 ▪ 도카이 자연보도 - 연결성: 해당지역을 일주할 수 있도록 함 - 역사·문화자원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장거리 자연보도와의 네트워크 형성 - 주요 도시 및 관광거점에서의 접근성 - 대중교통 및 자동차로의 접근성 - 매력적인 자원이 많은 지역 통과 - 기상변화가 많은 산악지역 통과 제한

Collection @ uos

		- 보호가치가 높은 자원이 있는 지역을 피할 것 - 기존 시골 좁은 도로, 옛길, 현재 이용되는 숲길, 낮은 산의 하이킹 코스 등을 가능한 이용 -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노선- 온천, 전통공예, 지역 축제와 행사 등의 문화 체험과 연계 - 벼랑과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할 것 -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대만 국가보도		- 대만지역 자연자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함 - 대만지역 문화역사 자원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함 - 대만지역 경관적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함 - 가급적 자연보전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중요한 서식환경, 국가공원 생태보호구역 및 역사 유적 보존구역, 국유림 자연보호구역, 또는 기타 민감한 환경 지역의 횡단을 가급적 제한 -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잠재적 환경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며 재해 민감구역(예: 단층대, 파설대, 토석류 분포구역 등 지역)의 통과를 금지함 - 자연환경 및 생태 시스템에 주는 영향을 막고 정부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급적 기존 보도 활용 - 관광객들의 이용 안전 보장 -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연결
구미 지역 자연탐방로	▪ 가능한 많은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할 것 ▪ 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경관적 요소 보호 ▪ 필요시설들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환경부, 2007)	▪ 영국 Cotssold Way National Trail - 루트주변의 경관적 특성과 질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 루트와 연결되는 서비스 지역 - 역사적, 고고학적 혹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보존해야 할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중예술과의 결합기회 제공 ▪ 미국 North country National Scenic Trail - 하천 경관지구에 대한 민감성 - 멸종위기 자원과 습지에 대한 영향 최소화

Collection @ uos

		- 기관관리지역이나 공공의 대지에 대한 영속적인 이용권 획득 - 자연물과 자연지역과 연계 - 전체 탐방로 시스템 내에서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 - 공공대지와 넓은 사유지역의 활용 - 하이킹 및 산책에 적합한 지역 - 휴양시설과 연결 - 휴양 및 역사유적지 등과의 연결 - 지역성 유지
		▪ 미국 Colorado Front Range Trail - 기존에 이용되거나 승인되고, 계획된 탐방로를 기본골격으로 함 - 남북을 직접적으로 잇고 탐방로를 따라 동서방향의 다른 탐방로도 연결시킴 -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등과 가능하면 분리 - 탐방로 계획 및 조성으로부터 민감한 자연·문화·경관자원을 보호하고 보호자원을 명확히 함 - 다양한 탐방로 이용을 고려하여 대안적·순환적 루트를 계획 - Front Range 를 따라 생태문화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탐방로회랑을 조성 - 탐방로 조성 시에 주변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킴
한국 자연탐방로	▪ 일상성 ▪ 직접성 ▪ 안전성 ▪ 경관성 ▪ 연속성 ▪ (환경부, 2007)	▪ 생태탐방로 - 탐방로 조성으로 인한 환경훼손의 최소화 - 생태 민감지역 보호 -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거주지역 탐방로 관통제한) - 상업, 숙박,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 생태탐방자원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를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관련 기반시설을 보유한 지역과의 근거리 지역 - 한 지역의 반복통과 제한

Collection @ uos

		- 보행시 타 교통과의 마찰 최소화 - 하천 범람 수위 보다 상위 지역 노선선정 - 자동차 도로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 - 경관이 우수한 지역
	▪ 자연과 인간 공존의 교육 ▪ 생태계 보존 ▪ 수익 창출의 대안 제시	▪ 생태문화로 1. 경관·생태환경적 측면 -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최우선고려 -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에 유의하고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연속성과 일체성 유지 - 야생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환경 보전에 유의 - 지형 및 생태적 요소 고려 - 사고·재해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방안 2. 인문 사회적 측면 - 최대한 있던 길 활용 -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주변으로 산책로 조성 - 지역 축제 및 이벤트와 연계하고 지역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강구 - 지역의 이야기와 민요를 들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마을 별 환경·문화·역사적 자원 발굴 조사 - 느림의 미학을 존중 사색할 수 있는 길, 자연 치유의 길 계획 3. 물리적 측면 - 코스 조성 및 관리, 이동 통로, 탐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편의시설, 사인물로 구분하여 계획
	▪ 생태성 ▪ 문화성 ▪ 편의성	▪ 건강·문화·생태회랑 - 국립공원 포함 여부, 포장 여부, 생태자연도, 법정 보호 지역, 습지, 주요 종 발견 지역 -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 공원·녹지 - 접근성,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편의시설, 보행안전, 이용 수요
	▪ 높은 이용성	▪ 자연학습탐방로

Collection @ uos

	▪ 해설대상이 풍부하게 분포하는 매력적인 곳 ▪ 적당한 이용시간 및 거리 ▪ 재해에 대한 안정성 ▪ 경관을 파괴하지 않을 지역	- 집단시설지구 등 이용자가 집중하는 공원이용의 중심지구에 둠 - 자연경관, 지형, 지질, 동·식물, 산림, 자연현상 등이 풍부히 분포하고 있는 곳 - 자연을 체험하면서 해설시설의 내용을 읽으며, 걸어서 1-2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의 붕괴, 홍수 등 재해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마련함 - 탐방로 설치에 의해 경관파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탐방자원활용 ▪ 사유지 우회 ▪ 안전 및 교통 ▪ 다변성 고려 ▪ 선택 및 회피	▪ 해변길 - 우수경관, 해안생태, 오감자연자원, 어촌문화, 산림등을 활용 - 최대한 공원 구역 내 노선으로 하되 사유지는 가능한 우회 - 도로를 가능한 피하여 안전하게, 대중교통 연계로 편리성 제고 - 계절·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관, 밀물썰물, 자연색, 자연생태계 - 성수기의 조용한 길, 썰물길, 일부 군사길은 스스로 선택 유도
	▪ 안전성 ▪ 경관성 ▪ 보행성 ▪ 자원성 ▪ 지역성 ▪ 이용편리성	▪ 동해안 탐방로 - 순수 보행로 우선 -숲길, 해변길, 마을길, 논밭길 우선 : 국도, 지방도 최소화 - 가족 단위 탐방객 고려하여 암석, 급경사지 제외 - 동해안 조망 가능 노선 우선 - 경관자원(해안지형, 석호 등)조망 가능 노선 우선 - 노선의 선형을 가능한 곡선화, 흙길 우선 - 동해안 인접 노선 우선 - 역사성, 스토리를 지닌 이야기가 있는 옛길 우선 - 중요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이야기가 있는 옛길 우선 - 중요 관광자원과 연계가능한 탐방자원 인접 노선 우선 - 마을의 중심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고려 - 탐방객의 지역민의 교류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선 우선 - 대중교통 및 편의 지원시설 연결가능지역 우선

Collection @ uos

2. 설문지

제주올레 평가요인 선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제주올레 평가요인의 선정 및 중요도를 묻는 전문가 설문입니다.
제주올레는 가치 있는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적 자원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된 탐방로의 일종으로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올레는 걷기 좋은 길을 열되, 가능하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배려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 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올레의 이러한 의미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선정하는데 귀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견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의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6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조경학과
윤죠흔 올림
010-2015-7672, jyohunyoon@gmail.com

※ 다음의 각 항목은 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항목입니다. 개별 항목들이 제주올레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으로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노선선정원칙		중요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물리적인자	생태성	생태자원 우수	5	4	3	2	1
		기존 보도 활용(환경 훼손 최소화)	5	4	3	2	1
	보행성	보차 분리 여부	5	4	3	2	1
		포장 여부	5	4	3	2	1
		거리의 적절성 여부(걷기에 적당한 정도)	5	4	3	2	1
		코스의 경사도	5	4	3	2	1
	접근성	대중교통, 승용차, 도보 접근성	5	4	3	2	1

Collection @ uos

	안전성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5	4	3	2	1
		잠재적 환경 위험성 고려 여부 (재해 민감구역 통과여부 등)	5	4	3	2	1
	연결성	해당 지역을 일주할 수 있는 물리적 연결성 (순환적 루트)	5	4	3	2	1
		다른 탐방로와의 연결성	5	4	3	2	1
		대안적·순환적 루트 존재 여부	5	4	3	2	1
시각적인자	경관성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5	4	3	2	1
		지역특성을 살린 노선형태	5	4	3	2	1
	가시성	주변 경관자원 조망 가능성 여부	5	4	3	2	1
		코스의 가시성	5	4	3	2	1
	개방성	시각적 개방 정도	5	4	3	2	1
	다양성	경관 유형의 다양한 정도	5	4	3	2	1
	자원성	자원의 매력도(가치)	5	4	3	2	1
문화적인자	교육성	자원해설시설 유무 여부	5	4	3	2	1
	수익성	지역 경제에 기여 여부 (지역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등)	5	4	3	2	1
	일상성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5	4	3	2	1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거주지역 관통 여부)	5	4	3	2	1
	이용성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	5	4	3	2	1
	편의성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의 편의성	5	4	3	2	1
		편의 시설 유무	5	4	3	2	1
	지역성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의 문화체험과 연계	5	4	3	2	1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몇 세 입니까?

① 20세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전문대(준학사) ② 대학교(학사) ③ 대학원(석사) ④ 대학원(박사)

3. 귀하의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조경 ② 관광 ③ 도시 ④ 경관 ⑤ 생태 ·⑥ 기타( )

- 감사합니다 -

Collection @ uos

제주올레 이용자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윤죠흔입니다. 이번에 <제주올레 이용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특성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 학위논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주올레는 가치 있는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문화적 자원을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된 탐방로의 일종으로 주로 제주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올레는 걷기 좋은 길을 열되, 가능하면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배려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인간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 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올레의 이러한 의미들이 어떤 요인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하는데 귀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견은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의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6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조경학과
윤죠흔 올림
010-2015-7672, jyohunyoon@gmail.com

※ 다음은 귀하의 제주올레 방문 경험과 동기 및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방문하신 올레 코스는 어디입니까?

① 5코스 ② 7코스

2. 이 코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치/경관(이)가 아름다워서 ② 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있어서
③ 주변관광지 및 역사문화지역을 답사하기 위해서 ④ 교통이 편리해서
⑤ 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 ⑥ 모든 코스를 돌아볼 예정이라 그것의 일부로서
⑦ 기타( )

3. 올레를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② 자연과 환경에 대해 배우기 위해
③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④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⑥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⑦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⑧ 가족이나 동료들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⑨ 기타( )

4. 제주올레 방문 전 올레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① 인터넷 ② 홍보책자 ③ 잡지 및 신문 ④ TV ⑤ 주변 친구나 지인

Collection @ uos

※ 다음은 이용 행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는 본 탐방로를 얼마나 방문하십니까?

① 처음 방문 ② 1주일에 3~4회 ③ 1주일에 1~2회 ④ 한 달에 1~2회
⑤ 1년에 1~2번 정도 ⑤ 기타( )

2. 본 탐방로 방문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용 ② 버스 ③ 택시 ④ 도보 ⑤ 기타( )

3. 방문하시기까지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① 30분 이하 ② 30분~1시간 ③ 1시간~2시간 ④ 2시간~3시간 ⑤ 3시간 이상

4. 본 탐방로를 어디서부터 이용하셨습니까?

① 시작점 ② 종점 ③ 기타( )

4-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코스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하여 ② 숙소와 가까워서 ③ 교통이 편리해서
④ 기타( )

5. 본 탐방로를 완주하기까지 총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① 4시간 이하 ② 4~5시간 ③ 5~6시간 ④ 6~7시간 ⑤ 7시간 이상

6. 본 탐방로를 완주하기까지 총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은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① 30분 이하 ② 30~45분 ③ 45분~1시간 ④ 1시간~1시간30분
⑤ 1시간30분~2시간 ⑥ 2시간 이상

7. 본 탐방로를 완주하기까지 이용한 편의시설과 사용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① 화장실( )회 ② 식당( )회 ③ 숙소( )회 ④ 휴게소( )회
⑤ 상점( )회 ⑥ 주차장( )회

8. 본 탐방로 이용 도중 농수산물을 구입하셨습니까?

① 예( )회 ② 아니오

8-1.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귤·한라봉 등의 과일류 ② 어폐류 ③ 기타( )

8-2.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② 파는 곳이 없어서(혹은 몰라서)
③ 들고 다니기 혹은 먹기 불편해서 ④ 기타( )

9. 다음 중 알고 있거나 참여하신 축제가 있으십니까?

① 5코스 : 환경사랑 쇠소깍 해변축제 ② 7코스 : 서귀포칠십리축제
③ 기타 ④ 없다

Collection @ uos

10. 지역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이유:　　)

11. 그림1,2를 보고 탐방로 주변 방문해보신 장소를 표시해주십시오.

※ 다음은 귀하의 제주올레 방문의 만족도 및 중요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1. 다음 항목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O표 해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 본 탐방로에 만족하십니까?					

1-1. 시각적 요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농촌(농지,농업시설)경관에 만족하십니까?					
어촌(포구)경관에 만족하십니까?					
역사문화(문화재,관광시설)경관에 만족하십니까?					
삼림(산,식생)경관에 만족하십니까?					
해안(주상절리,해안동굴,바다)경관에 만족하십니까?					
주거지경관에 만족하십니까?					
친수공간(해안공원)경관에 만족하십니까?					
해안변도로(가로 및 조경시설물)경관에 만족하십니까?					
횟집거리(건축물,광고물)경관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탐방로 경관자원의 가시성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형태(직선, 곡선)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탐방로 주변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이					

Collection @ uos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탐방로가 시각적으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자연경관이 다른 올레코스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경관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문화적 요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본 탐방로 주변의 농수산물 구입이 용이하고 상품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이 편리하십니까?					
본 탐방로는 하이킹이나 산책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탐방로 주변의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 주변 마을(서비스) 경유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 주변 자원 해설시설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편의시설(화장실,안내시설 등)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1-3. 물리적 요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본 탐방로의 생태자연자원이 우수합니까?					
본 탐방로의 기존보도 활용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바닥 보행 상태(포장, 흙길)에 만족					

Collection @ uos

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경사도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난이도(5코스:중, 7코스: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자가용 이용 시 접근성에 만족하십니까?					
본 탐방로의 우회로(대안노선)에 만족하십니까?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의 이용에 만족하십니까?					

2. 올레 선택 시 다음 항목들의 중요도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O표 해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농촌(농지,농업시설)경관					
어촌(포구)경관					
역사문화(문화재,관광시설)경관					
삼림(산,식생)경관					
해안(주상절리,해안동굴,바다)경관					
주거지경관					
친수공간(해안공원)경관					
해안변도로(가로 및 조경시설물)경관					
횟집거리(건축물,광고물)경관					
주변경관과 조화					
자원의 매력도					
탐방로의 형태(직선, 곡선)					
경관자원의 가시성					
시각적 개방성					
경관유형의 다양성					
경관의 차별성					
탐방로의 생태자연자원					
기존 보도의 활용 여부					
탐방로의 바닥 보행 상태(포장, 흙길, 돌길)					

Collection @ uos

탐방로의 거리					
탐방로의 경사도					
탐방로의 난이도(5코스: 중, 7코스:상)					
편의시설(화장실,안내시설 등)의 유무와 관리상태					
대중교통/자가용 이용 시 보행접근성					
우회로(대안루트)의 유무 여부					
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의 유무 및 관리상태					
주변 농수산물 구입의 용이성					
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습득이 편리성					
하이킹 및 산책에 용이성					
주변 지역 축제 및 행사					
자연/경관자원에 대한 해설시설					
마을 경유 여부					

※ 다음은 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본 탐방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본 탐방로 주변 약도를 간략히 그려주세요.

3. 가장 좋아하는/싫어하는 관광 및 자연자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Collection @ uos

4.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5. 본 탐방로 구간을 나눈다면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6. 방문하신 올레를 재방문 혹은 주변에 추천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이유:)

7. 올레를 걷는 동안 발견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몇 세 입니까?

① 20세미만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전문대(준학사) ⑤ 대학교(학사)

⑥ 대학원(석사) ⑦ 대학원(박사)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학생 ② 공무원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사무직 ⑥ 서비스직

⑦ 관리직 ⑧ 생산직 ⑨ 판매직 ⑩ 전업주부 ⑪ 기타

4. 귀하의 월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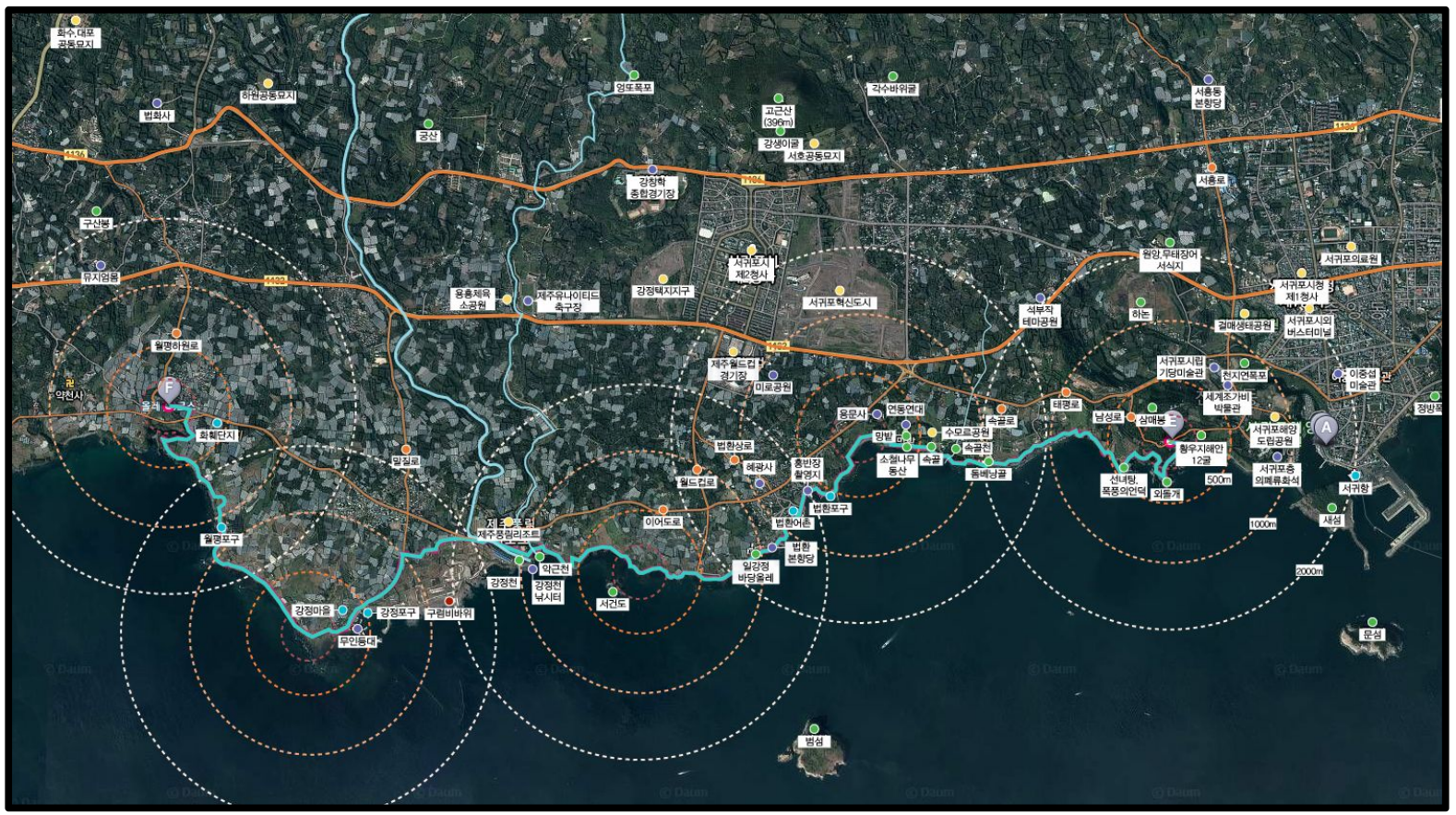
5.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강원도 ④ 충청도 ⑤ 경상도 ⑥ 전라도 ⑦ 제주도 ⑧ 기타( )

- 대단히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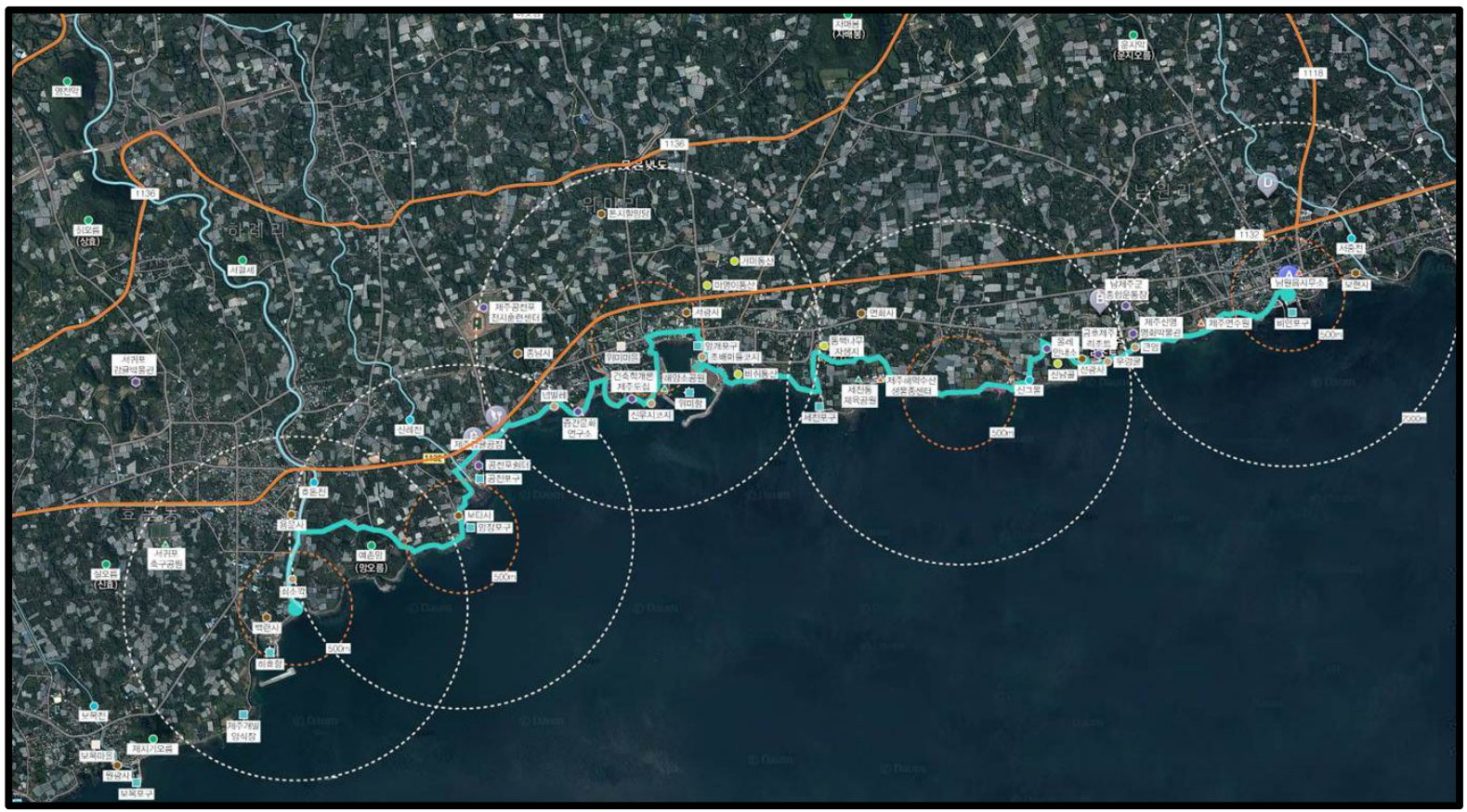
Collection @ uos

<그림1> 7코스



Collection @ uos

<그림2>5코스


1136
1118
1132
500m
2000m
서귀포 산림박물관
제주올레 전시체험센터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제주올레 사무국
제주올레 본부
제주올레 게스트하우스
제주올레 서귀포 올레센터
제주올레 제주올레 올레센터
제주올레 제주올레 올레센터
제주올레 제주올레

ABSTRACT

A Study on the Landscape Characteristic Influencing User's Satisfaction of JeJu Olle

-Focused on the Olle 7course and 5course-

Submitted by

Yoon, Jyo Hun

Supervised by

Ph.D. Kim, Han Bai

February, 2013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Collection @ uos

Jeju Olle has been created for a slow-walking along the lowlan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at it is feasible to watch a splendid view spanning through Jeju Island on a road. Serving as a place to re-examine the value of view, ecology, and culture in Jeju Island, Jeju Olle has brought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economic effect to tourism industry. However, in spite of a wave of popularity on Jeju Olle, it is now suffering from insufficient grounds or instructions as to how to pave a road for Jeju Olle. Hereupon, this study is intended to select index visiting area,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view through analysis, and compare them with a user satisfaction to determine major factors in establishing standards for route set-up. It is aimed to identify factors in priority when setting up a route via comparative advantage among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on an overall satisfaction.

Considering the biggest feature of Jeju Olle scheduled to be established along the seashore side, it has been decided that 'sea course' type could represent Jeju Olle for visitors to enjoy a gorgeous view spanning through the sea. Therefore, this study has selected a target place in course seven, showing the highest visiting rate, and in course five, representing the lowest visiting rate, among different types of sea course.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research of theory and target places. In the theoretical side,

Collection @ uos

a principle and standard needed to establish a concept of visiting place similar with Jeju Olle and section set-up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evious studies has been considered. In addition, a framework for analysis has been derived according to theory of coast and view scene to be applied in Jeju Olle.

In the target place study, a current status of each course and characteristics of view scene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established in the theoretical research performing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n related subjects including users, residents, operators, and managers. This was intende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the view spanning through Jeju Olle, compare and analyze a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two types of target places, and reflect an opinion from related subjects. Hereupon, particular factors to be applied in course set-up at Jeju Olle have been identified.

Collection @ uos